

연구보고서 2021-03

제주지역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과 정책 지원방안

- 문화, 관광,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 선민정
| 이상아
| 신승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과 정책 지원방안 - 문화, 관광,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선민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신승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연구기간 : 2021년 2월 ~ 8월



발 간 사

4차 산업시대 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사업체 공간 중심의 일자리에서 자유계약 형태의 프리랜서 직업 확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프리랜서들은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여성들이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노동실태는 매우 열악한 편이라 보호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 프리랜서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4차 산업시대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제주지역에서 거의 없는 상황이라 제주지역에서 여성 프리랜서가 많은 문화, 관광,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보호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하여 프리랜서로의 진입 계기, 교육훈련 경험, 업무 내용 및 일하는 방식, 경제적인 상황 및 일의 안정성, 분야별 프리랜서 현황,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계획 수립, 프리랜서 지원 플랫폼 구축, 교육훈련 지원 등의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심층면접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해주신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 및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의 자문을 맡아주신 자문위원님들과 평가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7개월 동안 본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고한 선민정 연구위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을 담아 발간된 본 연구보고서가 제주지역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보호 및 활동 지원에 이바지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 무 속

연구 요약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시대 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사업체 공간 중심의 일자리에서 자유계약 형태의 프리랜서 직업 확산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프리랜서는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프리랜서의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근로자로 이분화되어 있는 노동 편제 속에서 노동 보호에 취약한 상황이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인프라 및 정책 지원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 지원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서울특별시에서 2018년에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 중 여성이 68.0%를 차지하고 있었음(서울시, 2018). 또한 최윤선 외(2011)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통하여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여성이 46.0%로 나타나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이 41.6%인 것보다 4.4%p 더 높았음. 즉 프리랜서에서 여성의 비중이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기존 노동시장에서도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 여성 프리랜서는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더불어 프리랜서라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위에 따른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여성 프리랜서에 대하여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 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여성이 일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분야였음(신승배·이해웅, 2019). 또한 문화체육관광부(2019)에 의하면 전업 예술인 중에서 프리랜서 비율은 76.0%인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프리랜서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서울시(2018)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산업이었음. 제주지역의 ‘코로나 특고·프리랜서 지원 사업’의 데이터를 보면 문화, 관광, 교육 분야에 프리랜서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여성 프리랜서가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강사, 안내사, 학교방과후강사, 해설사가 프리랜서 대상 1차 특별지원사업의 약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¹⁾ 따라서 제주 지역의 문화, 관광, 교육 분야의 여성 프리랜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러한 현황 속에서 프리랜서의 노동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프리랜서들은 법적으로 자영업자도 근로자로도 포섭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즉 4대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났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불공정 거래에 노출된 경험도 높게 나타났음. 또한 표준 단가가 없는 상황에서 프리랜서들의 수입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다수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일감에 대한 보수 단가가 낮아지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은 거의 없는 상황임. 또한 일감이 정기적으로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서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경험하고 있음. 교육훈련에서도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김강호 외, 2019; 문화체육관광부, 2019; 서울시, 2018; 이승윤 외, 2019).
- 이에 제주지역에서 여성이 많이 일하고 있는 문화, 관광,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보호 및 4차 산업시대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가 매우 필요함. 특히 해당 연구는 프리랜서에 대한 통계적인 규정이 없으며, 프리랜서 현황 및 제주지역에서 온라인 패널 자료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실태조사 실시에 어려움이 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프리랜서 특징, 제도 및 정책, 현황 등 검토 및 분석
-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일과 생활 경험 분석
-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정책 수요 분석
-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 정책 지원방안 제시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프리랜서 개념 및 특징, 애로점 등 검토
 -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프리랜서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검토
 - '지역별 고용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및 제주도 프리랜서 현황 추정
- 심층면접조사
 - 대상: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 총 30명
 - 방법: 심층면접 (1회당 1시간씩 총 30회 실시)
 - 내용: 첫 일자리 및 프리랜서 진입 계기, 교육·훈련 경험, 업무내용 및 일하는 방식 (근로시간, 근무환경, 일감 수주 방식, 계약 여부, 급여 외의 지원 여부), 경제적인 상황 및 일의 안정성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사회보장 정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의 긍정적인 점 및 애로점, 앞으로의 계획, 정책 수요 등
-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대상: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 관련 전문가 총 12명
 - 방법: 초점집단면접 (1회당 2시간씩 총 3회 실시)
 - 내용: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의 현황 및 필요한 정책 지원방안

○ 전문가 자문회의

- 대상: 노동 분야 전문가 4명
- 방법: 회의 (1회당 2시간씩 총 2회 실시)
- 내용: 연구방향, 연구방법, 심층면접 질문 내용, 정책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제2장 프리랜서의 이해와 현황

1. 프리랜서의 개념

-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freelancer) 개념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도 프리랜서의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황준욱 외(2009)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법률적 용어로 프리랜서는 ‘독립근로자’ (independent workers) 및 ‘계약근로자’ (contract workers), ‘자유근로자’, ‘비종속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함
- 이러한 가운데 국어사전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이라고 정의되고 있음. 또한 최윤선 외(2011)에서는 프리랜서를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개인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돈을 벌어 생활하는 직업” 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음.
- 본 연구에서는 프리랜서를 “한 고용주와 종속적인 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노동 활동을 하는 자” 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함.

2. 프리랜서의 특징

- 프리랜서의 특징으로는 고용주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한다는 부분이 큼. 프리랜서는 작업의 세부내용이나 작업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향이 큼. 또한 작업시간이나 작업공간도 스스로 선택하여 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한 고용주와

중속적인 계약을 맺지 않고, 다수의 고용주를 상대로 계약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용주와의 계약기간이나 노동을 제공하는 기간이 장기적이지 않고 다소 단기적인 경향도 나타남. 이와 더불어 공식적인 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계약 등과 같이 불투명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임(김강호 외, 2019; 서울시, 2018; 이승렬 외, 2013; 이승윤 외, 2019).

- 이외에도 프리랜서들의 특징으로 부대비용을 대다수의 프리랜서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교통비, 장비 비용, 프로그램 구입비 등과 같은 부대비용은 고용주가 대부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고용주는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남. 그리고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를 명목으로는 4대 보험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일감을 프리랜서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일감의 불안정성이 크게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소득도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큰 특징으로 보여짐(김강호 외, 2019; 서울시, 2018; 이승렬 외, 2013; 이승윤 외, 2019; 최윤선 외, 2011).

3. 전국 및 제주지역 프리랜서 관련 법령 및 정책

□ 전국 및 제주지역 프리랜서 지원 조례

-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현재까지는 없음. 다만 전국에서 프리랜서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2018년 10월에 프리랜서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 지원 조례들은 총 14개가 제정되어 있음(2021. 5. 7. 기준).
- 전국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해당 조례의 목적은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보호 및 지원 등을 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음.
 - 모든 해당 조례들에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모든 해당 조례들에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실태파악 포함)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몇몇 조례들에서는 프리랜서를 다양하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광주광역시 조례에서는 청년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법률·세무·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충청남도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센터(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 해당 조례에는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에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보호 및 지원 대책,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 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지사는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 외에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타 시도 프리랜서 지원 종합계획 수립 계획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해당 결과에 근거하여 프리랜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임 .
- 경기도는 '경기도형 프리랜서 플랫폼' 구축(안)을 제시하였음. 즉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하여 일감정보 제공,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불공정 상담 등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훈련 기회 제공, 회원관리, 경력관리, 컨설팅 제공 등을 제공할 계획 안을 제시한 것임.²⁾

□ 프리랜서의 사회보장제도와 출산급여 지원

- 프리랜서는 근로자와는 달리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 원칙적으로는 되고 있지 않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하여 가입은 가능하나 근로자처럼 사업주가 일부 사회보

2) 경기도 보도자료, “'전국 최초'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전체 40.6%는 연소득 2천만원 미만, 87.4%는 부당행위 경험”, 2021. 3. 11. 일자.

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보험료의 부담이 더 높음.

- 또한 프리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아예 가입 자체가 되지 않음. 다만 1인 자영업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예술인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음.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 2019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을 통하여 지금까지 출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용보험 적용 제외 프리랜서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일정 요건을 갖춘 프리랜서가 지급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임.

4. 전국 및 제주지역 프리랜서의 규모

□ 프리랜서 규모 추정 방법

- 본 연구에서는 프리랜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의 전문성에 기반’ 하고 있는 경우로 보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전국 및 제주지역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종사상지위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이면서 동시에 직업 분류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인 경우만을 추출하여 프리랜서로 추정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해서 추정된 프리랜서 수는 협의의 개념에 의하여 추출된 부분이 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외의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프리랜서 수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됨.
- 사용한 2차 데이터는 「지역별 고용조사(2020년 하반기 A형)」이며, 이를 사용한 이유는 자세한 직업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음.

□ 프리랜서 규모 추정 결과

- 전국 시도별 프리랜서 수를 추정해본 결과, 우리나라 전국에서 프리랜서는 총 550,065명으로 전국 취업자 수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음.
- 경기도의 프리랜서 수는 170,310명으로 전국 대비 30.96%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음. 서울특별시는 프리랜서 수가 139,610명으로 전국 대비 25.38%를 차지하여 두 번째

로 높았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에 프리랜서 수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임.

- 가장 프리랜서 수가 낮은 사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프리랜서 수가 3,723명이었으며, 두 번째로 프리랜서 수가 낮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프리랜서 수가 6,917명이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프리랜서의 수는 전체 취업자 수에서 1.8% 정도를 차지하였음. 이처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프리랜서 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낮은 것은 인구 수가 낮은 사도에 해당되기 때문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 전국 프리랜서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263,027명으로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287,038명으로 52.2%를 차지하였음. 즉 남성 프리랜서가 여성 프리랜서보다 4.4%p 더 높았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프리랜서가 3,941명으로 57.0%를 차지했으며, 남성은 2,976명으로 43.0%를 차지했음. 즉 여성 프리랜서가 남성 프리랜서에 비하여 14.0%p 더 높았음.

제3장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심층면 접조사 결과

1.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과 정책 수요

가. 프리랜서의 진입 계기 및 교육·훈련 경험

- 문화 분야 참여자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하였으며, 지금 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과 첫 일자리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많았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산업 구조적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프리랜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다양하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자 회사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이동한 경우도 있었음.
- 많은 참여자들이 문화 분야 프리랜서로 시작하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음. 일러스트 대안학교를 다녔거나 실용음악과 학사를 취득하기도 하였음.

나. 업무 내용 및 일하는 방식

- 문화 분야 참여자들의 직업은 매우 다양했음. 즉 디자이너, 사진사, 영상 작업가, 일러스트레이션, 문화기획자, 예술인 중에는 연극인, 플루티스트, 국악인, 싱어송라이터가 있었음. 다양한 직업만큼이나 업무내용도 다양하였음.
-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 대부분이 근로시간은 대중이 없다고 하였음. 즉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유연해서 일정하지 않다는 것임. 예술인의 경우에는 저녁에 모여 4~6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의 근로시간은 며칠부터 몇 개월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음. 다만 근로시간이 프로젝트나 건당으로 정해진다는 유사점이 있었음.
- 근무환경은 집이거나 카페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일부 참여자는 근무환경이 사무실이나 작업실이 아닌 집이나 카페이다보니 열악하고 불안정하다고 하였음. 예술인 참여자의 경우에는 팀 연습을 위한 연습실과 공연장 등이 주요한 근무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습실은 구하기 어렵거나 열악한 경우가 많았으며, 공연장은 대체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었음.
- 재해의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예술 공연이나 문화 행사 등을 하는 경우 공연을 위하여 무대를 설치할 때나 설치 이후 무대가 무너지거나 조명기가 떨어질 수 있는 경우, 야외무대의 경우 바람이 많이 불어 안전하지 못하다는 등 위험을 인식하고 있어서 재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였음. 또한 내외부적으로 폭언 및 괴롭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 1인 프리랜서라 갑질을 당할 때가 있었음.
- 모든 문화 분야 참여자들은 단체행동 경험이 없었음.
-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의 경우에는 일감 수주 방법이 주로 지인(전에 일했던 업체 등) 또는 인터넷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극이나 음악을 하는 예술인들은 자체 공연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때때로 공연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였음.
- 문화 분야 참여자들은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일부 참여자들 중에는 부당계약체결이라든지 계약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된 경험을 한 경우가 있었음.
- 모든 문화 분야 참여자들은 급여가 프로젝트당 또는 건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문화 분야 참여자들이 급여에 경력이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 또한 문화 분야 참여자들 대부분이 급여 외에 받고 있는 지원들이 없다고 하였음. 즉 복리후생이나 장비 지원 등은 따로 제공되고 있지 않았음.

다. 소득 및 일의 안정성 정도

- 많은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은 일감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소득도 계속 불규칙하게 발생하여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음. 소득이 발생하는 달도 있지만 소득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달도 있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참여자들 중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하는 어려움과 수고에 비하여 보상은 적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었음.
- 모든 예술인 참여자들은 예술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 레슨, 방과후강사, 예술강사, 다양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음. 예술인의 경우 예술 작업만을 하면서 필요한 경제적인 소득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었음.
-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은 코로나19로 급격한 일감 감소에 따라 불안정성이 심화되었음. 공연이나 행사 등이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되면서 공연을 직접 하는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행사에 따른 디자인이나 영상, 문화기획 등을 담당하는 참여자들도 일감이 급격하게 감소했음. 또한 예술인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없던 수입이 더 없어져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음. 대부분의 예술인 참여자들은 수입이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였음.

라. 프리랜서로 일하면서의 긍정적인 점과 애로점

-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조율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좋으며,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중인 참여자들 중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녀 돌보는 것에 만족해하였음.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자아실현 성취가 되어서 좋아했으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다양한 작업이나 업무를 할 수 있어서 만족해하는 경우가 있었음.

- 반면에 불규칙한 시간 사용의 어려움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음. 또한 프리랜서는 주로 하는 문화 작업 외에도 일감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객과의 미팅, 잡다한 행정 등을 모두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예술인들은 연습 장소 부족이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음.

마. 지원받고자 하는 정책 욕구

- 문화 분야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특히 고용보험의 수혜라든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과 같은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지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하였음.
-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장비 공유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문화 분야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 지원을 원했음. 또한 프리랜서를 지원해 주거나 프리랜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등 프리랜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표준계약서 등 마련 및 공유를 희망하였음. 예술인들은 공연 기회 확대 및 경제적 지원을 원하였음.
-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하여 문화 분야에서 전문화된 교육을 원했으며, 저작권, 세무회계, 행정 등 다양한 일반적인 업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였음.

2.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과 정책 수요

가. 프리랜서의 진입 계기 및 교육·훈련 경험

-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첫 일자리는 여행사 및 호텔 등 관광업계인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프리랜서 가이드 일과 매우 관련성이 높았음. 여행사 소속 가이드로 일했으나 적은 소득으로 인하여 프리랜서로 이동한 경우가 많았음. 또한 다양한 가이드 업무를 하고자 프리랜서로 전향하기도 하였음.
- 참여자들은 가이드가 되기 전에 먼저 가이드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교육원 등을 통해 공부하였음. 또한 국내여행안내사의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일하는 동안 선배가 가이드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실습이나 현장 학습을 받았음. 가이드가 된 이후 협회 및 제주도 등의 지속적인 가이드 지원 교육에 만족해하였음.

나. 업무 내용 및 일하는 방식

- 관광 분야 프리랜서의 주된 업무는 관광객들을 관광 안내하는 것이었음.
- 안내사들의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하루 보통 10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았음. 근로 시간은 반나절부터 하루,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정도로 나타났음. 아주 드물게는 일주일도 있었음.
- 안내사들이 근무하는 근무환경은 주로 버스 또는 자연환경이었음. 근무환경은 자연 속에서의 위험과 버스 안에서의 교통 사고 등 재해의 위험이 매우 높았음. 국내여행안내사들은 과거에 관광객들로부터 폭언 및 괴롭힘(성희롱 등)을 많이 당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폭언 및 괴롭힘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였음.
- 관광통역안내사 중에는 일정 급여 선을 지키고 이들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협회를 통하여 단체행동을 한 경험이 있었음.
- 참여자들은 대부분 여행사 또는 지인을 통하여 일감을 수주하고 있었음.
- 가이드들은 여행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다만 관공서 등과 거래를 할 때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일부 참여자 중에는 안내료가 지연되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음.
- 모든 참여자들은 급여 지급 방식이 건당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음. 투어 한 건당 급여가 매번 지급되는 것임. 또한 급여에 경력이 산정되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 급여 외 장비라든지 복리후생 등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다. 소득 및 일의 안정성 정도

- 국내여행안내사는 1일 안내료가 최저시급조차 되지 않기에 매우 불만족해하였음. 반면에 관광통역안내사는 1일 안내료에 만족해하는 편이었음. 다만 참여자 모두 시간외근무가 너무 깊어도 추가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졌음.
-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은 극명한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구분으로 인하여 불안정함을 경험하고 있었음. 관광 트렌드 변화 등을 이유로 현재는 1년 중 약 6개월 정

도가 비성수기가 되었음.

- 코로나19 이후로는 가이드로의 수입이 거의 제로였음. 이로 인하여 많은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즉 보험료 및 저금은 해약하고, 대출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었음. 또한 가이드업계를 떠나 이직하는 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음.

라. 프리랜서로 일하면서의 긍정적인 점과 애로점

- 관광 분야 프리랜서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한 여행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 안내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음. 또한 다양한 국적 또는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했음. 참여자들 중에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일정 계획이 가능하여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프리랜서 가이드 일을 하면서 가사 또는 돌봄을 병행하는 것이 수월했다고 하였음.
- 반면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의 애로점으로는 한 여행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일감을 찾을 필요가 없을텐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가이드 일감을 항상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컸음. 또한 반년 가까운 비수기 때는 일감이 전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음. 참여자들은 일을 하지 않는 실직 상태나 은퇴 이후에도 소득 보장 제도는 전혀 없으며, 산재의 위험이 크지만 보험 가입조차 안돼서 안전 보장도 안되고 있었음. 그리고 프리랜서라 자유롭게 일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사돌봄에 수월한 경험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긴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가사돌봄이 어려웠다는 참여자들도 있었음.

마. 지원받고자 하는 정책 욕구

- 참여자들 중에는 코로나19로 관광 분야 가이드들에게 일감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해내거나 기간제 근로와 같은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가이드가 운전하면서 소그룹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는 렌터카 등을 이용한 드라이

빙 가이드를 허가해 주길 원하는 경우가 있었음.

- 많은 참여자들은 산재보험의 가입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였음.
- 가이드를 하고자 하는 젊은 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여행업의 긴 미래를 보고 안내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프리랜서 가이드들이 코로나19로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받았던 협회 또는 도 지원 교육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되길 바라고 있었음.

3.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과 정책 수요

가. 프리랜서의 진입 계기 및 교육·훈련 경험

-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서비스, 폭력예방교육, 웃음치료, 진로교육 등 관련 분야 강사로 일하려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방과후강사는 모두가 프리랜서라 구조적으로 프리랜서로 유입되게 되었음.
- 일부 참여자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 가능한 일자리로서 프리랜서 강사를 선택하게 되었음. 또한 지인을 통한 소개를 통하여 교육 프리랜서로 진입한 경우도 있었음.
- 참여자들 중에는 교육 프리랜서 강사 진입 이전에 관련 강의를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경험이 있었음. 또한 스스로 사설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공부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 강사로 진입한 경우도 있었음. 교육 프리랜서 강사들은 더 많은 일감을 획득하거나 프리랜서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해서 프리랜서 강사가 된 이후에도 필요한 교육을 직접 찾아서 지속적으로 수강하고 있었음.

나. 업무 내용 및 일하는 방식

- 교육 분야 참여자들의 주된 업무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강의 시간이 당일 1~2시간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았음. 한편 방과후강사는 하루에 1~6교시를 맡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루에 2시간이나 4시간을 맡는 경우도 있었음. 방과후강사는 보통 근무기간이 1년 정도로 나타났음.
- 근무환경은 대기실이 없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의 준비할 공간이 마땅히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음. 또한 일을 하면서 강의 수강자들의 불만이라든지 불편사항, 비하 발언 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감수해야 하는 등 심한 감정노동을 하고 있었음.
- 방과후강사를 제외한 프리랜서 강사 참여자들은 노동조합이나 협회를 통한 단체행동을 한 경험이 없었으며, 시도한 경우도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방과후강사 중에는 제주지역 방과후강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방과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
- 방과후강사를 제외한 프리랜서 강사들은 인맥이라고 불리는 강사들끼리의 비공식적 교류를 통해 일감을 서로 소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방과후강사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도 교육청 사이트를 통해서 강사 채용 정보를 확인하여 일감을 구하고 있었음.
- 방과후강사를 제외한 프리랜서 강사들은 당일 1~2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강의료지급확인서 정도만 작성하고, 계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방과후강사는 학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서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고 있었음. 일부 참여자들은 강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지급 지연을 경험한 적이 있었음.
- 방과후강사를 제외한 프리랜서 강사들의 급여 지급방식은 모두 건당으로 이루어졌음. 반면에 방과후강사는 1년 계약을 통해 월급 형식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음. 또한 참여자들은 급여는 경력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역울해 하였음.
- 급여 외 복리후생 지원이 거의 없었음. 식사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전무했으며,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많지 않았음.

다. 소득 및 일의 안정성 정도

- 많은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현재 강의료가 낮아서 소득에 불만족하였음. 1~2시간 정도의 강의를 진행하더라도 준비 시간은 최소 5시간에서 며칠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노동에 대한 댓가는 강의료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프리랜서 강사들은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강의 일감으로 인하여 수입도 불규칙적이라 고용불안과 경제적인 불안정을 느끼고 있었음. 즉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강의 요청이 있을 때 시간 당 강의료를 받는 형태로 수입을 얻고 있으며, 방과후강사는 학기 혹은 전년도에 강사신청을 하여 강사를 채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음.
- 거의 모든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한 일감 감소를 경험하였음. 특히 작년 상반기에 강의가 전면 취소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 분야의 경우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고,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필수 산업이 아니다 보니 코로나19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산업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일감 감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음. 적금을 깨거나 은행 대출이 어려워 보험약관대출 또는 집 담보 대출을 받은 참여자도 있었음.

라. 프리랜서로 일하면서의 긍정적인 점과 애로점

- 교육 분야 프리랜서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큰 장점으로 꼽았음. 그리고 하루 최소 2~4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전일제 근무가 아니어서 그 외의 남는 시간을 아이 돌봄과 집안일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았음. 참여자들은 프리랜서를 하기 전에 경력단절 또는 실직을 경험한 경우가 다수였는데 이후 프리랜서 강사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이 증대되고 자존감이 회복된 경우가 많았음.
- 반면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의 애로점으로는 당일 강사로 일하다보니 소득 증명이 어려워 은행 대출 받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음.

마. 지원받고자 하는 정책 욕구

- 강의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준비 시간, 경력, 교통비 등이 반영된 강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지역 내 프리랜서 강사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리랜서 플랫폼이 운영되기를 희망하였음. 특히 제주도에서는 교육 분야 프리랜서 강사들이 구인을 하는 통합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여러 기관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찾아서 일감을 구하고 있었음.
-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프리랜서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고 함께 네트워킹할 수 있거나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음. 이러한 욕구는 관련 협회가 따로 없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경력을 지속해서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프리랜서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력 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교육 프리랜서 강사로서 강의를 위한 장소나 장비 대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모든 방과후강사들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해마다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방과후강사들은 근무 계약기간이 연장되길 희망하고 있었음.

4.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

- 여성 프리랜서들은 경력단절을 예방하거나 딛고 일과 육아가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프리랜서를 선택하거나 시간 사용이 자유롭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그리고 프리랜서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되었음. 이러한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여성들이 프리랜서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의 일하는 방식과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근무환경도 사무실이나 작업실이 주어진 경우가 많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음. 또한 문화 분야에서는 공연 기획이나 예술 활동을 하는 이들은 행사나 공연을 진행하는데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으며, 관광 분야는 버스나 자연환경이 주된 근무환경이라 재해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이들이 재해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었지만 산재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문제시 되었음. 해당 프리랜서는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역량 강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크게 나타났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음. 또한 복리후생이나 공간 및 장비 지원 등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불공정거래나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사업주로부터 갑질을 당하거나 관광객들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성 프리랜서를 보호해 주는 기관은 없었음. 이처럼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 공간 및 장비 지원, 불공정거래 등 노동상담,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과 이들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들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일하는 것에 비하여 급여기준이 낮게 책정된 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예술인들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예술활동을 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관광 분야는 2~3일, 교육 분야는 1~2시간이 근무기간인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한 개의 일감의 지속 기간이 매우 짧아 일감을 매번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문화, 관광, 교육 분야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19로부터 큰 타격을 입었음.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하여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들이 일감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등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적정한 소득 기준을 위한 정책적 개입도 필요할 것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프리랜서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나 각 분야마다 행사, 관광, 강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보다는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임.

제4장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 관련 전문가 초 점집단면접조사 결과

1.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상황 및 정책 지원방안

- 코로나19 이후 문화 분야 상황은 공연 및 축제 등이 기획되었어도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일감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음.
-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 노동시장 특성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생계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급증하였으나 신청 등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활동 증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났음. 또한 예술인 중에는 여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여성 관리직 비율은 매우 낮았음.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문화예술 산업이 공공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주도는 극장 수가 적어서 상설 공연이 불가능한 예술 환경을 가지고 있었음.
- 문화 분야에서의 정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예술인 등록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원 요건 및 입증 방식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육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문화 분야에서 기획서 작성 등 행정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행정 관련 교육이 필요함. 예술인 지원 사업이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창작자와 기획자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예술인복지센터 운영 및 공간 지원이 요구됨. 이 외에도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문화예술 분야에 맞는 표준사례비 기준 마련, 예술 관련 조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2.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상황 및 정책 지원방안

- 관광 분야의 상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부터 관광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가이드들의 시장은 하향하고 있었음. 코로나19 이후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국내외 단체 및 패키지 여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일감이 전무하였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관광 프리랜서 가이드들의 이직이 급증하였음.

-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 노동시장 특성은 가이드 하는 2박 3일 일정 동안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음. 또한 국내여행안내사의 경우에는 쇼핑이나 관광 옵션 수수료로 수입을 가져가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수입이 불안정하고 부당하게 나타났음.
- 관광 분야에서의 정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수익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단기적 생계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무엇보다 생계비 지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는 관광 분야 가이드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버텨내서 이후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이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공공 일자리를 일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이와 더불어 당장 생계가 어렵고 이직을 알아보는 가이드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 분야와 연계된 여성 일자리 연계 및 이직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관광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 렌트카를 활용한 소그룹 인원을 상대로 운전을 해주면서 가이드를 해주는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3.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상황 및 정책 지원방안

- 교육 분야의 상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분야 프리랜서 시장이 침체되었으며, 강의 방식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강의 방식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음.
-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 노동시장 특성은 강의의 내용이나 강사의 수준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강의 수강료는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었음. 방과후강사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용불안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나 육아나 자기개발 등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일가정 양립에는 수월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 분야에서의 정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강의를 전면 취소하기 보다는 진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도나 공공기관에서는 지역 내 강사를 우선 활용해주고, 이와 관련된 캠페인이나 권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하였음. 코로나19로 강의 방식의 변화와 강사들 간의 경쟁 심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발굴 등이 중요해져서 프리랜서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였음. 이 외에도 프리랜서 강사를 위한 협회 및 지원기관이 필요하며, 교육 분야 프리랜서에게 제주도형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음.

4.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

- 문화 분야에서는 예술인 대상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 지원 요건 및 입증 방식 완화가 필요함. 또한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은 홀로 일하기 때문에 기획, 행정, 회계 등을 전담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 행정 관련 교육 지원이나 창작자와 기획자 등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또한 문화 분야에서 성차별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에 성인지적 교육 및 문화 확산과 같은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임.
- 관광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가이드 산업이 하향하고 있는 추세여서 개인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춘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 도입 및 가이드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국내여행안내사의 경우에는 수익 구조가 불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시간외근무까지 고려된 적정 금액의 일비로 급여가 제공되도록 지원이 필요함.
- 교육 분야에서는 강의 방식이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프리랜서 강사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방식 및 교육 콘텐츠 발굴 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할 것임. 또한 강의 수강료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아 강의 수강료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임. 방과후강사의 경우에는 1년 보다 더 긴 기간의 고용 계약이 이루어져 고용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전문가들은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이 코로나19 이후 공연 및 축제, 단체 및 패키지 관광, 강의 등의 취소연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음.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유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요구됨.

제5장 종합적 논의 및 정책 제언

○ 앞선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제시된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은 23개로 구체적인 정책 제언들은 아래 <표 5-1>과 같음.

<표 5-1> 제주지역 여성 프리랜서의 정책 지원방안

구분	정책 과제	추진주체	추진기간		
			단기	지속	
공통 지원방안	1.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공			
		• 제주형 프리랜서 노동자 상해보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2.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계획 수립	• 프리랜서 실태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프리랜서 지원 종합계획 수립			
	3. 프리랜서 지원 플랫폼 구축	• 프리랜서 대상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프리랜서 대상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4. 교육·훈련 지원	•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세무회계행정 등 교육 지원				
5. 코로나19 대응 경제적 지원	• 코로나19 대응 프리랜서 경제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6. 프리랜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	• 프리랜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적 교육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분야별 지원방안	7. 문화 분야 프리랜서 지원방안	• 공간 및 장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문화 분야 표준사례비 기준 등 마련 및 공유			
		•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예술 행사 참여 기회 보장			
8. 관광 분야 프리랜서 지원방안	• 가이드의 디지털 및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가이드 대상 맞춤형 취창업 지원				
	•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 도입 검토				
	• 가이드의 양성 지원				
	• 코로나19 시대, 관광 관련 공공 일자리 마련 및 제공				
9. 교육 분야 프리랜서 지원방안	• 경력 등이 반영된 강의로 상향 조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강의 장소 및 장비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의 진행을 위한 지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제2장 프리랜서의 이해와 현황

1. 프리랜서의 개념	11
2. 프리랜서의 특징과 근로자 등과의 차이점	13
3. 전국 및 제주지역 프리랜서 관련 법령 및 정책	18
가. 전국 프리랜서 관련 법령 및 정책	18
나. 제주지역 프리랜서 관련 법령 및 정책	23
4. 전국 및 제주지역 프리랜서의 규모	27
가. 프리랜서 규모 추정 방법	27
나. 프리랜서 규모 추정 결과	28

제3장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37
가. 조사 목적	37
나. 조사 방법 및 자료 수집	37
다. 연구참여자	38
2. 조사 결과	42
가.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과 정책 수요	42
나.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과 정책 수요	81
다.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과 정책 수요	110
3.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	141

**제4장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 관련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45
가. 조사 목적	145
나. 조사 방법 및 자료 수집	145
다. 연구참여자	145
2. 조사 결과	147
가.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 전문가 의견	147
나.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 전문가 의견	151
다.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 전문가 의견	154
3.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	157

제5장 종합적 논의 및 정책 제언

1. 종합적 논의	161
2. 정책 제언	163
가. 공통 지원방안	164
나. 분야별 지원방안	173

참고문헌	179
-------------------	------------

표 목 차

<표 2-1>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비교	15
<표 2-2> 한국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 특징 및 차이점	17
<표 2-3> 전국 프리랜서 지원 조례	19
<표 2-4> 전국 프리랜서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20
<표 2-5> 2021년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 안내	26
<표 2-6> 전국 시·도별 성별 프리랜서 수	28
<표 2-7>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연령 및 성별 프리랜서 수	31
<표 2-8>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산업 및 성별 프리랜서 수	33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분야 연령 및 성별 프리랜서 수	34
<표 3-1> 심층면접조사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40
<표 4-1>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 관련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	146
<표 5-1> 제주지역 여성 프리랜서의 정책 지원방안	163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7
<그림 2-1> 전국 시·도별 프리랜서 현황	29
<그림 2-2> 전국 시·도별 취업자 수 대비 프리랜서 비율	30
<그림 5-1> 제주지역 프리랜서 지원 플랫폼(안)	170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시대 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사업체 공간 중심의 일자리에서 자유계약 형태의 프리랜서 직업 확산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프리랜서는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프리랜서의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근로자로 이분화되어 있는 노동 편제 속에서 노동 보호에 취약한 상황이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인프라 및 정책 지원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 지원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는 프리랜서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프리랜서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음. 프리랜서를 관리직과 전문직으로만 한정하지 않은 광의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그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김강호 외(2019)에 의하면 프리랜서를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와 전문가의 규모를 분석하여 추정한 결과 프리랜서가 약 10% 정도로 나타났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프리랜서가 약 15%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김강호 외, 2019).
 - 또한 이승렬 외(2013)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2012년 8월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프리랜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는 광의의 범주로 간주하여 추정한 결과 프리랜서는 4,810천명으로 취업자 수의 19.3%에 해당되었음. 반면 프리랜서를 협의의 범주로 관리직과 전문직만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때는 656천명으로 취업자 수의 2.6%로 나타났음(이승렬 외, 2013).
 - 이 외에도 황준욱 외(2009) 연구에서는 제10차 노동패널조사 고용형태 부가조사에서 스스로를 프리랜서로 인식한 자를 프리랜서로 보았는데 전체 취업자 중에서 2.6%를 차지하고 있었음.
- 서울특별시에서 2018년에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의하면 프리랜서 중 여성이 68.0%를 차지하고 있었음(서울시, 2018). 또한 최윤선 외(2011)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통하여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여성이 46.0%로 나타

나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이 41.6%인 것보다 4.4%p 더 높았음. 즉 프리랜서에서 여성의 비중이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기존 노동시장에서도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 여성 프리랜서는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더불어 프리랜서라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위에 따른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여성 프리랜서에 대하여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 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여성이 일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분야였음(신승배·이해음, 2019). 또한 문화체육관광부(2019)에 의하면 전업 예술인 중에서 프리랜서 비율은 76.0%인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프리랜서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서울시(2018)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산업이었음. 제주지역의 ‘코로나 특고·프리랜서 지원 사업’의 데이터를 보면 문화, 관광, 교육 분야에 프리랜서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여성 프리랜서가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강사, 안내사, 학교방과후강사, 해설사가 프리랜서 대상 1차 특별지원사업의 약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¹⁾ 따라서 제주지역의 문화, 관광, 교육 분야의 여성 프리랜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러한 현황 속에서 프리랜서의 노동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프리랜서들은 법적으로 자영업자도 근로자로도 포섭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즉 4대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났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불공정 거래에 노출된 경험도 높게 나타났음. 또한 표준 단가가 없는 상황에서 프리랜서들의 수입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다수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일감에 대한 보수 단가가 낮아지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은 거의 없는 상황임. 또한 일감이 정기적으로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서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경험하고 있음. 교육훈련에서도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김강호 외, 2019; 문화체육관광부, 2019; 서울

1)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

시, 2018; 이승윤 외, 2019). 이처럼 프리랜서의 노동실태가 매우 열악한 편이라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방안과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여 지원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프리랜서 전체에 대하여 아우르는 제도나 정책 마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다만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 몇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8년을 시작으로 최근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었음. 또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해당 조례에 기반하여 프리랜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또는 준비 중에 있음.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021년 4월에 프리랜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 해당 조례의 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정책 마련 및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임.
- 이에 제주지역에서 여성이 많이 일하고 있는 문화, 관광,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보호 및 4차 산업시대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가 매우 필요함. 현재는 제주지역의 프리랜서 연구나 문화, 관광, 교육 분야를 초점으로 한 프리랜서 연구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 더욱 해당 연구가 필요함. 특히 해당 연구는 프리랜서에 대한 통계적인 규정이 없으며, 프리랜서 현황 및 제주지역에서 온라인 패널 자료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실태조사 실시에 어려움이 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1) 프리랜서 특징, 제도 및 정책, 현황 등 검토 및 분석

- 프리랜서 관련 개념, 특징, 애로점 등 검토
-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프리랜서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검토
- 2차 데이터를 통한 프리랜서 현황 추정

2)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일과 생활 경험 분석

-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진입 계기, 일의 방식, 일과 생활에서의 긍정적인 점 및 애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여성 프리랜서들의 현 상황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3)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정책 수요 분석

-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통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 지원방안을 밝혀내고자 함.

4)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 정책 지원방안 제시

- 제주지역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
- 제주지역 여성 프리랜서의 활동 대응기반 구축 방안 제시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프리랜서 개념 및 특징, 애로점 등 검토
-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프리랜서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검토
- ‘지역별 고용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및 제주도 프리랜서 현황 추정

2) 심층면접조사

- 대상: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 총 30명
- 방법: 심층면접 (1회당 1시간씩 총 30회 실시)
- 내용: 첫 일자리 및 프리랜서 진입 계기, 교육훈련 경험, 업무내용 및 일하는 방식 (근로시간, 근무환경, 일감 수주 방식, 계약 여부, 급여 외의 지원 여부), 경제적인 상황 및 일의 안정성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사회보장 정도, 프리랜서로 일

하면서의 긍정적인 점 및 애로점, 앞으로의 계획, 정책 수요 등

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대상: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 관련 전문가 총 12명
- 방법: 초점집단면접 (1회당 2시간씩 총 3회 실시)
- 내용: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의 현황 및 필요한 정책 지원방안

4) 전문가 자문회의

- 대상: 노동 분야 전문가 4명
- 방법: 회의 (1회당 2시간씩 총 2회 실시)
- 내용: 연구방향, 연구방법, 심층면접 질문 내용, 정책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 이상의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 수행 절차는 다음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선행연구 검토 · 관련 현황 및 정책 검토
3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회)
4단계	조사 실시	⇨	·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 대상 심층면접조사 실시 (30명) ·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 관련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 (FGI) 실시 (12명)
5단계	조사 결과 분석	⇨	· 결과 분석 및 집필
6단계	정책 제언	⇨	· 정책 제언

프리랜서의 이해와 현황

1. 프리랜서의 개념
2. 프리랜서의 특징과 근로자 등과의 차이점
3. 전국 및 제주지역 프리랜서 관련 법령 및 정책
4. 전국 및 제주지역 프리랜서의 현황

1. 프리랜서의 개념

-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freelancer) 개념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도 프리랜서의 정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황준욱 외(2009)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법률적 용어로 프리랜서는 ‘독립근로자’(independent workers) 및 ‘계약근로자’(contract workers), ‘자유근로자’, ‘비종속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함
- 이러한 가운데 국어사전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리브레 위키 사전에 의하면 프리랜서는 “특정 단체기업의 소속없이 자신의 순수 기술 하나로 일을 하는 개인 사업자” 라고 보고 있음. 즉 프리랜서를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와 별개로 보고 있으며, 일정 소속이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음.
- 최윤선 외(2011)에서는 프리랜서를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개인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돈을 벌어 생활하는 직업” 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음. 또한 프리랜서를 비임금 근로자들 중에서 “어느 정도 전문화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사업주의 사업장에 전속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 로 보는 연구도 있었음(김강호 외, 2019).
- 국내에서는 최근 프리랜서 지원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는데 일부 조례에서는 프리랜서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음(경기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또한 프리랜서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조례도 있음(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조례에서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및 경기도 연천군 조례에서는 프리랜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프리랜서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국에서는 연방법률에서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프리랜서로 통칭하고 있음.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취업자가 작업의 세부 내용을 통제’하는지, ‘취업자가 고용주의 사업과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지, ‘작업이 감독 없이 수행’되는지 등을 살펴보아 이러한 특징을 지녔으면 독립계약자로 판단하였음(이승렬 외, 2013).
 - 영국에서는 프리랜서를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계약을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용자도 사용자도 아닌 자영업자로 숙련된 전문직으로 정의하였음(Kitching and Smallbone, 2008: 이승렬 외, 2013 재인용).
 - 독일에서는 프리랜서를 협의로는 IT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자들을 가리키며, 광의로는 이보다 넓은 의미로써 자유직종을 말함. 이들을 독일에서는 ‘자유직업인’이라고 부름. 독일의 파트너십법에 따르면 자유직업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직업적 특성 또는 창조적 재능을 기반으로 하며, 위탁자와 공익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이고 책임감 있는 독립 콘텐츠를 창출하는 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이승렬 외, 2013).
 - 프랑스에서는 프리랜서를 독립노동자로 설명하고 있음. 프랑스어 위키백과사전에서는 프리랜서를 한 명의 고용주와 장기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자라고 하였음. 특히 예술이나 언론, 작가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라고 하였음(이승렬 외, 2013).
- 다음과 같이 살펴본 프리랜서의 개념을 종합하여 봤을 때 본 연구에서는 프리랜서를 “한 고용주와 종속적인 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노동 활동을 하는 자”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함.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비사업자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1인 사업자 프리랜서까지도 포함하여 프리랜서로 보았음.

2. 프리랜서의 특징과 근로자 등과의 차이점

□ 프리랜서의 특징

- 프리랜서의 특징으로는 고용주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한다는 부분이 큼. 프리랜서는 작업의 세부내용이나 작업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향이 큼. 또한 작업시간이나 작업공간도 스스로 선택하여 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한 고용주와 종속적인 계약을 맺지 않고, 다수의 고용주를 상대로 계약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용주와의 계약기간이나 노동을 제공하는 기간이 장기적이지 않고 다소 단기적인 경향도 나타남. 이와 더불어 공식적인 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계약 등과 같이 불투명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임(김강호 외, 2019; 서울시, 2018; 이승렬 외, 2013; 이승윤 외, 2019).
- 이외에도 프리랜서들의 특징으로 부대비용을 대다수의 프리랜서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교통비, 장비 비용, 프로그램 구입비 등과 같은 부대비용은 고용주가 대부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고용주는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남. 그리고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를 명목으로는 4대 보험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일감을 프리랜서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일감의 불안정성이 크게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소득도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큰 특징으로 보여짐(김강호 외, 2019; 서울시, 2018; 이승렬 외, 2013; 이승윤 외, 2019; 최윤선 외, 2011).

□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비교

- 프리랜서와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는 근로자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봄으로써 프리랜서의 특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

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게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됨”²⁾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러한 판례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판단하고 있어 해당 기준에 해당이 되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나 그렇지 못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

- 위의 판례 기준에 따라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업무내용의 결정 시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나 프리랜서는 본인이 업무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큼.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출퇴근시간이 통제되고 업무장소가 사업장 내로 지정되나 프리랜서는 출퇴근시간이 따로 없으며 업무장소도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함.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적용되나 프리랜서는 적용되지 않음. 업무수행 지휘·감독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는 사용자로 지휘·감독 받으나 프리랜서는 독자적·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은 근로자는 인정되나 프리랜서는 근로제공관계가 일시적이거나 단절적임. 사용자의 전속성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는 전속성이 있으나 프리랜서는 계약상·사실상 전속성이 없어서 타 사업이나 업무가 가능함.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해주는 반면 프리랜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 제3자 업무대행 가능성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불가능하나 프리랜서는 제3자 고용 내지 업무대행이 가능함. 이윤 창출과 손실 등 위험 부담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나 프리랜서는 해당 위험을 부담함. 보수의 성격에

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있어서는 근로자는 노동력 제공 대가 성격을 가지나 프리랜서는 작업량업무량 대가의 성격을 가짐. 기본급고정급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는 있으나 프리랜서는 없음. 세금의 성격이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이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임.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는 가입되나 프리랜서는 일부 가입되지 않음³⁾.

〈표 2-1〉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비교

프리랜서	내용	근로자
업무내용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	업무내용 결정	사용자의 지시로 결정
출퇴근시간 없음 업무장소 본인 선택	시간, 장소의 구속성	출퇴근시간 통제 업무장소 지정
규정 적용되지 않음	취업규칙 등 적용	적용
독자적·자율적 업무수행	업무수행 지휘·감독	사용자로 지휘·감독 받음
임시적/단절	근로제공관계 계속성	계속성 인정됨
계약상·사실상 전속성 없음(타사업·업무 가능)	사용자 전속성	전속성 있음
본인 소유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사용자 제공
제3자 고용 내지 업무대행 가능	제3자 업무대행 가능성	불가능
본인 부담	이윤창출과 손실 등 위험 부담	없음
작업량·업무량 대가	보수의 성격	노동력제공(근로) 대가
없음	기본급·고정급 존재	있음
사업소득세	세금	근로소득세
일부 비가입	사회보험 가입	가입

주: <https://blog.naver.com/axis0508/222257673464> 에서 인용 및 일부 수정.

3) <https://blog.naver.com/axis0508/222257673464> 에서 인용함.

□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교

- 프리랜서와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봄으로써 프리랜서의 특징을 좀 더 이해해 보고자 함.
- 계약형태 및 노동 제공 기간을 살펴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통 단일기업과 계약을 맺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에 영업활동을 함. 또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항 1호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프리랜서는 단일 기업과의 계약보다는 다양한 기업들과 동시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감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임. 이러한 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차이가 있음(이승윤 외, 2019).
- 또한 임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프리랜서는 일감제가 일반적이라서 임금 산정방식도 프로젝트성(건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반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받음. 보수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며, 기본급 위에 영업수당이 더해지는 등 업체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이승윤 외, 2019).
- 업종에 따라서는 프리랜서는 지식서비스업, 출판, 디자인, 광고, 통번역, 사진, 방송, 건축가, IT 등이 주요 업종임(이승윤 외, 2019). 반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에 따라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보고 있으며, 주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2〉 한국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 특징 및 차이점

구분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비사업프리랜서	2) 사업자프리랜서	
주요 특징	고용주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거나 짧은 기간씩 한 조직에 머물러서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이들 중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	고용주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거나 짧은 기간씩 한 조직에 머물러서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이들 중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자 (1인기업으로 칭하기도 함)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사람
임금 산정 방식	일감제(일감 특징에 따라 연봉제, 기간제, 시간제)	일감제(일감완료에 대한 계약제)	영업수당 또는 기본급에 영업수당
일감 수주 방식	공고, 지인소개, 입찰	공고, 지인소개, 입찰	채용공고
고용주와의 관계	일감에 따른 (장단기) 계약관계	일감에 따른 (장단기) 계약관계	기간을 정한 계약관계지만 임금근로 계약은 아님
주요 업종	출판, 광고, 디자인, 통번역, 마케팅, 취재대행, 교정/교열, 편집, 각종강사, 사진, 방송, 리포터나 MC, 방송 구성 작가, 사보나 잡지 집필, 건축가, IT, 컨설턴트 등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수 업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주: 이승윤 외(2019) 인용 및 일부 수정.

3. 전국 및 제주지역 프리랜서 관련 법령 및 정책

가. 전국 프리랜서 관련 법령 및 정책

□ 타 시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현재까지는 없음. 다만 전국에서 프리랜서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2018년 10월에 프리랜서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는 2019년 8월에 뒤이어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 지원 조례들은 총 14개가 제정되어 있음(2021. 5. 7. 기준).
- 프리랜서 지원 조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목적은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보호 및 지원 등을 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음.
 - 도지사, 시장 등의 책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도지사, 시장 등의 책무로는 대체적으로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처하지 않도록 방지 노력을 해야 하고,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조성 등이 있음.
 - 모든 해당 조례들에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으며, 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례들도 있음. 프리랜서 기본계획(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 확보방안' 등이 있음.
 - 또한 모든 해당 조례들에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실태과약 포함)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일부 조례들에서는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제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 시·군 및 시·군 공공기관과 프리랜서가 계약할 시에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민간부문에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있음.
- 몇몇 조례들에서는 프리랜서를 다양하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광주광역시 조례에서는 청년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법률·세무·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또한 연합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들도 있음. 프리랜서 단체가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행사 개최, 관련 정책 연구' 등의 활동을 할 때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음.
 -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충청남도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센터(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서울특별시는 지원센터를 공정거래 지원센터로 명명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센터에서 '법률·세무·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단체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음.

〈표 2-3〉 전국 프리랜서 지원 조례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자
1	경기도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2019. 8. 6
2	경상남도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2.. 4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	2020. 9. 28
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2020. 10. 14
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2020. 7. 15
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2018. 10. 4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2021. 3. 18
8	전라남도	전라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2020. 8. 6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2021. 4. 14
10	충청남도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0. 5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자
11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2020. 12. 31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2020. 6. 11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2020. 9. 17
14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2021. 4. 8

주: 2021. 5. 7. 기준

〈표 2-4〉 전국 프리랜서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조례명	시·도 및 시·군·구장의 책무	종합 계획 수립	실태 조사	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법률 지원	기관 및 단체 지원	지원 사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특별 재정 지원	
광역시·도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0	0	0	0	0	0	0	x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	0	0	x	0	x	x	x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	0	0 (지원 계획)	0	0	x	0	x	x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0	0 (기본 계획)	0	0	x	0	x	x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0	0	0	0	x	0	x	x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0	0 (기본 계획)	0	0 (공정거래 지침 등)	0 (공정거래 지원 센터)	0	0	x	x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0	0	0	0	0	0	x	x	
	전라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0	0 (기본 계획)	0	0 (공정거래 지침 등)	0	0	x	x	x

조례명		시·도 및 시·군·구장의 책무	종합 계획 수립	실태 조사	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법률 지원	기관 및 단체 지원	지원 사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특별 재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0	0	0	0	x	0	0	x	x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0	0	0	x	x	0	0	0 (전담기구 설치 운영)	x
기초 시군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0	0	0	x	x	x	0	x	0 (긴급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0	0 (기본 계획)	0	x	x	x	0	x	0 (특별 재정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0	0 (기본 계획)	0	x	x	x	0	x	0 (특별 재정 지원)
	연천군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0	0	0	x	x	x	x	x	0 (긴급 지원)

주: 2021. 5. 7. 기준

□ 타 시도 프리랜서 지원 종합계획 수립 계획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해당 결과에 근거하여 프리랜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임 .
- 경기도는 ‘경기도형 프리랜서 플랫폼’ 구축(안)을 제시하였음. 즉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하여 일감정보 제공,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불공정 상담 등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훈련 기회 제공, 회원관리, 경력관리, 컨설팅 제공 등을 제공할 계획을 제시한 것임.⁴⁾

4) 경기도 보도자료, “'전국 최초'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전체 40.6%는 연소득 2천만원 미만, 87.4%는 부당행위 경험”, 2021. 3. 11. 일자.

□ 프리랜서의 사회보장제도

-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서 배제되거나 근로자에 비하여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렬 외, 2013; 이승윤 외, 2019; 장지연 외, 2017).
- 즉 프리랜서는 근로자와는 달리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 원칙적으로는 되고 있지 않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하여 가입은 가능하나 근로자처럼 사업주가 일부 사회보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보험료의 부담이 더 높음. 이러한 부담은 프리랜서가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음. 다만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정도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해주고 있음(이승윤 외, 2019).
- 또한 프리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아예 가입 자체가 되지 않음. 다만 1인 자영업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함. 또한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법」 제7조에 따라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됨. 그리고 산재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한 예술인이어야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음.⁵⁾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아예 가입 자체가 되지 않음.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주고 있음.⁶⁾ 또한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음. 방과후강사의 경우에도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social/sub07_1.do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eip/info/infoMain.do?jsessionid=dqt6hnhQmjCTPIYG7zvhlPJlJ5vw20rmbxGml d244zZlXlK3LL2n!-1294166177>

□ 프리랜서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 2019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해당 사업을 통하여 지금까지 출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용보험 적용 제외 프리랜서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프리랜서가 지급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임. 지원자격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프리랜서임.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임.

나. 제주지역 프리랜서 관련 법령 및 정책

□ 제주지역 프리랜서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
- 해당 조례에는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며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보호 및 지원 대책,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 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계약실태 및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외에도 프리랜서의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 및 적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대응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주지역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⁷⁾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제주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문화예술인의 경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이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으로 해당 사업들을 살펴보았음. 해당 재단에서는 크게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일반예술 창작활동 지원, 우수기획 창작활동 지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 공연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작은예술공간 프로그램 지원,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연구 및 조사 지원, 청년예술처음발표 지원, 청년유망예술가 육성 지원, 청년예술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청년문화기획 프로젝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은 “신진예술가의 예술 현장 진입 장벽 해소와 창작활동 기회 확대 및 예술인으로서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함. 지원자격은 예술활동 경력이 10년 이하이고, 공고일 기준 제주 거주 예술가여야 함.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됨.
- 일반예술 창작활동 지원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지원”을 목표로 함. 지원자격은 개인인 경우는 예술활동경력이 10년 이상이며, 제주 거주 예술가여야 하고, 단체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지원 분야에서 3회 이상 실적을 가진 제주 소재 예술단체여야 함. 개인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되고, 단체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됨.
- 우수기획 창작활동 지원은 “우수한 예술기획의 단·다년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창작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적 성취를 위한 기회 부여 및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함. 지원자격은 개인인 경우 해당 분야에서 기획 경력이 있는 제주 거주 예술인이고, 단체는 해당 분야에서 기획 경력이 있는 사업전담 기획자 1인을 포함하고 있는 제주 소재 예술단체여야 함. 지원규모는 분야에 따라 단년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다년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함.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은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공연예술단체의 우수작품 제작발표 촉진을 통해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7)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http://www.jfac.kr/>) 인용

를 목표로 함. 지원자격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에서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3년 이상(2017이전 설립)의 공연경력이 있으며, 제주도에 소재하거나 제주도를 거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공연예술단체여야 함.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을 지원함.

- 공연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은 “공연예술공간 창작발표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함. 단순 연습실이나 대관 전용시설이 아닌 도내 소재 기초 공연예술을 발표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됨.
- 작은예술공간 프로그램 지원은 “예술을 기반으로 도민과의 접점을 확산할 수 있는 공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목표로 함. 지원자격은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1회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실적이 있으면서 예술을 매개로 하여 운영하고 있는 작은예술공간이어야 함. 최대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원함.
-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은 “국내외 예술가의 작업 공간을 제공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주민 연계 퍼블릭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문화예술도민 문화 향유권 신장”을 목표로 함. 지원자격으로는 “기초예술중심으로 운영되는 도내 소재 창작공간, 지역 커뮤니티, 예술가, 기획자 등 다양한 영역과의 교류 및 협업에 의한 창작 활동,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그램, 입주작가 창작활동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함.
-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은 “장애예술인·예술단체 발굴,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창작역량 강화와 장애예술인·예술단체 창작, 발표 활동 활성화 지원을 통한 예술의 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함. 지원자격은 장애인 예술가 및 장애인 예술단체로 단체 대표자가 장애인인 단체이거나 단체 구성원이나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장애인이 30% 이상이 포함된 단체여야 함. 개인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단체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함.
- 문화예술 연구 및 조사 지원은 “제주 예술계의 비평, 담론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한 작품창작, 발표 활동의 장기적 기반 조성 및 제주문화예술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제주문화예술지원 발굴 및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함. 지원자격은 최근 5년 동안에 1회 이상 제주지역 문화예술 연구나 평론 전문 간행물 발간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여야 함.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함.

<표 2-5> 2021년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유형		지원신청분야				지원자격		지원기간	
		문학	시각	공연	다원	개인	단체		
I. 기초예술 창작 활성화	예술창작 활동지원	a. 신진예술인창작활동지원	○	○	○	○	○	-	단년
		b. 일반예술창작활동지원	○	○	○	○	○	○	
		c. 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	○	○	○	○	○	○	단년
		d. 장애예술인창작활동지원	○	○	○	○	○	○	단년
		e. 제주원로예술인지원	○	○	○	○	○	○	
		f.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	○	○	○	○	○	
		g. 예술활동기록지원(신설)	○	○	○	○	○	○	
	예술창작 준비지원	a. 창작활동준비지원(신설)	○	○	○	○	○	○	단년
		b. 창작역량강화지원(신설)	○	○	○	○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	○	-	-	○	
	예술공간 지원	a. 공연예술공간활성화지원	○	○	○	○	○	○	
		b.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	○	○	○	○	○	
		c. 작은예술공간프로그램지원	○	○	○	○	○	○	
청년문화매개특성화 사업		○	○	○	○	○	○	단년	
II. 국제예술 교류 활성화	국제예술교류지원		○	○	○	○	○	○	단년
III. 지역문화 활성화	해녀문화예술지역특성화지원 ※2021년은 지역과의 협력프로젝트로 사업 추진		○	○	○	○	○	○	단년
	생활문화예술동호회지원		○	○	○	○	○	○	단년

주: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인용 (<https://www.jfac.kr:453/contents/index.php?mid=0504>)

4. 전국 및 제주지역 프리랜서의 규모

가. 프리랜서 규모 추정 방법

- 프리랜서의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프리랜서 현황을 추정한 연구들이 있음. 이승렬 외(2013)에서는 프리랜서 통계 추정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모두 합산한 것을 광의의 프리랜서 규모로 추정하였음. 반면에 협의의 프리랜서 규모는 해당 추정 대상자 중에서 관리직 및 전문직만을 고려하여 추정한 것을 의미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프리랜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의 전문성에 기반’ 하고 있는 경우로 보고 있음. 따라서 이승렬 외(2013) 연구에서 사용한 협의의 프리랜서 규모 추정 방법을 사용하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하였음. 또한 사용한 2차 데이터는 「지역별 고용조사(2020년 하반기 A형)」이며, 이를 사용한 이유는 자세한 직업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음.
- 즉 본 연구에서는 전국 및 제주지역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종사상지위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이면서 동시에 직업 분류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인 경우만을 추출하여 프리랜서로 추정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해서 추정된 프리랜서 수는 협의의 개념에 의하여 추출된 부분이 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외의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들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프리랜서 수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프리랜서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추출된 프리랜서 규모에서 성별 및 연령,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았음. 다만 소득에 대해서는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 임금근로자에게만 3개월 평균임금을 물어보고 있어서 프리랜서의 소득을 추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임.

나. 프리랜서 규모 추정 결과

□ 전국 시도별 성별 프리랜서 규모

- 전국 시도별 프리랜서 수를 추정해본 결과, 우리나라 전국에서 프리랜서는 총 550,065명으로 전국 취업자 수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음.
- 경기도의 프리랜서 수는 170,310명으로 전국 대비 30.96%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음. 서울특별시는 프리랜서 수가 139,610명으로 전국 대비 25.38%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았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에 프리랜서 수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임.
- 가장 프리랜서 수가 낮은 시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프리랜서 수가 3,723명이었으며, 두 번째로 프리랜서 수가 낮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프리랜서 수가 6,917명이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프리랜서의 수는 전체 취업자 수에서 1.8% 정도를 차지하였음. 이처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프리랜서 수가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비하여 낮은 것은 인구 수가 낮은 시도에 해당되기 때문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 전국 프리랜서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263,027명으로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287,038명으로 52.2%를 차지하였음. 즉 남성 프리랜서가 여성 프리랜서보다 4.4%p 더 높았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프리랜서가 3,941명으로 57.0%를 차지했으며, 남성은 2,976명으로 43.0%를 차지했음. 즉 여성 프리랜서가 남성 프리랜서에 비하여 14.0%p 더 높았음.

〈표 2-6〉 전국 시도별 성별 프리랜서 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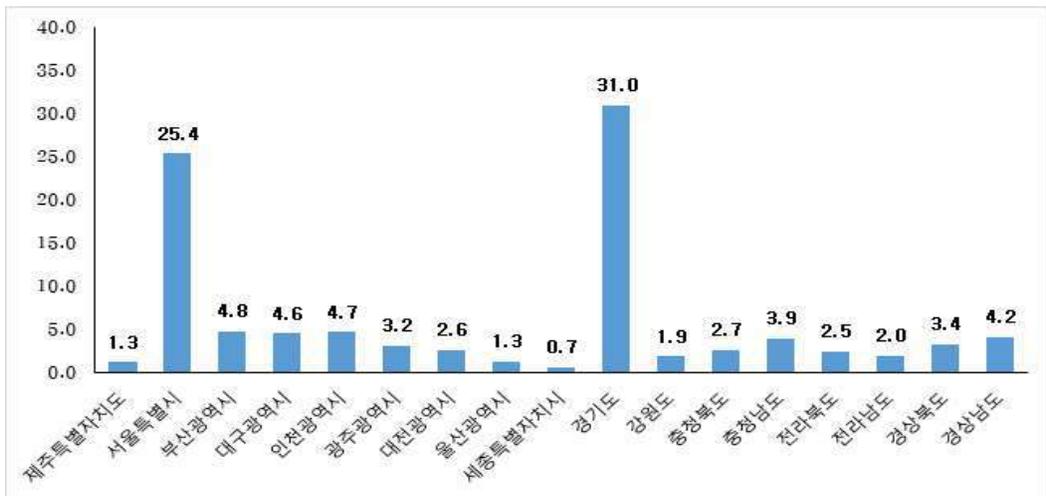
시도	여성	남성	전체
서울특별시	65,730 (47.1)	73,880 (52.9)	139,610 (100.0)
부산광역시	13,479 (50.9)	13,022 (49.1)	26,501 (100.0)
대구광역시	10,958 (43.5)	14,208 (56.5)	25,166 (100.0)
인천광역시	13,362 (51.6)	12,545 (48.4)	25,907 (100.0)
광주광역시	7,278 (41.5)	10,242 (58.5)	17,520 (100.0)

시도	여성	남성	전체
대전광역시	5,697 (39.8)	8,610 (60.2)	14,307 (100.0)
울산광역시	3,478 (48.1)	3,756 (51.9)	7,234 (100.0)
세종특별자치시	2,007 (53.9)	1,716 (46.1)	3,723 (100.0)
경기도	81,490 (47.8)	88,820 (52.2)	170,310 (100.0)
강원도	5,052 (48.0)	5,474 (52.0)	10,526 (100.0)
충청북도	6,474 (43.9)	8,286 (56.1)	14,760 (100.0)
충청남도	11,860 (54.8)	9,768 (45.2)	21,628 (100.0)
전라북도	6,952 (51.2)	6,630 (48.8)	13,582 (100.0)
전라남도	4,989 (45.1)	6,072 (54.9)	11,061 (100.0)
경상북도	8,109 (44.0)	10,323 (56.0)	18,432 (100.0)
경상남도	12,171 (53.2)	10,710 (46.8)	22,881 (100.0)
제주특별자치도	3,941 (57.0)	2,976 (43.0)	6,917 (100.0)
전국	263,027 (47.8)	287,038 (52.2)	550,065 (100.0)

주: 통계청(2020). 지역별 고용조사(2020년 하반기 A형).

<그림 2-1> 전국 시도별 프리랜서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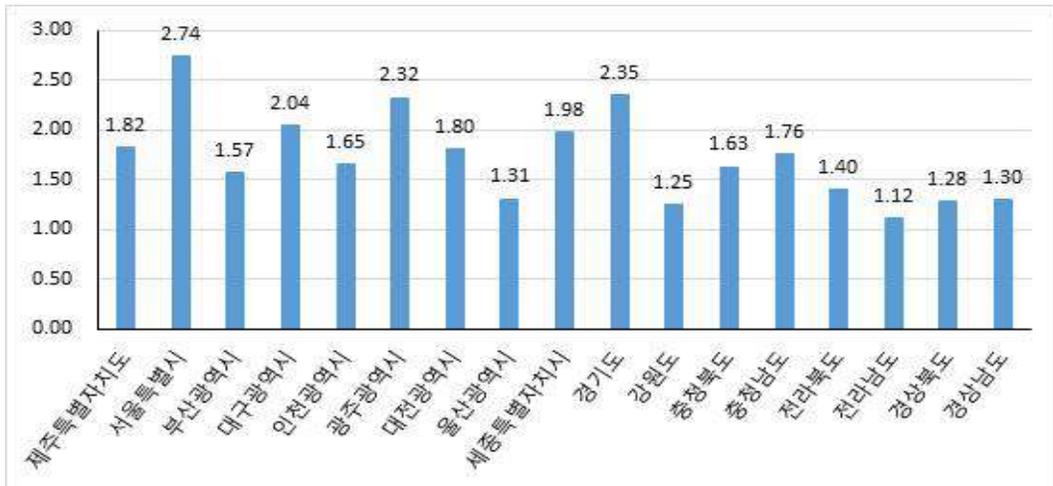


주: 통계청(2020). 지역별 고용조사(2020년 하반기 A형).

○ 반면 전국 시도별 취업자 수 대비 프리랜서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전체적으로는 취업자 수 대비 프리랜서 비율은 1% 이상부터 3% 미만으로 나타났음. 이중 서울특별시가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가 2.3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취업자 수 대비 프리랜서 비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전라남도로 1.12%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난 시도는 강원도로 1.25%가 나타났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프리랜서 비율이 1.82%로 나타나서 6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2-2〉 전국 시도별 취업자 수 대비 프리랜서 비율

(단위: %)



주: 통계청(2020). 지역별 고용조사(2020년 하반기 A형) 및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2021.7.)

□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령 및 성별 프리랜서 규모

○ 연령별로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프리랜서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전국은 40~49세에 프리랜서가 33.0%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50~59세가 23.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전국은 여성과 남성은 각각 40~49세 프리랜서가 가장 많았음. 즉 각 성별로 볼 때 40대 프리랜서 여성은 33.7%, 남성은 32.4%였음. 하지만 두 번째로 프리랜서가 많이 분포한 연령대는 여성은 30~39세로 25.2%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50~59세로 25.5%로 나타났음.

○ 제주특별자치도도 40~49세 프리랜서가 46.0%로 가장 많았으며, 50~59세가 26.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에 20~29세 프리랜서는 1.2%로 가장 낮았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성별에 따라서는 40~49세 프리랜서가 남성과 여성 각각에서 모두 가장 많이 나타났음. 즉 각 성별로 40대 프리랜서 여성은 39.8%, 남성은 54.1%로 나타났음. 또한 50~59세 프리랜서가 여성과 남성 각각 모두 두 번째로 많았음. 즉 50대 프리랜서 여성은 24.2%, 남성은 30.2%를 차지하고 있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프리랜서 성별에 있어서의 특이점은 여성 프리랜서가 30~39세인 경우가 19.0%로 세 번째로 높았던 반면에 남성은 30~39세가 2.0%로 낮게 나타났음. 30대 프리랜서는 여성은 92.6%, 남성은 7.4%로 여성이 남성보다 85.2%p 더 높았음.

<표 2-7>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연령 및 성별 프리랜서 수

(단위: 명, (%))

연령	시도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15~19세		1,295 (0.5)	1,327 (0.5)	2,622 (0.5)	182 (4.6)	0 (0.0)	182 (2.6)
20~29세		28,493 (10.8)	19,596 (6.8)	48,089 (8.7)	0 (0.0)	80 (2.7)	80 (1.2)
30~39세		66,402 (25.2)	59,606 (20.8)	126,008 (22.9)	747 (19.0)	60 (2.0)	807 (11.7)
40~49세		88,553 (33.7)	92,997 (32.4)	181,550 (33.0)	1,569 (39.8)	1,610 (54.1)	3,179 (46.0)
50~59세		58,221 (22.1)	73,252 (25.5)	131,473 (23.9)	955 (24.2)	898 (30.2)	1,853 (26.8)
60세 이상		20,059 (7.6)	40,263 (14.0)	60,322 (11.0)	488 (12.4)	328 (11.0)	816 (11.8)
전체		263,023 (100.0)	287,041 (100.0)	550,064 (100.0)	3,941 (100.0)	2,976 (100.0)	6,917 (100.0)

주: 통계청(2020). 지역별 고용조사(2020년 하반기 A형).

□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 및 성별 프리랜서 규모

○ 산업별로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프리랜서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전국은 프리랜서가 가장 많은 산업이 교육 서비스업으로 34.6%를 차지하였음. 그 뒤로는 부동산업이 1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1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

런 서비스업이 12.4%로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 전국 프리랜서 수에 있어서 성별 간의 격차가 운수 및 창고업과 금융 및 보험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음. 해당 산업에서는 남성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음. 세 번째로 프리랜서 수의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남성이 93.9%, 여성이 6.1%로 남성이 여성보다 87.8%p 더 높게 나타났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프리랜서가 가장 많은 산업이 교육 서비스업으로 46.8%를 차지하였음. 그 뒤로는 부동산업이 15.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10.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8.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7.6%로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수의 성별 격차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음.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남성 프리랜서가, 정보통신업에서는 여성 프리랜서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음. 그 뒤로 프리랜서 수에 있어서 성별 간 격차가 큰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여성 프리랜서는 79.9%, 남성 프리랜서는 20.1%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59.8%p 더 높게 나타났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관광, 교육 관련 산업 분야의 성별 프리랜서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문화 분야에서 프리랜서가 많이 분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을 살펴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는 여성이 33.1%이고, 남성은 66.9%로 여성이 33.8%p 낮았으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여성이 68.6%이고, 남성이 31.4%로 여성이 남성보다 37.2%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관광 분야에서 프리랜서가 많이 분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앞서 문화 분야에서 설명한 부분처럼 여성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교육 분야는 앞서 교육 서비스업을 살펴보았듯이 여성이 남성보다 59.8%p 더 높게 나게 나타났음. 이렇듯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문화, 관광, 교육 분야에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모두 남성에 비하여 여성 프리랜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8>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산업 및 성별 프리랜서 수

(단위: 명, (%))

산업	시도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농업, 임업 및 어업		57 (0.0)	877 (0.3)	934 (0.2)	0 (0.0)	0 (0.0)	0 (0.0)
제조업		3,003 (1.1)	8,316 (2.9)	11,319 (2.1)	0 (0.0)	0 (0.0)	0 (0.0)
건설업		1,631 (0.6)	9,186 (3.2)	10,817 (2.0)	0 (0.0)	221 (7.4)	221 (3.2)
도매 및 소매업		7,253 (2.8)	21,656 (7.5)	28,909 (5.3)	0 (0.0)	278 (9.3)	278 (4.0)
운수 및 창고업		0 (0.0)	325 (0.1)	325 (0.1)	0 (0.0)	0 (0.0)	0 (0.0)
숙박 및 음식점업		49 (0.0)	90 (0.0)	139 (0.0)	0 (0.0)	0 (0.0)	0 (0.0)
정보통신업		10,932 (4.2)	39,600 (13.8)	50,532 (9.2)	68 (1.7)	0 (0.0)	68 (1.0)
금융 및 보험업		0 (0.0)	1,988 (0.7)	1,988 (0.4)	0 (0.0)	0 (0.0)	0 (0.0)
부동산업		38,615 (14.7)	46,090 (16.1)	84,705 (15.4)	278 (7.1)	791 (26.6)	1,069 (15.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291 (11.1)	51,580 (18.0)	80,871 (14.7)	248 (6.3)	502 (16.9)	750 (10.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55 (0.7)	2,309 (0.8)	4,064 (0.7)	0 (0.0)	0 (0.0)	0 (0.0)
교육 서비스업		135,152 (51.4)	55,161 (19.2)	190,313 (34.6)	2,584 (65.6)	652 (21.9)	3,236 (4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500 (2.1)	3,283 (1.1)	8,783 (1.6)	136 (3.5)	52 (1.7)	188 (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6,883 (10.2)	41,056 (14.3)	67,939 (12.4)	363 (9.2)	166 (5.6)	529 (7.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07 (1.1)	5,525 (1.9)	8,432 (1.5)	265 (6.7)	314 (10.6)	579 (8.4)
전체		263,028 (100.0)	287,042 (100.0)	550,070 (100.0)	3,942 (100.0)	2,976 (100.0)	6,918 (100.0)

주: 통계청(2020). 지역별 고용조사(2020년 하반기 A형).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분야 프리랜서 규모

-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분야 프리랜서를 여성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국내여행안내사와 관광통역안내사로 한정하여 조사하였음. 이에 해당 직업군에 속해 있는 프리랜서 현황(2021년 5월말 기준)을 제시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국내여행안내사는 모두 여성으로 총 344명이 있었음. 국내여행안내사는 50~59세 연령대에서 69.8%를 차지하였으며, 40~49세가 17.4%, 60세 이상이 11.9%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통역안내사는 총 410명으로 이중에서 여성은 355명(86.6%)이고, 남성은 55명(13.4%)이었음. 관광통역안내사 전체는 50~59세가 61.2로 가장 높았으며, 40~49세가 29.0%, 60세 이상이 7.3%로 순으로 높았음. 여성과 남성 관광통역안내사로 각각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40대, 60대 이상 순이었음. 특히 여성 관광통역안내사는 50~59세가 63.9%를 차지하고 있어서 해당 연령대에 매우 많이 분포해 있었음.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분야 연령 및 성별 프리랜서 수

(단위: 명, %)

연령	분야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15-19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29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0-39세		3 (0.9)	0 (0.0)	3 (0.9)	7 (2.0)	3 (5.5)	10 (2.4)
40-49세		60 (17.4)	0 (0.0)	60 (17.4)	101 (28.5)	18 (32.7)	119 (29.0)
50-59세		240 (69.8)	0 (0.0)	240 (69.8)	227 (63.9)	24 (43.6)	251 (61.2)
60세 이상		41 (11.9)	0 (0.0)	41 (11.9)	20 (5.6)	10 (18.2)	30 (7.3)
전체		344 (100.0)	0 (0.0)	344 (100.0)	355 (100.0)	55 (100.0)	410 (100.0)

주: 제주특별자치도국내여행안내사협회 및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 내부 자료(2021년 5월말 기준).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 심층면접조사의 조사 목적은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프리랜서로서의 일 경험 및 생활 경험, 정책 수요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음.
- 이를 통하여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의 구체적인 노동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현황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또한 해당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여성 프리랜서들을 위하여 실제로 어떠한 정책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함.

나. 조사 방법 및 자료 수집

- 본 연구는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이 지닌 인식과 내면, 욕구, 상황 등을 깊이 이해하여 구체화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조사방법을 사용했음.
- 심층면접조사는 2021년 3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이루어졌음.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 총 30명을 대상으로 각 1회씩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면접을 실시하였음. 면접 장소는 본원 연구원 회의실 또는 피면접자가 원하는 커피숍 등이었음. 또한 심층면접 이후 면접 내용을 정리하면서 면접 내용 확인을 위해 전화로 조사하기도 하였음.
- 심층면접조사 전에 본 연구의 목적 등 연구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사항 등은 이메일을 통하여 서면으로 전달하였음. 또한 심층면접조사 실시 바로 전에 해당 조사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였으며, 조사 참여에 동의하는지를 서면으로 받았음. 그리고 녹음을 하는 것에 대하여도 사전 동의를 얻었음.
- 해당 심층면접조사에서는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음. 주요 질문지의 내용은 첫 일자리 및 프리랜서 진입 계기, 교육훈련 경험, 업무내용 및 일하는 방식(근로시간, 근무환경, 일감 수주 방식, 계약 여부, 급여 외의 지원 여부), 경제적인 상황 및 일의 안정성 정도, 코

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사회보장 정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의 긍정적인 점 및 애로점, 앞으로의 계획, 정책 수요 등이었음.

다. 연구참여자

-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제주지역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 12명,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 9명,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 9명으로 총 30명을 심층면접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특히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를 다른 분야보다 3명 더 선정한 것은 문화 분야에 예술 분야 5명을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가 다양한 성격의 직업군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임. 또한 주된 일이 프리랜서인 자들로 구성하였음.
- 심층면접조사의 연구참여자로 문화 분야에는 연극 및 음악 등을 하는 프리랜서 예술인 포함하였으며, 프리랜서로 사진, 영상, 문화기획, 디자인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특히 예술인은 투잡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된 일이 예술 활동인 자들로 표집하였음. 그리고 관광 분야에서는 여성 프리랜서로 많이 일하고 있는 국내여행안내사와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교육 분야에서는 프리랜서 강사를 주로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외에도 방과후강사를 포함하였음. 방과후강사는 연구 시작 즈음인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제주도 프리랜서 코로나19 지원금의 대상이었다는 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분야 프리랜서에 포함하게 되었음. 교육 분야의 연구참여자로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는 학원 강사 등은 포함하지 않았음. 그리고 방과후강사 중에는 예술 과목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주된 일이 방과후강사인 경우로 한정하였음.
- 연구참여자는 눈덩이 표집방법에 의하여 선정되었음. 지인들을 통하여 관련 분야 연구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이후 발굴 대상자를 통해 눈덩이 표집을 하였음. 또한 관련 협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도움을 받아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도 하였음. 관련 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국내여행안내사협회 및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였음.
-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3-1>과 같음.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문화, 관

광, 교육 분야별로 나타났음.

-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연령은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3명이고, 30세 이상 40대 미만이 5명, 40대 이상 50대 미만이 3명, 50대 이상이 1명임. 최종학력은 전문대학교 졸업이 4명이고, 4년제 대학교 졸업이 5명,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3명임. 코로나 이전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명,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6명, 300만원 이상이 2명으로 나타남. 코로나 이후에는 100만원 미만은 2명,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6명이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명임. 코로나 이전 월 평균 소득의 평균은 215만원이고, 코로나 이후 월 평균 소득의 평균은 약 134만원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월 평균 소득 차이는 약 81만원임.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은 10년 미만이 7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명,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명, 그리고 30년 이상이 1명임.
-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연령은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명이고,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3명, 50세 이상은 4명임.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조사 대상자로 40대 및 50대가 많을 수밖에 없었음.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명,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 재학 중이 1명, 전문대학교 졸업이 2명, 4년제 대학교 졸업이 4명,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1명임. 코로나 이전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명,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5명, 300만원 이상이 3명임. 코로나 이후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8명, 그리고 100만원 이상이 1명임. 코로나 이전 월 평균 소득의 평균은 약 256만원이고, 코로나 이후 월 평균 소득의 평균은 약 46만원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월 평균 소득의 차이는 약 210만원임.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은 10년 미만이 2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명,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까지는 5명, 그리고 30년 이상은 1명임.
-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연령은 20세 이상 30대 미만이 1명,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3명,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4명, 그리고 50세 이상이 1명임. 최종학력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 재학 중이 1명, 전문대학교 졸업이 3명, 4년제 대학교 졸업이 2명,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3명임. 코로나 이전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명,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2명,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명, 그리고 300만원 이상이 3명임. 코로나 이후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은 4명,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4명, 200만원 이상이 1명임. 코로나 이전 월 평균 소득의 평

균은 약 242만원이고, 코로나 이후 월 평균 소득의 평균은 105만원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월 평균 소득의 차이는 약 137만원임.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은 10년 미만인 4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명,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명임.

〈표 3-1〉 심층면접조사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분야	연령	고향이 제주인지 여부	최종 학력	월 평균 소득		전체 근로 기간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	직종	업종	비고	결혼 여부	투잡 이상 여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사례 1	문화	33세	제주	4년제 대학교 졸업	250만원	200만원	9년	4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디자인	기혼	×
사례 2	문화	38세	제주 아님	전문대학교 졸업	150만원	100만원	18년	10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일러스트, 디자인 굿즈 판매	기혼	×
사례 3	문화	28세	제주	전문대학교 졸업	150만원	120만원	2-3년	3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미혼	×
사례 4	문화	32세	제주	4년제 대학교 졸업	350만원	150만원	7년	5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영상, 영화	미혼	○ (투잡)
사례 5	문화	27세	제주 아님	전문대학교 졸업	100만원	60만원	2년	1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극작가, 문화기획	미혼	○ (투잡)
사례 6	문화	47세	제주	4년제 대학교 졸업	150만원	30만원	20년	17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싱어송라이터	기혼	○ (쓰리잡)
사례 7	문화	49세	제주 아님	4년제 대학교 졸업	200만원	100만원	30년	20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연극	미혼	○ (쓰리잡)
사례 8	문화	42세	제주 아님	대학원 이상	200만원	100만원	19년	9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국악인	기혼	○ (투잡)
사례 9	문화	56세	제주	전문대학교 졸업	250만원	200만원	30년	30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연극	기혼	○ (투잡)
사례 10	문화	29세	제주	대학원 이상	280만원	200만원	8년	6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플루티스트	기혼	○ (투잡)
사례 11	문화	35세	제주	대학원 이상	200만원	100만원	11년	11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문화 기획	기혼	×
사례 12	문화	34세	제주 아님	4년제 대학교 졸업	300만원	250만원	10년	3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문화 기획	미혼	×
사례 13	관광	46세	제주	4년제 대학교 졸업	250만원	0만원	18년	15년	서비스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관광통역 안내사	미혼	×

구분	분야	연령	고향이 제주인 지 여부	최종 학력	월 평균 소득		전체 근로 기간	프리 랜서 로 일한 경력	직종	업종	비고	결혼 여부	투잡 이상 여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사례 14	관광	51세	제주	대학원 이상	200만원	0만원	26년	25년	서비스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관광 통역 안내사	이혼 (한부모 가정)	×
사례 15	관광	37세	제주	4년제 대학교 졸업	400만원	160만원	12년	7년	서비스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관광통역 안내사	미혼	○ (투잡아 크리티)
사례 16	관광	53세	제주	전문대 학교 졸업	250만원	90만원	28년	26년	서비스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국내여행 안내사	기혼	○ (투잡아 크리티)
사례 17	관광	33세	제주 아님	4년제 대학교 졸업	300만원	0만원	10년	6년	서비스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국내여행 안내사	기혼	×
사례 18	관광	48세	제주	대학교 재학 중	150만원	10만원	26년	23년	서비스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국내여행 안내사	기혼	○ (투잡아 크리티)
사례 19	관광	50세	제주	고등학 교 졸업 이하	200만원	78만원	32년	30년	서비스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국내여행 안내사	기혼	○ (투잡)
사례 20	관광	51세	제주	4년제 대학교 졸업	200만원	0만원	22년	20년	서비스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관광통역 안내사	기혼	×
사례 21	관광	49세	제주	전문대 학교 졸업	350만원	80만원	30년	20년	서비스 종사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국내여행 안내사	기혼	×
사례 22	교육	38세	제주	대학원 이상	200-250 만원	70-80 만원	13년	8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취업, CS, 인성	기혼	×
사례 23	교육	49세	제주	대학교 재학 중	100만원	50만원	25년	3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진로 치매예방 , 뇌교육	기혼	○ (투잡)
사례 24	교육	57세	제주	대학원 이상	500만원	70만원	26년	16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웃음 코칭 뇌인지교 육	기혼	×
사례 25	교육	36세	제주 아님	4년제 대학교 졸업	250-300 만원	150만원	15년	10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폭력 예방 교육	기혼	×
사례 26	교육	46세	제주	대학원 이상	350만원	100만원	15년	10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폭력 예방 교육	기혼	○ (투잡)
사례 27	교육	48세	제주	4년제 대학교 졸업	300만원	200만원	20년	20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방과후 강사	이혼 (한부모 가정)	×
사례 28	교육	30세	제주 아님	전문대 학교 졸업	250만원	150만원	7년	3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방과후 강사	이혼 (한부모 가정)	×
사례 29	교육	42세	제주	전문대 학교 졸업	180만원	50만원	20년	15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방과후 강사	이혼 (한부모 가정)	○ (쓰리잡)
사례 30	교육	27세	제주	전문대 학교 졸업	0만원	100만원	5년	2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요가 강사	기혼	×

2. 조사 결과

가.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과 정책 수요

1) 프리랜서로의 진입 경로 및 계기

□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첫 일자리

- 많은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의 첫 일자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거나(사례 1, 4, 5, 6, 9, 10, 11, 12,) 똑같지는 않더라도 문화 분야 범주 내에 있었음(사례 2, 3, 8). 사례 1은 첫 일자리가 대학교 내에 있는 창업교육기관으로 디자인 업무를 맡았는데 현재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음. 그리고 사례 11은 첫 일자리가 프리랜서 보조 작가였으며, 사례 5 및 12는 첫 일자리가 문화기획을 하는 회사였는데 모두 지금까지 같은 내용의 업무를 해오고 있었음. 이 외에도 연극인, 싱어송라이터, 플루티스트로 처음부터 예술 관련 일을 해왔던 참여자들이 있었음(사례 6, 9, 10).
-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첫 일자리와 현재 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이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음. 특히 첫 일자리의 업무 내용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참여자들은 더욱 일의 관련성이 깊었음.
- 다만 첫 일자리가 인터넷 쇼핑몰 상세 페이지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현재는 일러스트레이트 작업을 하는 사례 2와 첫 일자리가 영상 관련 회사에서 지금은 사진 작업을 하는 사례 3, 현재는 연극인이나 첫 일자리는 도서관 사서 보조 아르바이트였던 사례 7만이 첫 일자리와 현재 일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였음.

첫 일자리는 영상 관련된 거였는데 애니메이션 그쪽에서 회사에서 일했어요. ... 이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최근에 사진사로 전향하게 되었어요. (사례 3, 사진사)

첫 번째 일은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국제 아동극협회 아시테지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축제 기획을 하고 운영하는 일을 인턴으로 했었어요. (사례 5, 극작가 & 문화기획자)

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해가지고 실습으로 제주 MBC에서 6개월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 방송작가. 막내작가죠. 처음엔 보조 작가로 시작을. 그건 학교 프로그램 사업에서 제가 이론교육 듣고 실습을 가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사례 11, 문화기획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유아들을 가르치는 국악교육 전문회사였어요. 거기서 강사로 일하다가 강사도 파견을 해주는 그런 교육실장으로 10년정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8, 국악인)

□ 문화 분야는 구조적으로 프리랜서가 많아 자연스럽게 프리랜서가 됨

- 문화 분야에서는 디자인, 사진, 영상, 문화기획 등 개인의 전문적인 감각에 기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음. 산업 구조적으로 프리랜서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음(사례 1, 2, 5, 6, 7, 9, 10, 11).
- 특히 문화 중에서도 예술 분야에서는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래서 예술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사례 6, 7, 9, 10).

방송작가는 다 프리랜서라서. (사례 11, 문화기획자)

계속 창작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들은 어쩔 수 없이 프리랜서인거잖아요. 근데 창작자로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행사기획일을 병행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어디 회사에 소속되어서 행사기획을 할 수 없는 구조인거예요. 창작을 하기 위해서 창작이랑 행사기획을 하는 프리랜서. (사례 5, 극작가 & 문화기획자)

비상임으로 음악활동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나의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와서 시립합창단에서 나와서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인 음악을 창작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례 6, 싱어송라이터)

□ 다양한 업무와 나만의 작품 제작을 해보고자 프리랜서로 이동

- 일부 참여자들 중에는 다양한 업무를 맡아 보고, 자기 스스로 기획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자 프리랜서로 이동한 경우가 있었음(사례 1, 5, 12). 회사에 있을 때는 주어진 업무만 요구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 때가 많은데 프리랜서는 다양한 업무를 선택하여 경험해 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어서 프리랜서가 되었다고 함.

어쨌든 자기 아마 모든 디자이너들이 자기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사례 1, 디자이너)

제가 직접 어떤 방향성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이거를 제 스스로 사업화까지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프리랜서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사례 5, 극작가 & 문화기획자)

프리랜서로 진입하게 된거는 연차가 쌓이다보니까 회사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더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팀과도 일해보고 싶고 저런 팀과도 일해보고 싶은데 회사에 있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프리랜서로 나오게 됐어요. (사례 12)

2) 교육·훈련 경험

□ 문화 분야 전문학교를 다님

- 많은 참여자들이 문화 분야 프리랜서로 시작하고 지속하는데 있어서 관련 분야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음(사례 2, 5, 6, 10, 11). 문화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과정 중에도 계속적으로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례 2는 일러스트를 배우기 위하여 2년 동안 대안학교를 다녔으며, 사례 5는 문화예술경영학과, 사례 6은 실용음악과 학사를 취득하기도 하였음. 특히 사례 5와 6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과정에서 필요를 느끼고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전문성을 키웠음. 또한 사례 11은 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진행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그 이후 실습이 현재 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음.

일러스트는 대안학교를 2년간 다녔어요 서른 살 때부터. (사례 2, 일러스트레이션)

제가 지금 또 제 창작 관련해서 학교 교육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근데 기획 일을 하다보니까 기획 일에 있어서는 현장에서만 뛰어봤지 제가 전문성은 없었거든요. ... 올해 또 사이버대학교 편입을 해서 문화예술경영 학사를 수강을 하고 있어요. (사례 5, 극작가 & 문화기획자)

실제 실용음악과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대학도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전공을 하게 됐죠. ... 프리랜서로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인 그런 과정이 거쳐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례 6, 싱어송라이터)

저희는 학부졸업하면은 거의 대학원을 많이 진학을 하고. 요즘은 거의 다 저희 전

공에서 일을 하려면 석사까지는 다 해야 보통 그렇게 해서 대학원까지. (사례 10, 플루티스트)

□ 정부 및 도 산하기관에서의 다양한 교육

- 사례 4와 5는 정부 및 도 산하기관에서 관련 문화 분야 교육을 받았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음.
- 사례 4는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문화 PD 6개월 과정을 이수해서 혼자서 기획, 촬영, 편집까지 하는 교육을 받아 현재 하고 있는 영상 업무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음. 또한 제주영상문화진흥원에서는 영상교육 및 조명교육을 받았고,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영화인 대상 교육을 받았음. 이러한 관련 분야 전문 교육들이 현재 직업을 하는데 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음.
- 사례 5는 제주도시재생센터 및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회계 및 세무 특강을 들었으며,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는 계약서 작성 특강도 들을 수 있었음.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작업하고 있는 해당 분야 외에도 회계 및 세무 등 다양한 행정을 해야 해서 관련 특강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였음.

한국문화정보원에서 하는 문화 PD 6개월 과정 이수를 했는데 그때 한창 1인 미디어가 떠서 혼자서 기획, 촬영, 편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수를 하고 바로 편집 같은 아르바이트, 촬영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사례 4, 영상)

제주영상문화진흥원 거기서 영상교육이나 조명교육 그런 것들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영화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어요. 거기는 무료 강의였고요. (고용센터랑 연결되어 있어서) 몇 시간 수료하면 돈 주고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두 번 정도 이수 했어요. (사례 4, 영상)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자인공장이라는 약간 공유오피스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있을 때도 회계랑 세무, 프리랜서를 위한 1인사업자를 위한 회계, 세무 이런 교육들 1회성 교육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받은 적 있어요. ...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일단 이런 회계, 세무 특강도 계속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획서 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되게 실무적인 특강들이 많아요. (사례 5, 극작가 & 문화기획자)

3) 문화 분야 프리랜서의 업무 내용 및 일하는 방식

□ 다양한 직업에 따른 다양한 업무 내용

- 문화 분야 참여자들의 직업은 매우 다양했음. 즉 디자이너, 사진사, 영상 작업가, 일러스트레이션, 문화기획자, 예술인 중에는 연극인, 플루티스트, 국악인, 싱어송라이터가 있었음. 다양한 직업만큼이나 업무 내용도 다양하였음.
- 사례1은 디자이너였는데 2D인 평면적인 인쇄물을 디자인하는 일을 주로 맡아서 하였음. 일러스트레이션인 사례 2는 그림을 통하여 기획을 하고 책을 만드는 일 외에도 디자인한 굿즈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음. 사진사인 사례 3은 사진 현상을 해주는 작업 외에도 사진을 직접 찍어 주기도 하였음. 제주도 자연을 배경으로 인물 사진을 찍어 주고 현상해 주었음. 영상 작업을 주되게 하는 사례 4는 영상 편집부터 행사 등의 영상을 제작하는 작업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었음. 극작가이면서 문화기획자인 사례 5는 연극대본을 창작하여 쓰면서 문화 행사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음. 문화기획자인 사례 11과 12도 문화 행사 등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었으며, 문화 행사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였음.
- 예술인인 싱어송라이터 사례 6은 음악 공연을 하고 있었음. 길거리 공연도 하고 작은 소극장에서 음악 공연을 하기도 했으며, 행사가 들어올 때는 행사도 하였음. 연극인인 사례 7과 9는 팀과 함께 연극을 연습하여 코로나19 이전에는 1년에 5번 정도의 연극에 참여했었음. 국악인인 사례 8과 플루티스트 사례 10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음악회 행사에 자주 섭외 요청이 들어와서 해당 일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음악회를 열었음. 특히 예술인의 경우에는 주된 예술 작업 업무 외에도 강사, 개인 레슨, 아르바이트 등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 문화 분야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주된 전문적인 문화 작업 외에도 일감을 찾는 것에서부터 계약서 작성, 세금 신고, 다양한 행정 업무, 무대 세팅, 티켓 판매 등을 타 기관의 도움 없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참여자들은 주된 문화 분야 전문 작업 외에도 잡다한 부수적인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2D. 평면적인 결과물과 관련된 건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웹상에 표현되는 것도 있고 웹배너나 이런 거는. 그리고 패키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쇄물 위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행사와 관련된 브랜딩이라든가. 시각적인 것. ... 이 외에도 세금신고를 한다거나 작업공간이 없어서 작업공간을 구하러 다닌다거나. 잘 모르는 행정적인 부분이나 계약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온전히 감당하고 알고 그걸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례 1, 디자이너)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먼저 견적서 이런 거를 제출을 해서 금액을 정하고 행사 당일에 가서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일주일, 이주일 내로 1차 가편을 보내드리고 수정본은 두 번 정도 고쳐서 최종 납품하는 방식이에요. ... 홍보영상은 시나리오 같은걸 먼저 협의를 하고 촬영을 하는 게 앞에 하나 더 붙을 뿐이지 똑같은 과정이에요. (사례 4, 영상)

작년에는 제가 했던 게 대한민국 **** 제주도에서 했었잖아요. 거기서 북푸드 쇼라고. 책과 음식을 만나게 해서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했었거든요. 그런 걸 제가 기획을 하고 제가 대본도 다 쓰고. 방송 출연자 진행자로도 하고 그렇게 그런것도 했었고. 북푸드 쇼 같은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60대, 70대 노년 분들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이야기 삶에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내서 그걸 음식으로 만드는. 음식으로 재현해 내는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 같은 것도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책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 했었거든요. 책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했었고. 책과 영화 음식 접목시켜서 그런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같은 것도 했었고요. (사례 11, 문화기획자)

만약에 극단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배우는 보통 4-5명밖에 안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번 공연에는 배우로 안 뛰니깐 행사장 기획 행정 일을 하는 거죠. 포스트도 붙이러 다니고 티켓 판매량 확인하고 그 날 오는 관객들 관객 수 확인하고 이런 일은 그때 배우로 서지 않는 배우가 하는 거죠. (사례 7, 연극인)

연주하기로 결정하면 대관하고 그 다음에 연주 프로그램 정하고 그 다음에 반주자 섭외하고 그 다음에 맞춰서 연습날짜 잡고 홍보하고 팜플렛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 무대 스태프를 따로 구한다든가 해서. 홀에서 해주세요 조명은. (사례 10, 플루티스트)

□ 불규칙한 근로시간 및 다양한 근로기간

- 대부분의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이 근로시간은 대중이 없다고 하였음(사례 1, 3, 4, 6, 7, 8, 9). 즉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유연해서 일정하지 않다는 것임. 참여자 중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었음(사례 1, 4, 8). 또한

바쁜 시기에는 밤낮없이 일을 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는 몇 개월 정도 아예 쉬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술인의 경우에는 저녁에 모여 4-6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사례 6, 7, 9). 이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예술 작업만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낮에는 주로 다른 경제활동(방과후강사, 레슨 등)을 하고 있었기에 팀 연습 등은 주로 저녁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굉장히 정말 정말 유연한데. 프리랜서가 바쁜 시기가 있어요. 기관들이 바쁠 때가 프리랜서도 바쁠 때거든요. 하반기에는 굉장히 몰아서 일하기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일해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일이 끊겨 있는 중간 타임에는 그냥 정말 하루에 한 시간도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도 있고요. (사례 1, 디자이너)

최근에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쉬는 시간이 없는. ... 그렇게 한 9개월을 빡세게 살면 두 달은 거의 쉬어요. 나머지 두 달은. (사례 5, 극작가 & 문화기획자)

근로시간 자기가 작업하기 나름이어가지고. ... 일이 많으면 작년에 제가 덩고 그런 거 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열흘 동안 잠 못 자고 편집하고 출력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30분정도. 그때만 잠깐 누워 있다가 다시 보내고 피드백 받고 그렇게. (사례 4, 영상)

근로시간은 대중 없어요. ... 보통 6시에 모여서 빨라야 10시 12시에 끝나는 거죠. (사례 7, 연극인)

근로시간은 너무 달라가지고. 불규칙하고요. ... 공연시간은 항상 다르긴 해요. 그쪽에서 원하면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20분 30분 일수도 있고 10분정도 일수도 있고. 공연은 하루 당일이에요. 야외가 될 수도 있고 실내가 될 수도 있고. 연습 같은 경우에는 팀은 그냥 팀 연습실이 따로 있고요. 저는 개인연습을 할 땐 집에서. ... 팀 연습시간은 일주일에 두 시간 이내로, 개인연습은 틈나는대로 하는 것 같아요. (사례 8, 국악인)

-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의 근로시간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음. 다만 근로시간이 프로젝트나 건당으로 정해진다는 유사점이 있었음. 사진사인 사례 3은 사진 편집 등의 작업이 건당 2~3일 정도 소요되고, 영상 작업을 하는 사례 4는 건당 1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음. 이 외에도 문화기획자인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큰 프로젝트까지 해서 기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프로젝트당 2~9

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였음(사례 5, 11, 12).

- 연극인인 참여자의 경우에는 공연 하나를 상연하는데 연습까지 하여 2~3개월 정도가 걸리며, 공연은 코로나19 이전에는 1년에 5~7회 정도를 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1회 정도 하였다고 하였음(사례 7, 9). 플루티스트인 사례 10의 경우에는 한 공연을 준비하고 올리는데 1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도 하였음. 다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연이 없더라도 개인 또는 팀 연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 보통 촬영편집까지 아주 길어도 한 달 잡고 그 안에 1차본, 수정본 왔다갔다 하는 거는 한 달 사이에 다. 아주 길어도. (사례 4, 영상)

보통 2개월 이상인 것 같아요 보통은. 1개월도 잘 없고 보통 2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있습니다. (사례 12, 문화기획자)

공연 하나 하는 데는 최소 3개월이에요. ... 2~3개월이죠. 공연하는 날까지 다 쳐서. (코로나 이전에는) 5~7회는 했죠. 작년엔 3회 잡았는데 1회밖에 못했어요. (사례 7, 연극인)

(한 공연 준비하고 올리는데) 15일 정도요. (사례 10, 플루티스트)

□ 대부분 집이나 카페에서 근무, 열악하고 불안정함

- 프리랜서로 일하는 환경은 집이거나 카페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사례 1, 2, 3, 11, 12). 이중에서도 사례 11과 12는 작업 환경이 사무실이나 작업실이 아닌 집이나 카페이다보니 열악하고 불안정하다고 하였음. 특히 사례 11은 회의를 하려면 카페를 정해야 하고 그때마다 이동해야 해서 회의비가 더 들고 시간 소요로 크다고 하여 불편함을 호소하였음.
- 사례 4와 5는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작업실은 자신에게 맞춰진 공간이기 때문에 작업하기에 편하다고 하였음. 사례 1도 예전에는 공동작업실을 사용해봤는데 프린터기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감을 공유하는 등 장점이 많아 좋았다고 하였음. 하지만 작업실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구했다고 하더라도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어쨌든 일하는 환경이 거의 대부분 집인데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사례 11, 문화기획자)

좀 불안정하긴 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사무실 하나라도 그쪽에서 제가 일할 때 주시면 그쪽으로 와서 미팅하고 그쪽에서 정리를 하다보면 제가 큰 PC라도 뭔가 어떻게 해서 할텐데 그런 게 아니다보니까. 시간 조율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동시간도 따로 계산을 해야 되고 여기 있다가 서귀포 갔다가 막 그런 걸 하다보면 일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생각도 들어서 야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밤에도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진 않아요. 환경이. (사례 12, 문화기획자)

작업실은 제가 만든 공간이고 제가 꾸린 공간이니까 제 마음에 맞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단지 일이 없을 때에도 유지비가 꽤 많이 들어간다. 그런 점이 좀 단점인 것 같고. (사례 4, 영상)

일단 이런 근무들을 할 때 제가 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업실을 제가 따로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항상. 그래서 작업실을 되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고요. (사례 5, 극작가 & 문화기획자)

- 예술인 참여자의 경우에는 팀 연습을 위한 연습실과 공연장 등이 주요한 근무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음. 사례 6, 7, 9는 비용 절감을 위해 연습실을 지하로 얻는 경우가 많아 열악한 편이라고 하였음. 특히 사례 6은 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습실에 방음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부담스러우며, 임대기간인 2년마다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있다고 하였음.
- 공연장의 경우에는 쾌적하다고 한 참여자도 있었지만(사례 8), 대체적으로 위험하고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음. 사례 8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공연을 요청받아서 하는 편이었지만 다른 예술인 참여자들은 연극이나 음악 공연을 팀에서 직접 만들어서 무대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공연장을 저렴한 곳을 찾아보니 열악하게 나타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사례 6, 7, 9).

그냥 컨테이너 사가지고 해보고 어디 지하실 연습실 빌려가지고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비용이 할 때마다 방음을 저희가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음악 연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간 임대료의 방음을 완벽하게 딱 하려면 거기에 드는 인건비도 안들고 재료비만 해도 꽤 많이 드는데 2년 살다가 옮겨가야 돼요. 계약 만료되어서. 옮겨가려면 그 재료를 다 뜯어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그걸 폐기하는 비용도 엄청 많이

들거든요. 또 옮기면 임대료에 반복 되는 거예요. (사례 6, 싱어송라이터)

위험성이 있는 환경이고 다 지하라 너무 안좋아요. 그래서 좀 연습실이나 이런 게 대여해주는 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례 7, 연극인)

열악하죠. 종진 않은 것 같아요. 지하다보니깐 약간 호흡기에도 문제가 있고 기관지 쪽으로 안 좋은 친구들은 계속 비염에 시달리는 친구들도 많고. (사례 9, 연극인)

□ 폭언 및 괴롭힘, 재해의 위험

- 많은 예술인 참여자들은 공연 무대의 설치 시나 설치 이후에 무대가 무너지거나 조명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야외무대의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안전하지 못하다며 근무환경에서 위험을 인식하고 있어서 재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였음(사례 6, 7, 8, 9). 현장에서 많이 일하는 문화기획자인 사례 5도 현장에서 위험성을 많이 느끼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현장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은 있다고 하였음.
- 문화 분야의 일부 참여자 중에는 내외부적으로 폭언 및 괴롭힘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사례 1, 2, 6, 7). 디자이너인 사례 1은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하다보니 인간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고객을 만나는 등 좋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하였음. 이럴 때 자신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회사 소속이었다면 논의할 동료나 상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을 것 같다고 하였음. 사례 2도 고용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주지 못하겠다’며 갑질을 하는 경험도 하였음. 이외에도 싱어송라이터인 사례 6은 야외에서 공연할 때 만취한 관람객으로부터 폭언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연극인인 사례 7은 미투 운동 이후에는 많이 변화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내부에서 폭언 및 괴롭힘이 많이 있었다고 하였음.
- 또한 문화기획자인 사례 12는 폭언 및 괴롭힘까지는 아니지만 주요 고객이 담당자인 자신에게는 업무를 묻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남성 직원에게 관련 질문을 계속해서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기도 하였음. 여성 프리랜서라서 더욱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음.
- 그러나 참여자 중에는 폭언 및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재해의 위험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사례 3, 4, 8, 10, 11).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다 만나고 응대해야 되다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당연히 그 안에서 안 좋은 일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 인간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말투나 아니면 그냥 되게 하대하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데서 좀. 거의 상처를 그런데서 받죠. 완전 돈 주는 입장에서 갑질을 할 때가. (사례 1, 디자이너)

만약에 일대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이걸 말 들었을 때 내가 기업에 들어가서 나 이런 걸 당했다.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논의할 어떤 동료라도 있었겠죠. 아니면 상사라든가. 이거를 뭔가 아무튼 커트해 줄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제가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힘들죠. (사례 1, 디자이너)

그렇게 하면 돈 못주죠. 이런 싸움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사례 2, 일러스트레이션)

폭언은 공연할 때 거리공연이나 실내든 실외든. 특히 실외가 더 많죠. 제주도 같은 경우 어디 동문로타리 분수대나 탑동이나 어디 이렇게 가잖아요. 공연하다 보면 왔다갔다 하시는 술취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막 섞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경우도 어디 외곽지 가서 공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례 6, 싱어송라이터)

저희는 공연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긴 해요. 흔히들 조명이나 공연장이 그렇게 안전하진 않아요. ... 소극장 가지고 있는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로지만 지하에 있고. 그 설비들도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만든 거라 그 안에서의 그런 위험성은 거의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사례 7, 연극인)

폭언이나 괴롭힘. 우리가 몇 년 전에 미투운동을 하면서 많이 달라지긴 했잖아요. 그 전에는 흔했어요. 내부에서 너무 많아요. (사례 7, 연극인)

이런 거는 제가 따로 당해본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화, 관광, 교육 분야를 떠나서 프리랜서 일하면서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같은 프리랜서들이 있을 때 일에 대한 건 저한테 얘기 안하고 남성한테 얘기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좀 있긴 해요. ... 일하면서 좀 무시당한다라는 기분을 느꼈던 거고. (사례 12, 문화기획자)

□ 단체행동 경험 없음

- 모든 문화 분야 참여자들은 단체행동 경험이 없었음. 다만 일부 참여자들은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이 처한 환경이나 불합리한 노동에 대해 서로 얘기하고 권익신장을 위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나 노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음(사례 3, 5, 6). 하지만 문화 분야의 경우 다양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로 바쁘게 일

에 매진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단체로 모여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체행동 경험은) 없어요. ... 그런데 이런 단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례 3, 사진사)

(프리랜서들끼리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단체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요. ... 프리랜서 노동환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저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례 5, 극작가 & 문화기획자)

예술인들이 모여서 우리의 권익을 주장하거나 그러고 싶은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끼리 모여서 말은 하지만, 노조 만들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 우리의 권익을 해야 돼 라고 주장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사례 6, 싱어송라이터)

□ 지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일감 수주, 자체 공연도 상영

-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의 경우에는 일감 수주 방법이 주로 지인(전에 일했던 업체 등) 또는 인터넷인 것으로 나타났음.
- 예술인을 제외한 문화 분야 참여자들 중에는 예전에 함께 작업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지인 등 인적 인프라를 통하여 일감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았음(사례 3, 4, 5, 11, 12). 특히 제주도는 일감 수주시 인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음. 사례 12는 일감을 얻기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공고문들도 확인해봤지만 일감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지인 소개로 일감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였음. 또한 사례 4와 5는 프리랜서로 진입했던 초기에는 일감을 얻기 위하여 행사장이나 단체에 사람을 만나러 많이 다녀야 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음.
- 그리고 디자인이나 사진,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일감을 많이 구하고 있었음(사례 1, 2, 3). SNS나 관련 분야 인터넷 사이트에 포트폴리오를 올려놓는다든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감을 찾아서 얻기도 하였음.
- 디자이너인 사례 1은 기존의 작업물을 보고 다른 업체에서도 연락이 오기도 하여 작업물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한다고 하였음. 또한 문화기획자의 경우에는 자체 행사를 기획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기도 하였음.

지인 소개가 크죠. 지금 하는 일은 다 제주기반 행사들이어서 다 제주에서 하고 있고. 진짜 지인들 통해서 알아서 연락이 오는 분들이 많아요. 행사 참여하셨다가 연락오신 분들도 있고. ... 공연을 보러 가거나 행사에 가게 될 때는 챙겨가는 편이에요. 거기 담당자한테 드리려고. (사례 5, 극작가 & 문화기획자)

일감은 주로 직접 연락 오시기도 하는데 주로 인적인프라 활용해서 요즘 만약 예를 들어서 공기관이라면은 공기관이 어떤 분한테 요즘에 관창은 프리랜서 하시는 기획자 없으셔라고 하면 누군가 저를 추천해서 주로 추천제로 많이 일을 하고요. 그리고 제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주는 오히려 더 추천제고. 왜냐면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깐 그런 공공기관 공고문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뜨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한 번도 그걸로는 들어가 본적이 없고 거의 인적 인프라 활용해서 했고. ... 대부분 제주도 일감이예요. (사례 12, 문화기획자)

(초반에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도 무슨 모임이나 행사에 다 얼굴 비쳐야 하고 자기 어필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저는 공짜로 영상 같은 거 진짜 안 만들어줬는데 그런 것들도 몇 번 하고. (사례 4, 영상)

디자인은 인터넷상에서 얻었던 것 같아요 사이트 같은 곳. 일러스트는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런 식으로. 그림은 그림도 보통 포트폴리오를 산그림이나 그런 사이트에 올리거든요. (사례 2, 일러스트레이션)

일감은 제가 만약에 인스타그램에 뭘 올렸을 때. ... 사진은 다 다른데 제가 보정작업도 하고 있고 제가 찍는 것도 하고 있는데 찍는 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따로 올려가지고 찍으실 분들을 구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을 구하고 보정작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좀 큰 업체 같은데서 저한테 따로 한 달에 두세건 이정도 일감 얻고 있어요. ... (이 업체는) 처음에는 그냥 지인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사례 3, 사진사)

- 연극이나 음악을 하는 예술인들은 자체 공연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았으며(사례 6, 7, 9), 때때로 공연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였음(사례 6). 즉 자체 공연을 기획하는 경우는 스스로 일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일감을 수주하는 것은 아니었음.
- 반면에 국악인인 사례 8 및 플루티스트인 사례 10은 자체 공연도 하지만 주로 공연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례 8 및 10의 경우 일감을 받아오는 자는 팀 내에 정해져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일감 수주를 하고 있진 않았음. 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부분은 자체 기획. 그리고 일부 주변에서 초청공연. ... 로컬 제주 가수들, 예술인들이 많은데 다양하게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보니 자체 기획하고 거리로 나가보기도 하고 찾아가는 공연도 해보고. (사례 6, 싱어송라이터)

저희는 작품집 같은 거 희극 작가들이 써낸 작품집 보고 그거 작품을 읽고 좋은 작가협회로 연락을 해서 작품을 저희 공연 하겠다 해서 작가료를 주고 그 공연을 하는 거죠. (사례 9, 연극인)

(공연 요청은) 단장님에게 전화가 오거든요 기획사나 아니면 도에서. 여러 시청 이런데서. 재단이나 이런데서. ... 요청은 주로 제주도 내고요. 가끔 육지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거든요. (사례 8, 국악인)

□ 계약을 안 하거나 계약이 부당한 경우 있음

- 예술인을 제외한 문화 분야 참여자들은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사례 1, 2, 3, 4, 5 11, 12). 사례 1과 2, 12는 계약서를 무조건 쓰고 있다고 하였고, 사례 4는 기관과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지만 개인과의 거래 시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였음. 반면에 사례 5는 6개월 또는 9개월의 긴 기간의 계약 건인데도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있었음. 또한 급여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얘기조차 없어서 최근에는 이를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음. 사례 3은 2~3일 내에 끝나는 간단한 사진 편집 등의 작업을 하고 있어서 계약서를 쓰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예술인 참여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연 기획을 할 때는 외부와의 계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외부 공연 요청의 경우에는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팀 내부적으로도 계약을 하는 경우와 계약을 안하는 경우가 있었음.

주로 구두계약으로... 작년에는 일단 일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문제의식이 없이 막 하다가 올해부터 그런 생각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폐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야기 하고 간 게 아니어서... (사례 5, 극작가 & 문화기획자)

기관이랑 할 때는 전부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관이랑은 전부 계약을 하고 있고 개인이랑 할 때는 거의 안해요. (사례 4, 영상)

처음에 저희가 자비로 공연을 하게 되면 계약서는 쓰되 수익금의 몇프로인데 수익이 안났을 땐 없을 수도 있다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례 9, 연극인)

계약은 안해요. 그냥 연주페이가 따로 딱 책정이 되어 있어요. 1인당. ... 상황에 따라 저희가 임금지급 받고 그날 연주할 때 그 연주에 대한 계약서를 써요.(사례 10, 플루티스트)

- 일부 참여자들 중에는 부당계약체결이라든지 계약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된 경험을 한 경우가 있었음(사례 1, 3, 4, 6, 7). 사례 1은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거나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선금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급여가 너무 적은 경우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서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으며, 계약서 조항을 일부 추가하려고 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부당계약 체결 외에도 계약금이 지연된 경험도 많이 나타났음(사례 3, 4, 6, 7). 이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험들도 있었음(사례 4, 6). 사례 4는 계약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회사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었음. 이러한 모습들은 개인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이 계약 및 계약금을 받는 과정에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싱어송라이터인 사례 6은 초청받은 공연이 당일 취소되었지만 보상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도 하였음.
- 반면에 부당계약 체결이나 계약금을 못 받았거나 지연된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었음(사례 2, 5, 8, 9, 10, 11, 12).

계약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당한 내용이나 그런 게 들어가 있어도 수정하기 어렵죠. 그리고 조항 추가하거나 이러기가 어렵죠. (사례 1, 디자이너)

그냥 조금 늦어질 것 같다 했는데 일주일. 그러면 어쨌든 저는 차질이 있으니까 그건 많지는 않았는데 있긴 있었어요. (사례 3, 사진사)

지연되는 건 개인이랑 하면, 아니 계약서를 안 쓰면 거의 있는 것 같아요. ... 그리고 계약금이 차감되거나 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엄청 개인으로 하니까 돈 떼이는 경우도 있고요. (사례 4, 영상)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공연 당일 날 한 시간 전에 전화 와가지고 오늘 취소됐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래서 아무런 보상이 없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

연을 했는데 못 받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들이 있긴 해요. ... 좀 지연해서 늦게 받는 경우들은 많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고. (사례 6, 싱어송라이터)

□ 건당 급여 지급방식, 경력 산정이 되지 않는 급여

- 모든 문화 분야 참여자들은 급여가 프로젝트당 또는 건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였음. 예술인 참여자들도 요청받은 공연에 대해 건당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음. 다만 문화 기획자인 사례 5나 12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는 사전에 협의하여 한 달마다 일정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었음.
- 또한 대부분의 문화 분야 참여자들은 급여에 경력이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다만 문화기획자인 사례 11과 12는 경력에 따라 급여가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였음. 즉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급여 산정표에는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고 있어서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가 다소 증가한다고 하였음.

거의 프로젝트당 지급이 되는 거죠. 그게 건당 지급과 비슷할 것 같아요. (사례 1, 디자이너)

공연비 책정이요. 거의 건당 받죠. (사례 6, 싱어송라이터)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2개월이다 하면 다 끝나고 받기도 하고 보통은 끝나고 받습니다. 만약에 9개월 이렇게 길면 요청을 드리죠. 월말에 다 계산을 건건이 해주세요 라고. (사례 12, 문화기획자)

조금 더 늘어나긴 할 것 같아요. 공공기관 이런데서. 그런데 보면 근속기간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학력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거 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시간당으로. 그리고 기획자 전문가로 참여를 할 때도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근속기간에 따라서는 달라지죠. (사례 11, 문화기획자)

경력이 정말 30년 됐다고 더 많이 주고. 10년 됐다고 조금 주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사례 6, 싱어송라이터)

□ 급여 외의 지원 거의 없음

- 대부분의 문화 분야 참여자들은 급여 외에 받고 있는 지원이 없다고 하였음. 즉 복리후생이나 장비 지원 등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었음(사례 1, 2, 3, 4, 5, 6, 7,

8, 10, 12). 사진사나 문화기획자인 참여자들은 고사양의 장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워했으며, 장비가 거의 고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또한 사례 12에 따르면 회의를 해야 할 때가 많은데 회의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커피숍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사비로 회의비를 지출할 때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음.

- 다만 문화기획자인 사례 11은 복리후생이나 장비 지원 등은 안 되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재료비는 따로 지원되고 있다고 하였음. 그리고 연극인인 사례 9는 도 또는 시에서 조명기나 임대 보조 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고 하였음.

이런 건 받은 적이 없어요. ... 장비는 되게 비싸가지고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사례 3, 사진사)

업무회의비라든지 미팅비 이런 게 따로 잡혀져 있지 않을 때 그냥 사비 지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 자산취득 같은 건 안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 장비로 제가 저한테 투자하듯이 제가 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12, 문화기획자)

도인지 시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극장이 많이 가장 필요한 조명기 이런 거는 약간 지원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상한선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 저것도 있어요. 집세 약간 보조해주는. 임대료 보조해주는 지원도 있긴 있어요. (사례 9, 연극인)

4) 소득 및 일의 안정성 정도

□ 불규칙한 소득으로 불안함

- 많은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은 일감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소득도 계속 불규칙하게 발생하여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음(사례 1, 3, 6, 8, 11, 12). 소득이 발생하는 달도 있지만 소득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달도 있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즉 매달 보험료, 대출금, 공과금 등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출을 채우지 못할까봐 항상 부담을 갖게 된다고 하였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적금 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만약에 남편이 없었다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차를 샀을 때 차 할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집을 샀을 때 집에 대한 어떤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큼직큼직한 것들 있잖아요. 보험료라든가 집세 여러가지 관리비 이런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죠. (사례 1, 디자이너)

일단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요 ... 그냥 돈이 일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니까 들어올 때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이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점에 서 약간 불안하게 살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사례 3, 사진사)

일이 없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물론 구인을 하고 다니지만 일이 없으면 한 달 쉰 때도 있고 이렇게 두 달 쉰 때도 있고 이런 게 일이 떨어지면 끝이라는 게 가장 큰 애로점이에요. ... 상시적인 월급 개념이 없다는 것. 이게 엄청 큰 것 같아요. (사례 12, 문화기획자)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경제적인 불안정한 수입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1년을 보면 1,2,3월. 12월,1,2,3월은 수입이 거의 발생이 안돼요. 일거리도 없을 뿐더러 뭔가 되게 움츠려드는 시기예요 연말 연 초는. 뭔가가 축제도 되게 세팅되어진, 계획되어지는 기간이다 보니까 예술교육도 마찬가지로 방학기간,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럴 땐 수업이 없고. (사례 6, 싱어송라이터)

□ 창작하는 어려움에 비해 적은 대가

- 참여자들 중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하는 어려움과 수고에 비하여 보상은 적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었음(사례 1, 3, 6, 11, 12). 특히 문화기획자인 사례 11과 12는 관공서에서 정해진 지급 기준의 단가가 낮아서 급여 자체가 적다며 불만스러워하였음. 또한 전문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처우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급여가 획일화되어 있었음.
- 또한 사례 1과 12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소득을 말해도 1인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요구한 금액을 삭감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음.

저도 그렇게 제가 전에 했던 일도 그렇고 전에 했을 때는 엄청 적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소득 정도도 지금은 대부분 그냥 다르긴 한데 조금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사례 3, 사진사)

저는 프리랜서들은 소득이 하는 일에 비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관공서나 그런데서 정한 기준이 너무 짜고요 사실. 하나 하나 프리랜서가 본인의 영혼을 갈아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말도 안되는 기준에 맞춰서 감사비나 이런 기획비 같은걸 주는 것 같아서 아직도 문화예술, 문화 전반적으로 일을 했을 때 그거에 합당한 선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소득의 기준이 너무 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노력이 되게 큰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작단 생각이 들어요. (사례 11, 문화기획자)

지금 소득은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는 되게 낮아요.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올려주시진 않더라고요. 제주가 타지역에 비해 프리랜서에 대한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여겨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보면. (사례 12, 문화기획자)

그거 플러스 1인 프리랜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건비나 비용을 제대로 안줘도 된다는 생각이 만무해요. 그니까 혼자 일하는 건데 기업이랑 똑같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사례 1, 디자이너)

- 반면에 사례 4와 8, 10은 현재 하는 일에 비해 소득은 적절하다고 하였음. 특히 사례 4는 프리랜서로 일한지 5년차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소득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다만 일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안함과 어려움은 크다고 하였음.

딱 일한만큼 딱 그 소득이 나오는 거라서 사실 그냥 적다고는 생각하진 않고.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 소득만 들어오니깐 소득이 적절하다고는 생각하고 일의 안정성이 불안하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사례 10, 플루티스트)

□ 예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투잡, 쓰리잡은 필수

- 모든 예술인 참여자들은 예술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 레슨, 방과후강사, 예술강사, 다양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음. 예술인들은 예술 작업만을 하면서 필요한 경제적인 소득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었음. 특히 예술 작업으로 인한 수입은 부수입 정도이며, 주 수입이 오히려 다른 일거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면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예술 활동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음.
- 연극인 참여자들은 공연을 일 년에 5번 정도 하는데 한 번 공연할 때 마다 30~50만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으며, 공연으로 수익이 생기지 않을 때는 아예 출연료를 받지 않기도 하기에 공연 출연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였음(사례 7, 9).

- 예술인 참여자 중에는 낮에는 경제적 수입을 얻기 위해 부가적인 일들을 하고, 저녁에는 팀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사례 6, 7, 9). 이처럼 낮과 밤 모두 쉼 없이 일하다 보니 저녁에 친구를 만나거나 여가생활을 누리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하였음.

경제적인 면이고요. 그걸 극복하지 않는 이상은. ... 계속 하긴 힘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술만하고 살진 않고 다 이중 일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극강사로 가기 전까지는 슈퍼 알바도 하고 겨울에 봉어빵 알바도 하고 하면서 지냈고.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연습을 해요. (사례 7, 연극인)

극단을 운영하는 거죠. 만약에 티켓 포스트를 해가지고 티켓을 팔아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하지만 수입이 생기려고 노력을 해요. ... 보통 1년에 5회 공연을 한다고 치면 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정도 받아요. 50만원 받아도 1년에 250만원인거예요. 그게 말이 안되니까 다른 일을 하는 거고요. ... 근데 우리는 6시까지 일을 하고 6시 이후에 또 가서 연극 연습을 하면 10시 11시 12시에 끝나서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 공연이 한번 잡히면 넉 달 하는데 거의 다른 사람과의 생활이나 다른 문화생활이나 취미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사례 7, 연극인)(사례 7, 연극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실은 연극해서 못 먹고 살아요. ... 저희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낮에는 살짝 아르바이트 하고 저녁에 연습하고 그게 주로 이루어지는 게 ... 내가 연극하는데 피해보지 않을 만큼의 일을 하는 거죠. 하루에 몇 시간. 파트타임으로 하는 알바. 식당에서 그릇 닦는 것 몇 시간. 마트에서 정리하고 이러는 것 몇 시간. ... 정기적으로 직장을 다니다보면 실은 야근이니 뭐니 이렇게 연습 참여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다보니 못하게 되는 거죠. (사례 9, 연극인)

연주는 거의 많으면 한 달에 2~3번도 있고 없으면 3개월에 한번 이렇게도 되는데 저희가 연주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깐 주수입은 방과후강사나 개인레슨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연주는 연주페이드 연주페이만으로는 주수입이 되기는 너무 힘들고 연주만으로 저희 주수입이 되기에는 너무 불안정하고. (사례 10, 플루티스트)

□ 계속되는 새로운 작업 활동으로 고용 불안정 컸음

- 사례 8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프리랜서는 일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음. 특히 문화 분야는 디자인, 사진, 영상, 문화기획, 예술 공연 등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작업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새로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더 이상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하는 마음이 매우 컸음. 즉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분야에서 프리랜서라 더욱 심한 고용 불안정을 느꼈음.

- 그렇다보니 들어오는 일은 당장 하는 일이 너무 많거나 불합리해도 다음번에 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하여 무리하게 몸을 혹사하며 일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도 일정 부분 감수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있었음(사례 1, 4, 5, 12).
- 사례 1은 프리랜서는 일을 중간중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또한 프리랜서가 지닌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다른 여성들보다 더욱 다시 일을 시작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음(사례 1, 6).
- 예술인들은 해마다 공연 활동이나 개인레슨, 방과후강사 등의 일정이 바뀌고 있어 불안정을 많이 느끼고 있었음. 사례 10은 개인레슨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강사도 해마다 계약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연초에는 많은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하였음.

더 괜찮은 프리랜서나 기업이나 디자인 업체가 나오면 그러면 그쪽으로 충분히 일이 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안하죠. ... (일감이 안들어 올 것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있죠. (사례 1, 디자이너)

미래에 대한 것도 지금 제가 어리고 좀 젊은 감성이 있으니까 선배들이 찾아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들고 뭔가 좀 어떤 판단력이 생겼을 때에 저를 찾아줄까? 라는 생각도 들고. ... 제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들이 3년 5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정성이 있고요. 이 프로젝트를. (사례 5, 극작가 & 문화기획자)

일단 일을 구할 때 사실 공식적인 어떤 루트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깐 암암리에 알아보고 주변에 알아보고. 너무 방대하니까 제가 곳곳에 찾아보면서 일감을 구해야 되잖아요. 다음 일에 대한 불안함. (사례 11, 문화기획자)

저희는 퇴직금도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도 전혀 쉬는 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애기 낳은 경우에 더 그렇죠. 제가 진짜 아등바등해

서 다시 업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또 뭐 일이 수주가 안 들어온다면 그냥 도태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사례 1, 디자이너)

1년에 내가 몇 번을 공연하게 될지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엔 어떻게 될지 불안정한 거죠. (사례 7, 연극인)

막상 일을 시작하면 그런 스트레스는 없는데 연 초에 여기저기 (방과후강사) 계약서 작성하러 가고 원서 내려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좀 스트레스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개인레슨도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계속 쪽 가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몇 년도 하겠지만 짧으면 짧게도 하고. 이 스케줄이 계속 바뀌어요. 특히 한해 지나서는 아예 새로운 스케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례 10, 플루티스트)

5)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 행사 및 공연 등 연기취소로 급격한 일감 감소에 따른 불안정 심화

-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은 코로나19로 매우 큰 타격을 입었음. 즉 이들은 일감이 불규칙해서 소득도 불안정한 특징이 있고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컸는데 코로나19로 이러한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났음.
- 공연이나 행사 등이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되면서 공연을 직접 하는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행사에 따른 디자인이나 영상, 문화기획 등을 담당하는 참여자들도 일감이 급격하게 감소했음. 즉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나 공연 등을 주요 업으로 삼고 있는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음. 문화기획자 사례 11은 거의 90% 정도로 일감이 줄었다고 하였음. 또한 예술인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공연들이 취소되기도 하였음. 이 외에도 참여자들 중에는 강의나 방과후강사 등 투잡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해당 직업들도 코로나19로 거의 강의가 없어져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음.
- 작년 7-8월에는 코로나19로 제주도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행사를 거의 하지 못해서 매우 어려웠으며, 올해 들어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 조그마한 행사들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나아졌다고 하였음(사례 10, 12).

기관들이 어쨌든 간에 코로나 상반기에는 행사나 이런 게 다 취소되고 못하고 일 자체를 거의 못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그런 일을 받는 프리랜서들의 일은 없는 거고. 그때는 진짜 일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례 1, 디자이너)

제주도 영상이 제주도가 사기업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엄청 공공기관에 의존해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그런 것들, 프로그램들 많이 없어지니까 여기서는 되게 안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 코로나 후에는 일단 강의가 다 취소되고, 그 다음에 외주 양성하는 곳들도 해서 거의 일이 없다고 봐야겠죠. (사례 4, 영상)

특히 코로나 때는 사람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 문화라는 게 사람이 모여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켜고 줌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정성이 더 희박해져서 축제나 행사나 이런 거 기획하시는 분들은 거의 90퍼센트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사례 11, 문화기획자)

그 작년이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7~8월이 정말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주도가 더 격상 단계가 심해가지고 정말 행사를 거의 못해서 이제 작년이 정말 어려웠고 최근에는 그래도 좀 풀려가지고 조금 조그마한 것들은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작년이랑 올해가 똑같은데 이게 불안한건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는 게 제일 불안해요. (사례 12, 문화기획자)

코로나로 불안정성. 코로나로는 완전 모든 상황이 정체되어 있잖아요. 특히 예술계 쪽에 공연은 대면공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팀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다 취소되고 집합금지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례 6, 싱어송라이터)

코로나 이후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면을 하지 않으니깐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일이 작년에 아예 없었어요. (사례 7, 연극인)

특히 작년엔 거의 없었어요 아예. 그런 연주가 사실 그게 제일 애로점이긴 해요. 코로나 때문에 연주도 못하고 수업도 못하고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사례 10, 플루티스트)

□ 예술인들의 없던 수입이 더 없어짐

- 예술인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없던 수입이 더 없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음. 대부분의 예술인 참여자들이 수입이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였음. 공연 등이 모두 취소되고 금지되는

상황이다 보니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이 아예 없어져서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을 하는 참여자들도 있었음(사례 6, 8). 또한 사례 7은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을 해약하기도 하였음.

- 또한 싱어송라이터인 사례 6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공연을 준비하고자 비디오와 컴퓨터 등 각종 비대면 공연 장비를 샀음.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비대면 공연 장비를 대출로 장만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악화되었음.

그 시기에 아예 전혀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른 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예술 활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생활이 안 되는데. 그래서 대출을 계속 받았죠. ... 그냥 금지. 축제 취소, 예술교육도 연기, 대면금지, 집합금지. 이렇게 되니까 생활적인 면에서 대출을 계속 여러 차례 받았어요. (사례 6, 싱어송라이터)

비대면 공연할 수 있는걸 연구를 했고 그걸 하려면 또 장비를 구입해야 해요. 비디오 사고 장비 사고 컴퓨터 사고. 대출 받은 걸로 비대면 영상 촬영을 작년에 여러 차례 진행을 해봤어요. 이 상황이 코로나로 시대가 아예 전환이 되어버렸구나 싶어서 아예 그래서 장비 열심히 샀습니다. (사례 6, 싱어송라이터)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취소되니 없던 수입이 더 없어지는 거죠. 작년에는 그나마 공연으로 했던 얼마 안 되는 수입이 제로였어요. 아르바이트나 그거 하지 않았으면 아마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 저축은 아니고 보험을 해약했죠. 일반적인 여성 보험 든 게 또 있었거든요. 여성보험 든 건 다 해약하고 일반보험만 남겨놓고. (사례 7, 연극인)

우선 생활비를 기본적인 생활비가 잘 안되고. ... 마이너스통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례 8, 국악인)

그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수입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례 10, 플루티스트)

□ 프리랜서 코로나19 지원금

- 문화 분야 참여자들 중에는 프리랜서 코로나19 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았음(사례 1, 2, 4, 10, 11, 12). 지원금을 일부만 받은 이유로는 출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하지 못했던 기간은 빠진 경우(사례 1)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프로젝트 하던 것이 있어서 지원금 소득 기준을 넘는 소득 발생으로 인하여 지원금을 일부 못 받은

경우(사례 12)가 있었음. 이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음. 다만 생계에 아주 큰 도움이 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었음.

- 하지만 문화 분야 참여자들 중에는 코로나19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도 많았음(사례 3, 5, 6, 7, 8, 9). 특히 예술인 참여자들 중에는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예술인들 중에는 예술강사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원을 받지 못했음. 사례 7은 예술인의 경우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다른 부가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코로나19 지원금은 이 부가적인 일들을 한다는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아 비합리적이라고 하였음. 이 외에도 예술인이 아닌 참여자 중에는 소득 증명을 못하거나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한 사례들도 있었음(사례 3, 5).

도움이 엄청 됐고. 자기계발로 썼으면 좋았을텐데 엄청 다 생계로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사례 4, 영상)

사실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것보다는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시다. (사례 12, 문화기획자)

방과후강사 말고 다른 걸 또 하고 있으면 그걸로는 못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도 다른 알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장애인활동보조 이 알바는 계속 했거든요. ... 여기 들어있어서 안됩니다. 월급 받아서 안됩니다. ... 프리랜서만으로 일하기 힘들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프리랜서로 코로나19 복지를 받으려고 하니 까 이 알파 때문에 프리랜서를 못 받는거예요. 너무 비합리적이예요. (사례 7, 연극인)

6) 불완전한 사회보장제도

- 문화 분야 참여자들 중에는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사례 1, 2, 4, 5, 6,) 부모님이나 남편 피부양자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였음(사례 3, 8, 9, 10, 11). 다만 사례 7과 12만이 직장가입자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이유는 연극인 사례 7은 장애인활동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4대보험을 지원해주고 있었으며, 사례 12는 세계유산축전 사무국에서 국가보조금사업으로 계약을 했는데 해당 국가보조금사업을 진행할 때는 관계자들에게 4대보험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음.

-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참여자도 있었으며(사례 1, 3, 4, 8),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사례 2, 5, 6, 10, 11). 다만 사례 7과 12는 앞서 기술한 바대로 직장가입자로 연금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연극인 사례 9는 예술강사를 하고 있는데 예술강사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빼고 3대보험의 가입을 지원하고 있어서 직장가입자로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돼서와 수혜 체감이 낮아서가 가장 많았음. 특히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안하다 불규칙적으로 일하다보니 연금보험을 내지 않게 되기도 하였음.

 월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여력이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 월 할 여력이 안돼요. (사례 6, 싱어송라이터)

 왜 그거 나중에 우리 노인 되면 못 받는다 이런 얘기 많아서 중간에 끊긴 상태에서 안냈던 것 같아요. ... 부담스럽고 뭔가 차라리 다른 주식이나 이런데다 넣는 것 같아요. (사례 2, 일러스트레이션)

 일을 했을 땐 내라고 날아오잖아요. 냈다가 일을 너무 없으면 제가 국민연금 공단에다가 제출해서 지금은 일을 안하고 있고 이런 거 입증하면 안내도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안내고 있어요. 연금은. (사례 11, 문화기획자)

 프리랜서다보니까 제가 만약에 국가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사대보험을 가입시켜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은 11월까지는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례 12, 문화기획자)

- 참여자들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거의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음. 프리랜서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지금껏 거의 없었기 때문임.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예 가입조차 되지 않고 근로자처럼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도 일부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보호는커녕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많이 느끼고 있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받아본 프리랜서 지원금은 참여자들이 이례적으로 프리랜서로서 사회적으로 지원받았구나 하고 느꼈던 지원이었음.

이번에 코로나19되고 나서 프리랜서 관련 지원이 있긴 있었잖아요. 그게 있었을 때 되게 이례적인 것이었고 나라에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달고 지원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나 했을 때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번년도에 그래도 내가 사회 일원으로써 명명이 되고 정치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생각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장받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직장인에 비해서 너무 없으니까. (사례 1, 디자이너)

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코로나나 이럴 때 딱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대보험 이런 것도 그렇고 뭔가 딱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례 3, 사진사)

솔직히 잘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그니까 프리랜서 하면서 어쨌든 혼자 고군분투한다는 생각이 많기도 하지만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국가가 뭔가를 해주고 있다. 그 이것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어라는 건 잘 못 느껴본 것 같아요. ... 산재나 고용보험도요. 왜냐면 어쨌든 그런 보험들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을 때 당장 제가 큰 돈이 있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게 안된다고 하니까. (사례 12, 문화기획자)

제도가 있어서 뭔가를 보장해주고 있어라고 보호해주고 있어라고 생각되는 건 없죠. ... 연락 와가지고 사회보장제도에 이런 애길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있다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뭔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전혀 없죠. (사례 6, 싱어송라이터)

7) 프리랜서로 일하면서의 긍정적인 점

□ 자유로운 시간 사용

- 대부분의 문화 분야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시간을 조율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음(사례 1, 2, 3, 4, 5, 6, 7, 8, 10, 12). 낮에 일을 하건 밤에 일을 하건 마음대로 일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시간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였음.
- 다만 참여자들 중에는 이러한 자유로운 시간 사용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하였음. 즉 업무 마감을 해내야 하는 책임자로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시간을 낮밤 없이 계속 사용하여 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음.

긍정적인 점은 어찌되었든 시간을 좀 남 눈치 안보고 쓸 수 있다는 것. 남한테 피해를 안주고 쓸 수 있다는 것. ... 근데 혼자 하면 어찌되었든 밤에 하든 낮에 하든 아침에 하든 그걸 제가 유연하게 할 수가 있고. 애기 아플 때에도 그냥 쓸 수 있으니까. (사례 1, 디자이너)

긍정적인 점은 시간 출퇴근이 딱 정해지지 않으니까 점심시간을 3시간 써도 되고 밤에 또 일을 해야하지만 그런 식으로 시간을 혼자 질질 끌 수 있는 것. 그게 긍정적인. 자유로운 것. (사례 2, 일러스트레이터)

이거를 제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이 엄청 자유로운 것. 이 긍정적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례 11, 문화기획자)

프리랜서 장점은 아무래도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이기도 해요. (사례 6, 싱어송라이터)

□ 자녀 돌봄에 좋음

-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중인 참여자들 중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녀 돌보는 것에 좋다고 하였음(사례 1, 8). 회사를 다니면 아무래도 아이가 아프거나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야 하거나 하는 등 많은 일들이 발생할 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음. 휴가를 쓰더라도 회사 일정이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 편히 불일을 볼 수가 없다고 하였음. 이에 반하여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할 때도 마음 편히 자유롭게 돌봄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음. 또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경우에는 하교 시간이 매번 다른데 이런 경우에도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으며, 신학기에 아이 돌봄으로 바쁘면 일을 줄이는 등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였음.

아이가 갑자기 아침에 예방접종을 하러 가야 되거나 병원을 가야 되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을 때 프리랜서로 하게 되면 그때그때 변수에 맞춰서 쓸 수가 있는데 직장 다니면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 학교 가고 나니까 방과후 학원 이런 게 자로 잔듯이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4시 몇 분에 끝나고, 어떤 날은 5시 몇 분에 끝나고 할 때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고. ... 신학기고 그래서 좀 제가 제 역할이 조금 커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일을 살짝 지금 일을 줄인 상태. 자유로우니까 그냥 아프면 병원 갔다가 밤에 일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죠. (사례 1, 디자이너)

더 좋은 점은 육아를 할 때는 아이를 돌보는 게 조금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이 돌봄이 좀 더 우선이어 가지고 조금 더 아이한테 가정에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사례 8, 국악인)

□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자아실현 성취

- 문화 분야 참여자들 중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프리랜서 일을 선택했고, 좋아하는 일이라 매우 좋다고 하였음(사례 5, 6, 7, 11). 이처럼 이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을 성취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음. 즉 문화 분야 참여자들은 자신이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경향이 강했고, 창작을 하는 즐거움 때문에 현재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 매우 만족해하였음.

긍정적인 것은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누가 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자아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나게 할 수 있고 그게 다 내 일이고 내 경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하고 싶은 일을 펼칠 수 있다라는게 좋고. (사례 11, 문화기획자)

가장 좋은거는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마음과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 같아요. 나누고 있다라는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사례 6, 싱어송라이터)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 하면서 즐겁잖아. 난 그 말에 공감하는 게... 다른 프리랜서랑 상관없이 다른 예술보다 연극이 재미있고 좋은 건 많은 사람과 같이 있어서 좋아요. ... 내가 지금 하고 싶은걸 하니까 너무 좋아요. (사례 7, 연극인)

□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음

-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다양한 작업이나 업무를 할 수 있어서 만족해하는 문화 분야 참여자들이 있었음(사례 1, 4, 5). 회사라면 편집이면 편집, 주어진 작업만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리랜서는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총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이해도나 만족감이 높아졌음. 또한 회사를 다녔다면 극작가와 같은 창작이라든지 관련 분야 강사나 문화기획 등을 할 수 없었을텐데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아하였음.

좀 주도적인 성격이라면 더 흥미를 느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A부터 Z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이해도가 훨씬 높고요. ...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일을 해내고 끝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 끝냈을 때 만족도가 직장 다녔을 때 보다는 훨씬 높아요. (사례 1, 디자이너)

긍정적인 점은 만약에 영상 편집 회사를 들어가면 딱 편집만 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제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영상 편집도 하고 문화기획 같은것도 관심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일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감사 같은 것도 일을 하고 되게 복합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사례 4, 영상)

회사 다니면서 창작하긴 어렵다고 말한 것처럼 프리랜서로 하면서 제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창작할 시간이랑 업무 시간이랑 공부할 시간 이런 시간들이 되게 유동적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례 5, 극작가 & 문화기획자)

8) 프리랜서로 일하면서의 애로점

□ 불규칙한 시간 사용의 어려움

-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은 불규칙한 시간 사용의 어려움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음 (사례 3, 4, 5, 11, 12). 디자인, 사진, 영상, 문화기획, 공연 등 문화 분야에서는 급작스럽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갑자기 장시간 일을 해야 하기도 하였음. 또한 일이 몰릴 때는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해야 하고, 한가할 때는 너무 한가해서 불규칙한 시간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프리랜서의 특징상 지금 들어오는 일들을 받지 않으면 언제 일감이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도 들어오는 일들은 모두 받아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몰리는 경향도 나타났고, 반대로 일감이 없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 모습이었음.
- 또한 사례 3은 일과 자기 시간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도 하였음. 불규칙한 작업 시간으로 인하여 일 이외의 생활시간이 무너지기도 하였음.

갑자기 일을 막 해야 되는 몰아쳤을 경우에는 밤을 막 새는 일도 많고. 일적인 것도 되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몰아칠 땐 너무 바쁘고 너무 바쁘고. 또 한가할 땐 너무 한가하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시간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죠. (사례 11, 문화기획자)

바쁠 때는 일상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고. 널널할 때는 또 널널해요. 쉴 때는 보통 병원 다니고 일할 때는 병 얻고. (사례 4, 영상)

일단 제가 여기에서 경력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다보니까 일 들어오는 걸 거의 거절하지 못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프로젝트에 끌려다니는 감이 있어요. 하자고 하는 것을 일단 다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센터를 수료하고서도 일을 계속 하려면 지금 다 받아줘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녁이 없죠. 맨날 밤 12시까지 일하고. (사례 5, 문화기획자)

시간이 자유롭되 밤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계속 일에 매달려야 하는 것들도 많고 그런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문화부분은 내일 당장 이걸 해야 돼요. (사례 12, 문화기획자)

□ 문화작업 외에도 행정 등 모든 일을 홀로 감당

- 문화 분야 프리랜서는 주로 하는 문화 작업 외에도 일감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객과의 미팅, 잡다한 행정 등을 모두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회사였다면 일감을 구해오는 일이나 행정 처리 등은 다른 팀이나 사람들이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자신이 감당해야 하니 번아웃이 빨리 오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음.

프리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일을 해야하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했으면 작업을 따오거나 그런 돈이나 이런 행정처리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작업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했겠지만 프리랜서는 그게 아니어서... 좀 번아웃도 빨리 오는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례 4, 영상)

예전에는 진짜 일만 기획서만 쓰고 일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책정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의 책임 같은 것들도 혼자 다 안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좀 방어적이 되어버린 것 같고. ... 제가 지금 피디나 기획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팀이 필요하다 또 다른 제작물팀이 필요하다 아니면 시스템팀이 필요하다 하면 다 저한테 어쨌든 프리랜서로 고용돼서 다 저에게 얘기를 하시다보면 제가 이걸 다 끌어와야 되니까 이거를 혼자서 다 감당하긴 너무 벅차지 않나. (사례 12, 문화기획자)

모든 걸 다 해야 해요 우리가 스스로. 공연한번 하려면 기획부터 예산 모으는 거, 홍보 그 다음에 무대 세팅. 내가 노래해야하는데 당일 날 의자 깔고 다 해야하잖아

요. ... 그런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다 직접 해야 되는데 만능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한
 계는 분명 있는 거잖아요. (사례 6, 싱어송라이터)

□ 예술인의 연습 공간 부족

- 예술인들은 연습 장소 부족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음(사례 6, 7, 9, 10). 함께 하는
 연극이라든지 연주회 등과 같은 공연을 상연하기 위해서는 개인 연습실 외에도 팀
 연습실이 필요한데 이런 연습 공간을 찾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
 였음. 즉 공연 연습 공간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비싸서 부담이 컸음.
- 이들은 한 달이나 며칠 단기간 이루어지는 공연을 위한 공연장보다 매일 같이 해야
 하는 연습실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음.

공간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도 되게 연습실을 빌리는 문제. 그니까 그냥
 공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작업실이 필요할거 아니에요. 연습해야 되고 연습
 실을 빌리기도 되게 어렵고 제주도 임대료도 되게 많이 올라서.... (사례 6, 싱어송라
 이터)

연습 장소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 ... 그 경제적인 수입이 별로 없는데 십시일반
 단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연습실을 마련해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집세 임대
 료를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죠. 가난한 예술단체들은 그런 게 많이 어렵
 죠. 연습장소가 없는 것. (사례 9, 연극인)

9) 앞으로의 계획

- 많은 문화 분야 참여자들이 프리랜서를 지속하고 싶다고 하였음(사례 3, 5, 6, 7, 8,
 9, 10). 특히 예술인은 모두가 프리랜서를 지속하고 싶어했음. 다만 플루티스트인
 사례 10는 도립교향악단 등에 자리가 있다면 이런 곳에 취업하고 싶지만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프리랜서를 지속하고 싶다고 하였음. 또한 극작가 & 문화기획자
 인 사례 5는 이후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에 소속되고 싶어했음.
- 이밖에도 프리랜서를 지속하거나 취업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참여자도 있었으며(사
 례 1), 40대까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이후에는 창업을 하고 싶다는 참여자도 있었
 음(사례 2).

전 계속 (프리랜서를) 할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례 7, 연극인)

연주 도립교향악단이나 서귀포관악단이나 이런데 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취업을 하고 싶고. 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근데 그런 연주단체에 취업을 못하는거면 계속 프리랜서를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례 10, 플루티스트)

- 영상 작업을 하는 사례 4는 프리랜서가 자신과 정말 잘 맞고 좋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감이 급감하여 프리랜서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취업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음. 취업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이 받고 싶다고 하였음.
- 이에 반해 문화기획자인 사례 11과 12는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였음. 특히 사례 12는 자신을 서포트해주는 직원들과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창업을 원하고 있었음. 그리고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사례 11은 신규 창업할 때 지원되는 제도들을 이용하고 싶어 했으며, 창업지원비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받고 싶어 했음. 사례 12는 구인 및 구인이 매칭된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더불어 인건비 지원을 원하였음.

저는 프리랜서 잡이 되게 맞고 좋은데 (코로나19때문에) 일이 진짜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서. 그래서 좀 취업을 알아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례 4, 영상)

저도 이게 신규창업했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서 지원비 같은 것도 받고 싶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업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걸 활용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례 11, 문화기획자)

프리랜서보다는 창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제 팀들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제가 혼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다보니깐 이 일을 나 혼자 할 수 없고 누군가 날 서포트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이 제일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례 12, 문화기획자)

구인에 대한 루트라든지 그 다음에 매칭해주는 저랑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매칭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 이 사람에 대한 훈련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인건비 지원도 받고 싶고요. (사례 12, 문화기획자)

10) 지원받고자 하는 정책 욕구

□ 사회보험이나 출산육아 지원 등 사회적 보호장치 필요

- 문화 분야 참여자들은 프리랜서로서 사회적으로 많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음. 그래서 이들은 다양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음(사례 1, 3, 11). 특히 고용보험의 수혜라든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과 같은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지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하였음.
- 프리랜서는 언제든지 일이 끊길 수 있고, 근로자보다 더욱 불안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출산이나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더욱 심화될 위험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심화된 위험들로부터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싶어 하였음.

일이 끊겼을 때 뭔가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3, 사진사)

저는 고용보험인것 같은데요. 사회보장제도가 좀 잘되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프리랜서 일했을 때 가장 진짜 이렇게 했던 게 항상 일을 그만둘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 11, 문화기획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 육아 관련해서 프리랜서를 위한 정책지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례 11, 문화기획자)

출산이나 육아 관련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장인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 휴직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일할 순 없으니깐요. (사례 1, 디자이너)

□ 장비 및 공간 지원

- 일부 문화 분야 참여자들은 장비 공유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사례 1, 3, 4). 문화 분야의 경우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음. 예를 들면 디자이너는 사양이 좋은 프린터기가 필요했으며, 영상 작업을 하는 이는 고가의 카메라가 필요하기도 하였음.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오롯이 개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였기에 장비 지원이나 공유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레이저프린터기가 한 달에 최소 십 얼마부터 시작해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그거를 얼마 쓰지도 않는데 그래도 꼭 필요해요. 계약서를 출력한다든가 아니면 샘플 출력한다든가 레이저 프린터기가 꼭 필요한데 그걸 혼자 온전히 감당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공용으로 구하고 그런 프린트 서비스나 프린터기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 일부. (사례 1, 디자이너)

일단 개인작업자가 컴퓨터나 이런 게 엄청 사실 편집하려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걸 쉽게 빌릴 수 있으면 좋긴 해요. (사례 4, 영상)

- 그리고 많은 문화 분야 참여자들이 프리랜서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사례 1, 3, 6, 7, 9, 10). 작업실이나 모임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공유하거나 지원해주는 것을 원했음.
- 또한 예술인의 경우에는 연습실의 부족과 비용 부담이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연습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연습실의 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지길 바랬음.

뭔가 약간 스튜디오 같은 거를 쓸 수 있게 공유해줄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비 같은 거나. ... 작업실이나 그냥 모임 같은 거나요. (사례 3, 사진사)

저는 코로나만 끝나면 공유공간은 무조건 필요는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저도 일을 많이. (사례 1, 디자이너)

사실 저처럼 작업실을 그냥 제 사비로 해서 구하잖아요 보통.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것이 되게 실질적인 것 같아요. (사례 1, 디자이너)

극장 대관보다는 연습실이 저는 더 다가왔기 때문에 연습실 얘기를 한 거고요. 왜냐하면 극장은 공연은 해봤자 5일 정도밖에 공연하지 않아요. 근데 연습은 두 달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6시부터 10시 12시까지 연습실을 빌려주는 덴 없어요. (사례 7, 연극인)

매해 활동하는 단체들에는 어떤 지원을 건물 임대료 지원을 고정적이게 해준다거나. (사례 9, 연극인)

□ 문화 분야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 필요

- 참여자들 중에는 문화 분야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사례 3, 5, 11). 서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었음. 특히 프리랜서로 일한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더욱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소통의 장에 대한 목마름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아예 전문분야에서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의 소통의 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사례 3, 사진사)

어떤 프리랜서가 되기 위한 모임 같은 것들이 공적으로 있으면 서로 모여서 저는 이런 거 해요 하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없다보니깐. (사례 11, 문화기획자)

조언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또 내가 한 10년 뒤에도 프리랜서를 하고 있을 때 내 또래 지금의 내 또래 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 같은 게 점점 생겨요 계속. (사례 5, 극작가 & 문화기획자)

□ 프리랜서 플랫폼 필요

- 참여자들 중에는 프리랜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사례 5, 11, 12).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프리랜서들을 지원해주는 도 부서라든지 중간기관, 플랫폼 등이 없음. 그래서 사례 5는 도에서 프리랜서를 지원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길 원했으며, 프리랜서 지원센터도 생기길 희망하였음. 또한 사례 11과 12는 프리랜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 하였음.
-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해당 플랫폼에서 일자리 소개도 해주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고, 세무나 회계 등과 같은 특강도 열어주고,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와 협업할 수 있는 지원 등도 이루어졌으면 하였음.

도에서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좀 협업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례 5, 극작가 & 문화기획자)

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지원센터에서 또 다른 프리랜서 선배들이랑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런 지원센터가 있으

면 고용보험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근로계약서나 이런 세무, 회계 특강 같은 것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사례 5, 극작가 & 문화기획자)

일자리를 뭔가 소개해준다거나... 분야별로 어떤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진행할 건데 여기 이런 전문가들 프리랜서분들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자리플랫폼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례 11, 문화기획자)

프리랜서 등록을 했다면 이런 프리랜서를 클라이언트도 볼 수 있고 우리도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떤 프로젝트를 구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정책사이트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 같은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있는 프리랜서랑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하나만 있어도 엄청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 12, 문화기획자)

□ 표준계약서 등 마련 및 공유

- 사례 4는 프리랜서 맞춤형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의무화되길 원하였음. 프리랜서들의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고객인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고 의무화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겼음.
- 또한 사례 1은 표준산업디자인 단가가 공유되길 바랬음. 현재 표준산업디자인 단가가 적절한 금액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시중에는 많이 공유되어 있지 않아서 홍보 등을 통하여 해당 단가가 공유되고 계약 시 사용될 수 있길 희망하였음.

표준계약서 이런 게 엄청 뭐랄까. ... 프리랜서 작업에 맞는 표준근로계약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좀 의무화 되었으면 좋겠다. (사례 4, 영상)

표준산업디자인 단가가 서로 공유되고... (사례 1, 디자이너)

□ 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 및 경제적 지원

- 많은 예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 등이 모두 취소되고, 부수입으로 일하고 있던 방과후강사, 예술강사, 개인 레슨 등도 많이 취소됨으로써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 그래서 이들은 더욱 공연 기회를 보장해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사례 6, 8, 10). 또한 사례 10은 음악 등 예술 분야 방과후강사 수업 시수를 좀 더 늘려주었으면 하고 바랬음.

무대에서 더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장. (사례 6, 싱어송라이터)

공연수도 그렇고 그러한 자리를 좀 많이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사례 8, 국악인)

내년에는 이제 이런 악기 음악분야 쪽에서 수업시수가 좀 늘어났음 좋겠고. (사례 10, 플루티스트)

- 그리고 예술인 생계비 및 창작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인들의 생계가 많이 위태로워졌으며 공연을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져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예술인은 특히 기초생활보호가 돼야죠. 기초 생계비 지원 이런 형태로... 창작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사례 6, 싱어송라이터)

코로나 이후로 조금 프리랜서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8, 국악인)

□ 문화 분야의 전문 교육 필요

- 많은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하여 문화 분야에서 전문화된 교육을 원하고 있었음(사례 1, 2, 3, 7, 9, 11). 문화 분야는 각 분야마다의 기술이 매우 전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디자이너인 사례 1은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교육을 받길 희망했으며, 문화기획자인 사례 11은 문화기획 전반에 있어서 전문가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음. 이 외에도 연극인인 사례 7 및 9는 마임과 비슷한 몸 만들기를 배우고 싶어 했음.
- 사례 3은 제주도에는 문화 분야 전문 교육이 많지 않아서 관련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교육훈련비를 받고 싶다고도 하였음.

지금 업에서 조금 더 기술적인 면에서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싶긴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배우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 모션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것에 신기술에 대한 디자인이 아마 꼭 필요해지지 않을까. 전문성을 이어가려면. (사례 1, 디자이너)

제주도가 그냥 학원 같은 것만 찾아봐도 배울 수 있는 게 진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조금 넓어져도 좋을 것 같아요. 업으로 하려면 (교육·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커서. (사례 3, 사진사)

문화기획이나 문화전반에 일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도 될 만큼 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과정 그런 게 있다면 좀 받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사례 11, 문화기획자)

행정 말고도 일단 배우니까 기본적인 몸만들긴 배우고 싶어요. 마임 쪽으로 생각하셔야 하나. (사례 7, 연극인)

□ 저작권 및 세무회계, 행정 등 교육 원함

- 일부 참여자들은 문화 분야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저작권, 세무회계, 행정, 계약 등 다양한 일반적인 업무들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고 하였음(사례 5, 7, 12). 이런 일반적인 업무들까지도 프리랜서들은 본인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임.
- 이에 사례 5는 창업 관련 지식이나 저작권, 계약 관련 교육을 받길 원하고 있었음. 특히 저작권에 대한 교육은 디자인 분야와 같이 창작을 하는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에게는 꼭 필요할 것이라 하였음. 하지만 저작권 관련 교육도 별로 없으며, 저작권에 대해 잘 아는 프리랜서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음. 또한 사례 5와 12는 세무회계와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사례 7은 예술인들이 연기 등은 잘 알지만 행정이나 연출, 기획, 홍보, 재정 등과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였음. 하지만 이런 행정 등에 대한 지식이 공연을 개최하는 예술인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 이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였음.

세무랑 회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저작권에 관한 것도 있으면. 디자인 분야도 그렇고 문화 분야도 그렇고. 근데 저작권 관련 교육이 별로 없어요. ... 계약서 보는 방법이라든지. (사례 5, 극작가 & 문화기획자)

혼자가 되다보니까 신고하는 기관도 달라지고 어떻게 해야 절감할 수 있는지. 나는 돈을 조금밖에 못 번것 같은데 세금이 예전보다 더 많이 내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프리랜서들이 뭔가 어떻게 활동해야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다라는 체계적인 그게 없다보니까 혼자 싸우는 기분이 들어서 커뮤니티 교육 같은 걸 해주면 좋겠어

요 ... 초기나 중기에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거의 혼자 찾아가고 주변 이야기들만 듣다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사례 12, 문화기획자)

극단에서 연기도 하긴 하지만 연출이나 행정 쪽을 많이 보게 돼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근데 예술인들이 대부분 예술만 하다가 그런 걸 몰라요. 문서작성 이런 거 기본적으로 모르고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배우로서의 연기, 발성, 발음 보다는 공연 행정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거죠. 홍보나 기획 이런 게... (사례 7, 연극인)

나.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과 정책 수요

-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로는 국내여행안내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대표됨.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등의 가이드를 하는 이들이며,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등의 가이드를 해 주는 이들임.

1) 프리랜서로의 진입 경로 및 계기

□ 여행사 등 관광업계에서의 첫 출발

- 많은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첫 일자리는 여행사 및 호텔 등 관광업계로 가이드인 현재 일과 매우 관련성이 높은 곳에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들은 처음부터 가이드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으며, 이러한 인식에 따라 가이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의 첫 일자리는 여행사였음(사례 14, 15, 16, 18, 19, 21). 언어에 관심이 많고 과거에는 가이드를 하는 여성들이 많은 환경이었던지라 자연스럽게 첫 일자리가 여행사인 경우가 많았음. 특히 관례적으로 가이드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행사 소속 가이드로 실습을 하거나 경력을 쌓은 이후에 프리랜서 가이드로 독립하고 있었음.
- 참여자들 중에는 첫 일자리가 호텔이나 면세점 등 여행사는 아니지만 관광업계에 속한 경우가 있었음(사례 13, 20). 사례 13은 면세점에서 일하면서 가이드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런 경험으로 인해 가이드로 전향하게 되었음.
- 반면에 사례 17은 첫 일자리가 회계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국내여행안내사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업계에서 일하기도 하였음.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통역가이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관광교육원이라고 한국관광공사에서 1년 코스가 있어요. 관광통역가이드들을 양성하는. 그래서 거기를 시험을 쳐서 1년동안 서울에 살면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1년후에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여행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게 하나의 코스였거든요 그 당시... (사례 14)

저도 대학 때부터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고 관심도 많았는데 졸업해서 저희 친구들 그쪽으로 많이 취직을 했어요. 호텔 아니면 면세점. 그래서 저도 그중 하나인 신라면세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조직 생활이 잘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10개월정도, 1년 못채우고 그만두고... (사례 13)

□ 여행사 소속 가이드의 적은 소득 때문에 프리랜서로 이동

- 많은 관광 분야 참여자들은 여행사 소속 가이드를 몇 년 동안 경력 삼아 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하여 프리랜서도 이동하게 되었음(사례 13, 14, 15, 16, 19). 여행사에서는 실습 및 경력을 쌓기에는 좋았지만 안내료도 적었으며, 경력이 있는 이들 먼저 일감을 주기 때문에 신입으로써는 일감을 얻는 것도 어려웠다고 하였음. 따라서 해당 업계에서는 여행사에서 몇 년 가이드 경력을 쌓고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음.

1년 동안 월급이 워낙 적어요. 그래서 트레이닝코스라고 해서 그 수입을 감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프리랜서로 하는 게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어서 그래서 프리랜서로 나오게 됐고요. (사례 14)

그때 당시 안내료가 3만원 6만원 지금에야 일비식으로 해가지고 일당이 좀 됐지. 그때 당시에는 그 돈으로는 거의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사례 19)

월급도 제가 생각한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이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제 수입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걸 미래가 없다 해서 일단 퇴사를 하고... (사례 13)

□ 다양한 업무를 하고자 여행사에서 프리랜서로 전향

- 여행사 가이드로 일할 때는 여행사가 원하는 관광 여행 상품만을 가이드해야 하는데 다양한 관광 여행 가이드를 해보고 싶었던 참여자들은 이를 위해 프리랜서로 전향하기도 하였음(사례 13, 17, 18). 또한 이들은 다양한 지역의 관광객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프리랜서로 전향하게 되었음.

이쪽 여행업계가 그때 당시만 해도 쇼핑, 옵션 이런 패키지 투어 그런 패턴이 워낙 많을 때라서 막상 일을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례 13)

회사로 들어가면 그 회사 일만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고 싶어서 회사를 정하지 않고 오는 일 다 짜깁기 형식으로 다 받아서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사례 17)

저는 이쪽 회사에 있게 되면 계속 이쪽 손님들만 내가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 사람들밖에 내가 상대를 못할 것 같은 걱정도 있었고. 빨리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어떤지. 다른 회사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게 되는지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서 빨리 전향했던 것 같아요. (사례 18)

2) 교육·훈련 경험

□ 가이드 자격증을 따기 위해 스스로 또는 교육원 등을 통해 학습

-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가이드 자격증을 획득해야 함. 따라서 참여자들은 가이드가 되기 전에 먼저 가이드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교육원 등을 통해 공부하였음.
- 참여자들 중에는 학원 등이 마땅히 없어서 스스로 자격증을 공부한 경우가 있었으며(사례 17, 18, 20), 반면에 다른 일부 참여자들은 교육원이나 학원을 통하여 자격증을 공부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음(사례 13, 14, 16). 특히 사례 14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1년간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교육 받았으며,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음.

처음에 진입해서 가이드 될 때까지 혼자 스스로 공부했어요. 회사에서의 교육은 없었어요. 혼자 스터디하고 시험 봤어요. (사례 17)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통역가이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관광교육원이라고 한국관광공사에서 1년 코스가 있어요. 관광통역가이드들을 양성하는. 그래서 거기를 시험을 쳐서 1년동안 서울에 살면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1년후에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여행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게 하나의 코스였거든요 그 당시 서울에서는. (사례 14)

□ 국내여행안내사는 과거 현장 실습으로 역량 강화

- 국내여행안내사의 경우에는 과거 가이드 자격증을 딴 이후 여행사에 취업을 많이 하였는데 여행사에서 일하는 동안 선배인 국내여행안내사가 가이드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실습이나 현장 학습을 받으면서 역량 강화를 하였음(사례 16, 18, 19, 21).
- 즉 국내여행안내사는 현장에서 가이드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나 가이드 자격증은 필기와 면접으로만 이루어져서 따로 실습을 시켜 주는 교육원 등은 없었기 때문에 직접 가이드 일을 하는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의 대처 방법, 안내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실제적으로 배웠던 것임.
- 그러나 현재는 양성되고 있는 국내여행안내사가 매우 적어서 과거 이루어졌던 현장 실습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주 실습은 가이드 언니들 따라 다니면서 일에 대한 그거죠 차에서. 제주도 가이드. 역사. 제주도 현지 안내. 손님들과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처능력. 그리고 이랬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 개념. 그리고 여기서는 식사는 이정도 끝나면 그 다음 시간계산 이런 것들을 배운 거죠. (사례 21)

처음에 6개월 기간은 수습기간이 있어요. 수습 기간 동안에는 일당도 없고 월급도 없어요. 그냥 6개월 동안 수습을 하고 그걸 이수했을 때 그때는 관광버스에 선배 언니들 쫓아다니면서 안내하는 스타일을 배우고 또 방법 이런 것들. 손님 응대하는 방법. 그때 당시에는 시나리오를 줬거든요 여행사에서. (사례 16)

가이드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되게 체계적으로 실습을 그때 당시에는 받았거든요. (사례 19)

□ 협회 및 제주도 등이 제공한 교육에 만족

- 국내여행안내사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국내여행안내사협회를 통하여 많은 교육 및 탐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때 제주특별자치도나 도 산하기관의 지원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음(사례 16, 17, 18, 19, 21).
- 구체적으로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형식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올레길, 트레킹, 제주4.3 등 다양한 제주 여행과 관련한 주제로 교육을 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1년에 2번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국내여행안

내사협회가 주체하는 번개 탐방은 돌레길, 숲길, 문화센터, 교육센터, 4.3평화공원 또는 새로운 관광지로 버스를 대절하여 답사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었음. 이는 코로나19 이전까지는 1년에 6번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임. 해당 교육들의 비용은 무료이거나 참여자들이 일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여행안내사들인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미나 또는 번개 탐방 교육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였음.

우리 국내여행안내사협회가 있잖아요.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다양하게 요즘은 올레길도 생겼고 트래킹 할 수 있는 돌레길도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세미나 하게 되면 또 그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아야 그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해서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데를 빌려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관광 일선에서 가이드를 하다가 발생되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요. (사례 16)

가이드협회에서 새로운 관광지나 이런 새로운 게 있으면 번개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끼리 버스 대절해서 저희끼리 모집해서 저희끼리 가는 답사형식의 교육은 있어요. ...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고요. 보통 재작년 코로나 없었을 때 기준으로 보통 1년에 6회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 17)

번개탐방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반짝 번개로 해서 차량용 저희들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번개탐방 해가지고 돌레길, 숲길 이런데. 아니면 문화센터, 교육센터, 4.3평화공원 이런 데를 다 수시로 다니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사례 16)

-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를 통하여 1년에 2번 정도 국내 또는 해외 탐방을 하였음(사례 13, 14, 15). 이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하는 장소를 탐방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분이 설명 등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주었음. 또한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코로나 19 이전까지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질, 제주4.3, 역사 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사례 13).

(도에서) 협회로 1년에 몇 번 해서 경주 문화탐방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매해 했거든요.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이 계속 있었어요. 이제 단순 초보자를 위한 게 아니고 제주 지질교육 전문박사님이 와서 현장답사. 그때 시즌별로 그런 게 꽤 2010년 이 후에는 꽤 많이 다양하게 생겼어요. 지질, 제주4.3, 역사 교육도 시켜주고 다양한 내용이었어요. ...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례 13)

저희는 제주 한통협을 통해서 일 년에 두 번씩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해외연수도 갔었고 국내연수도 많이 갔었죠 지금까지는. ... 한통협으로 가는 건 육지로 해서 많이 가는데 그런 놀러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가고 또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와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주세요. ... 말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례 15)

- 또한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자격증을 딴 초기 안내사를 대상으로 일주일 정도의 교육을 해주기도 하였음. 태도 및 현장 교육 등으로 이루어졌음(사례 15, 20).

직장에서 받은 교육이라기보다는요. 그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막 자격증을 딴 가이드를 대상으로 해서 2-3년정도 취득한 신입 가이드를 위해서 그런 교육 연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인부담금이 얼마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사에서 부담금 얼마얼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 정도 실습 이룬 교육을 받고요. (사례 15)

한국관광공사에서 일단 가이드 자격증을 따면 약간의 트레이닝 기간이 있는데 옛날에는 몇박 며칠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받거나 현장가서 그런 게 있는데 딱 일주일정도. 3일인가 교육받고 그냥 정신교육 같은 거 가이드로서 자세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받고 현장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며칠 교육이 있어요. (사례 20)

3) 관광 분야 프리랜서의 업무 내용 및 일하는 방식

□ 가이드가 주된 업무

- 안내사인 참여자들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아침에 공항에 나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버스 안에서 관광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관광지에 도착해서는 관광객들의 여행을 돕고, 쇼핑센터 등을 들르기도 하며 이때는 상품에 대한 설명 등을 하였음. 때론 관광객들의 점심과 저녁 식사를 위하여 식당을 사전에 결정하여 안내하기도 하였음. 저녁 식사를 마친 이후에는 호텔로 안내를 하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 하며, 여행 마지막 날에는 공항까지 배웅을 하였음.
- 다만 관광통역안내사들은 영어, 일어, 중국어로 안내를 한다는 점에서 국내여행안내사와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었음.

손님들이 이제 학생 단체도 오고 공무원 단체도 오고 일반 단체손님들이 왔을 때 가이드를 요청하면 저희가 공항으로 오신다면 공항으로 가고 부두로 가신다면 부두로 가서 스티커를 들고 손님들이 오시면 공항에서부터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손님들의 손과 발이 되는 거죠. 차에 공항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인사를 하고 제주도 관광지 소개 코스 일정 숙소 주의사항 제주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게 제주도는 관광지로는 세계적인 관광지지만 교통사고는 세계 우리나라 1위다. 안전벨트 우선 그걸 제일 먼저 강조를 하고 제주도는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른 생활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시고 오시고 제주어라든가 제주지역소개. 또 제주에서 나는 상품들 있었잖아요. 이런 쇼핑이나 이런데 가게 되면 제주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소개도 하고. 관광을 가시면 그 지역에 특산물이나 그런 것들 그런 걸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저녁에도 손님들 다 끝나면 식사까지 가드리고 저녁 잠자리 호텔 사용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퇴근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2박3일 관광 다 끝나고 갈 때 공항 항공권 발권까지 다 도와드리고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저희는 퇴근해서 사무실 와서 정산보고를 하고 저희가 오는 거죠. 2박 3일 동안. (사례 19)

영어통역가이드죠. 영어 관광통역가이드 역할은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잘 모르잖아요.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걸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숙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장까지 가는 내내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관광지 설명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전반적인 거 제주도 역사. 이런 문화 같은 것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줘야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도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건 다 영어로. 보통 영어통역가이드 같은 경우는 멀티가. 뭐라 그럴까. 다국적이 많아요. 손님들 오는 관광객들이 다국적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문화 사람한테 다 맞춰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음식이 까다로운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까 흑인분도 있을 수 있고 무슬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너무 다양하니까 그걸 우리가 다 알아야 돼. 알아내야 되고 몰라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안내만 하는 게 아니야. 저희는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올라운드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사례 20)

□ 긴 근로시간과 길어야 3박 4일인 근로기간

- 안내사들의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하루 보통 10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았음. 아침 7~8시부터 손님 맞이를 위해 공항이나 호텔에 나가 있으며, 이르면 오후 6시에 끝나기도 하지만 저녁을 먹고 호텔까지 손님들을 배웅할 때는 오후 8~9시까지 일할 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6시 이후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반면에 만나절 투어를 할 때는 만나절만 근무하기도 하였음.
- 이들의 근로기간은 만나절부터 하루,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정도로 나타났음.

아주 드물게는 일주일도 있었음. 투어는 건건이 이루어져서 근로기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출발이 아침엔 8시, 어쩔 땐 7시. 무조건 저희는 하루 보통 하다보면 10시간 이상 넘어요. ... 저녁까지 드시고 술 한잔 하시고 하다보면 늦을 땐 10시도 되고요. 11시도 되고요. 빨리 올 땐 8시도 되고, 9시. 보통 8~9시 사이에 끝나요. (사례 18)

2박3일 혹여는 세미나 하루짜리. 혹여는 1박2일짜리도 있을 거고 3박4일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죠. (사례 17)

□ 주된 근무환경은 버스 또는 자연환경, 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

- 안내사들이 근무하는 근무환경은 주로 버스 또는 자연환경이었음. 근무환경은 대체적으로 아름다웠지만 자연 속에서의 위험과 버스 안에서의 교통 사고 등 재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프리랜서라 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음(사례 14, 16, 17, 18, 19, 20).
- 투어 내내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안내사들은 서서 제주도 또는 관광지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버스가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버스 유리창 쪽으로 굴러 떨어지기는 등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이 있었음(사례 14, 18, 19). 또한 이러한 사고 경험들을 건너서 듣는 경우도 있었음(사례 17).
- 그리고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거친 바위나 돌부리가 있는 성산일출봉이나 바로 옆이 바다인 용머리해안처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불안을 느끼기도 하였음. 특히 안내사들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자연환경 속에서 자신의 안전은 뒷전이 되기도 하였음. 또한 기상이 좋지 않을 때도 출입이 금지 되는 단계 전까지는 관광 코스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바바람 또는 눈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음(사례 17, 18, 20).

버스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또 사대보험 가입도 안되고... (사례 16)

제가 한번 버스에서 멘트를 하고 있다가 기사님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제가 튕겨져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 두 달 가까이 일을 못했었어요.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항상 (위험에) 노출은 되어 있어요. (사례 18)

브레이크 밟다가 버스 좌석 기사님 통유리 쪽으로 넘어가다가 구급차에 실려 간 언니들부터 시작을 해서 용머리해안 같은 경우에서도 안내를 하다보면 손님들은 앞으로 가지만 저희는 뒤로 보면서 손님들을 유도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서 아무리 조심해도 파도에 덮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비일비재하다고 보면 되죠. 그런 위험성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많이 크고요. (사례 17)

□ 과거 완연했던 폭언과 성적 괴롭힘, 현재는 많이 나아짐

- 참여자들 중 국내여행안내사들은 과거에 관광객들로부터 폭언 및 괴롭힘(성희롱 등)을 많이 당했다고 하였음(사례 16, 17, 18, 19). 안내사들이 설명을 하면 설명하지 말고 노래를 불러보라는 등 희롱을 하기도 했으며, 저녁 식사시간에는 안내사들에게 술을 따라 보라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신체적인 접촉도 심했다고 하였음.
- 다만 현재는 이러한 관광객들로 인한 폭언 및 괴롭힘이 많이 줄어들었음. 미투 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안내사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는 경우가 많아졌음. 하지만 폭언 및 괴롭힘이 줄어들거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서 가끔씩은 현재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사례 16, 17).

지금은 손님들이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됐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 많이 올 때 술 마셔가지고 막 험한 욕도 많이 들었어요. ... 지금은 옛날보단 많이 나아졌죠. (요즘에도 그러세요?) 네. 별의별일 다 많아요. (사례 16)

우리는 가이드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툭 때리면서 그런 소리 지껄이지 말고 노래나 불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 16)

저희는 손님들한테 술 따라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녁 먹다가 술 한 번 따라봐. 그런 것도 성희롱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례 17)

(과거에) 손님들이 거의 다 술을 차에서 먹고 춤도 추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막 끌고 와가지고 뒤에서 같이 춤 추라 그러고 어떨 땐 접촉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미치는 거죠 아주 그냥. 그런 경험들이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 요즘엔 거의 그런 손님들을 볼 수 없고. 굉장히 좀 많이 바뀐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사례 18)

- 반면에 관광통역안내사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국내여행안내사들과는 달리 폭언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 하지만 관광통역안내사 중에도 외국인 관광객은 아니지만 이들을 모시고 온 국내 관계자들로부터 괴롭힘(성희롱 포함)을 당하거나 여행업체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은 있었음(사례 20).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나요 이제. 갑질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업체들이. 여행사 비위 맞춰야지 손님 비위 맞춰야지 그런 거. ... 국내 가이드라기보다 국내에 있는 한국 분들이 외국 바이어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국 분들도 좀 여성분들이라 그런 거 대하는 게 좀 오래된 사고방식을 가져가지고 옛날엔 성희롱들이 많았잖아요. (사례 20)

□ 관광통역안내사는 협회 통해 단체행동하기도 함

- 관광통역안내사인 참여자들 중에는 일정 급여 선을 지키고, 이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단체행동을 한 경험이 있었음(사례 13, 14, 15). 협회가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하는데 수월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국내여행안내사인 참여자들은 급여 문제로 단체행동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사례 13은 협회가 당사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단체행동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정보 공유나 교육 등을 지원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음.

프리랜서 되고는 저희가 일단 노조까지는 아니지만 크루즈 행사 하면서 임금 문제 때문에 일비 때문에 한동안 그러면 이 선을 지키는 선에서 일하자 안 맞춰 주면 일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 표현을 같이 단체로 공동으로 해본 적이 있었어요. (사례 13)

단체 행동이요? 저희가 한통협에서 단체 행동이라고 하면 예전에 무자격가이드들이 자격증 없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일을 못하게 무자격은 안내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제주관광공사 앞에서 노조 활동한 적이 있었기도 했고요. 설명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그런 게 있었죠. (사례 15)

단체행동. 그리고 아마 이거 이번에 50만원씩 지원 받는것도 한통협에서 많이 건의사항으로 프리랜서도 보호 받아야된다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례 15)

□ 여행사 또는 지인을 통한 일감 수주

- 참여자들은 대부분 여행사 또는 지인을 통하여 일감을 수주하고 있었음. 여행사와 지인을 통한 일감 수주 비율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음. 투어를 왔다가 이후 직접 참여자에게 가이드를 요청하는 경우도 꽤 있었음. 또한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 여행사로부터 일감을 얻는 경우도 있었음.
- 참여자들은 일감을 얻기 위해 초기에는 여행사나 행사 등에 가서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드리기도 했으며, 지금도 일감 수주를 위하여 가이드를 하고 있는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

여행사에 친분 있는 사람이 있거나... (사례 16)

단체 우리 여행사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데에서 일이 있으면 받고요. 다른 가이드 언니들이 자기 일이라곤 겹치면 그때 갈 수 있냐고 해가지고 전화 오면 제가 시간이 되어서 투입되기도 해요. (사례 19)

□ 계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때로 안내료 지연되기도 함

- 안내사들의 경우 여행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계약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다만 관공서 등과 거래를 할 때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사례 14).
- 또한 일부 참여자 중에는 안내료가 지연되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음(사례 13, 14, 16).

(계약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급여가 지연된 적은 있나요?) 있었어요. 못 받은 적도 있고. 가끔 한 번씩. (사례 16)

□ 건당 급여 지급방식, 경력 산정이 되지 않는 급여

- 모든 관광 분야 참여자들은 급여 지급 방식이 건당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음. 투어 한 건당 급여가 매번 지급되는 것임.
-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를 할 때 급여에 경력이 산정되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였음. 다만 경력이 많은 안내사들은 일감

을 얻기가 더 수월한 경우는 있었으며(사례 13), VIP 투어나 아주 중요한 투어, 어려운 통역 같은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된다고 하였음(사례 14).

수당은 건당 지급되고, 근무 기간이 길어진다고 급여도 전혀 증가하지는 않아요. (사례 16)

경력이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아요. 경력 1년차든 제가 26년 됐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일비가. ... 경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VIP투어나 아주 중요한 투어. 통역 좀 어려운거 할 때. 그럴 때만 하고. (사례 14)

□ 급여 외의 지원 거의 없음

○ 대부분의 관광 분야 참여자들은 급여 외 장비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기타 지원 등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 다만 가끔은 식비라든지 교통비를 지원 받은 적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사례 17). 또한 사례 15의 경우에는 마이크와 깃발, 단체복인 조끼 등은 여행사에서 제공 받았다고 하였음.

밤 11시가 되어도 교통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사례 16)

저희가 여행을 하다보면 점심을 여행사 포함해서 저희가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이 식당에서 밥을 못 먹고 다른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할 때 경비처리를 해준다든가 혹여는 숙소가 너무 멀어가지고 밤늦게 끝나서 버스도 없다. 그럴 때 택시비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사례 17)

4) 소득 및 일의 안정성 정도

□ 국내여행안내사는 안내료에 불만족, 관광통역안내사는 만족

○ 국내여행안내사의 안내료는 패키지 상품의 경우에는 일비가 없으며, 관광객들에게 수고비로 1인당 1만원씩 받은 비용을 버스기사와 반반 나누고 관광상품 옵션에서 관광객들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수수료의 1/3을 버스기사와 반반 나눠서 안내료로 충당하고 있었음. 다만 회사에서 워크숍이나 행사 등을 지원해 주는 세미나는 일비가 15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음.

- 많은 국내여행안내사 참여자들은 패키지 상품은 아예 일비가 없어서 하루 일당이 적을 때가 많으며, 세미나 상품의 경우에도 일비가 정해져는 있으나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에 비하면 소득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사례 16, 17, 18, 19, 21). 특히 저녁에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날은 안내료가 최저시급조차 되지 않기에 더욱 불만스러웠음.
- 또한 6시 이후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음.

패키지는 일당이 없고 거기 가면 관광을 하고 선택관광이나 아니면 쇼핑 센터 여행사에서 지시한대로 가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합법적인 수수료로 기사님하고 나눠서 가져요. 아까 십만원 벌면 5만원씩 나눠서 가져요. (사례 16)

저기는 11시간 해도 12시간 해도 하루 15시간 일을 해도 금액은 정해진 그 금액 그대로예요. 밤 열한시가 되어도 교통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례 16)

저희가 (세미나는) 일급이 15만원이거든요. 시간으로 따지면 너무 기본시급이 안되는 거죠. 안되다보니까 아침 보통 늦게 나가봤자 숙소 9시 도착. 그러면 일 끝나면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저녁까지도 먹이거든요. 밥 먹고 나면 7시, 숙소 데려가면 7시 반. 집에 오면 8시. 그 시간 전체가 15만원이라고 봤을 때는 조금 열악하죠. (사례 17)

근데 우리는 비행기시간에 맞추기도 하긴 하겠지만 저녁식사까지 하고 숙소에 갔다가 올 때 막차가 없어서 택시까지 타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시간외수당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요즘은 일비수준으로 가긴 가는데 다른 직업에 비했을 때 알바도 최저시급이 8천원대인데 보통 만원대는 기본으로 받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최저)시급도 안되는 것 같아요.** (사례 19)

일비 하루에 15만원정도는 적절한데 일비 아닌 우리가 가면 패키지 상품처럼 좀 저렴하게 왔을 땐 저희가 쇼핑이라든가 그런데를 또 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일비 15만원이 못 맞춰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는 일비식으로 맞춰준다 해서 그 정도해서 가는데 저희가 숙소가 외곽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에 비해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택시비가 진짜. ... 추가수당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사례 19)

-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에는 일비가 15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었으며⁸⁾, 영어 관광

8) 다른 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도 일비가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도 더 적은 금액을 계약하기도 함.

통역안내사의 경우에는 일비가 15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었음. 모든 관광통역안내사 참여자들은 해당 일비가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었음(사례 13, 14, 15, 20).

- 다만 사례 20은 때로는 일비가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시간외근무가 너무 긴 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책정되지 않고 정해진 건당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이었음.

하루 일비는 그냥 기타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사례 14)

저희가 하루에 일비를 받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더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주세요 라든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긴 하죠. ... (소득 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까지는 아니지만요. (사례 13)

□ 1년에 6개월이 비성수기, 줄어드는 일감으로 불안정

-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은 극명한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구분으로 인하여 불안정함을 경험하고 있었음. 과거에는 1년 내내 일감이 있었는데 점차 비성수기가 길어지면서 현재는 1년 중 약 6개월 정도가 비성수기가 되었음. 길어진 비성수기에는 일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성수기 때 모아 둔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음. 많은 참여자들은 불규칙적인 이런 상황에 대하여 많은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었음.
- 또한 단체 또는 패키지 상품이 유행하여 안내사를 많이 필요로 했던 과거에 비하여 개인 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음. 그래서 많은 참여자들이 일감 부족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프리랜서는 진짜 3개월 일하고 3개월반 일하고 2개월반 쉬고. 3개월반 일하고 2개월반 쉬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 3월에서 6월까지 일이 있는거거든요. 그때 벌어들인 돈으로 7월달 8월달 일이 없을거니까 그 돈 모아놓은걸로 7,8월달 사용할 수 있고. (사례 17)

(비수기 때는) 전혀 수입이 없다는 거죠. 6개월은 성수기 6개월은 비수기였는데요. 코로나19 이전부터요. 비수기 때는 전혀 일이 없으니깐 (성수기)와 너무 격차가 크죠. (사례 19)

보통 비수기랑 성수기가 너무 차이나니까 저희는 보통 3월 중순부터 영어통역가이드 같은 경우는 3월 중순부터 6월달까지가 굉장히 바빠요. 4월이 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국내가 성수기여가지고 그때 더워서도 일도 못하지만 또 보통 봄철 3개월, 가을철 3개월이 진짜 바쁜 거예요. 6개월로 우리가 하고 그걸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례 20)

지금은 성수기 비성수기가 거의 없잖아요. 다 개인자가 렌트 손님이 와버리니까 거의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요. ... 거의 안정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제 관광 트렌드가 너무 바뀌어버리니까. (사례 19)

이제는 점점 가이드들이 필요로 안하는 행사가 많아요. 버스에 이제는 가이드 동승 안하는 행사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개인위주로 바뀔 것 같다. 소단위로 움직일 것 같다. ... 가이드들 나가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싫어한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행동하는걸 좋아한다. 그러다보면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 시스템으로 돌아가진 않을거라고 본다 하다보면 ... 점점 더 우리의 필요성을 덜 느끼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불안한데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제주도 가이드가 3백명정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거의 만 2년 됐잖아요. 지금도 다른데로 간 가이드들이 많은데 더 많은 가이드가 업종변경하지 않을까. 지금도 불안한데 더 많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사례 21)

5)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0원

-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인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안내사로의 수입이 거의 제로였다고 하였음(사례 13, 14, 15, 16, 18, 19, 20). 프리랜서 안내사로 일하면서 사스, 메르스, IMF, 중국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 등 감염병 또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일감이 없거나 줄어든 적은 있었지만 그 기간이 몇 개월 정도이고 그 이후 바로 일감이 회복되었던 경험들이 있었음. 하지만 코로나19는 지금까지의 어떠한 사건들보다도 피해가 더욱 강력하다고 하였음. 거의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체 및 패키지 투어는 거의 정지하여 일감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수입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았음.
- 사례 16과 같이 안내사 수입이 0원이라 청소 용역업체, 식당 알바 등 다양한 일용직 일들을 하는 참여자들도 있었음.

저번에 저희가 사스라든가 많았잖아요. 그 때는 기간이 짧았던 말이에요. 3개월. 3개월만 숨죽이고 있었고 IMF 때도 몇 년 만 숨죽이고 있었고. 근데 그때 또 바로 회복이 되었어요. 힘들었던 걸 잊어버릴 수 있게 해줬던. 근데 코로나는 최고인 것 같아요. (사례 18)

중국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로예요. (사례 14)

저희는 특히나 외국손님들만 안내하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지금 안 뜨고 있잖아요. 출국도 힘들지만 입국이 힘든 상황이라서 상당히 안 좋은 거죠. ... 지금 소득이 제로예요. (사례 13)

지금 단체관광객들이 아예 안오잖아요. 지금 TV에서는 개인적인 손님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저번 주에도 4만명이 들어왔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 3월 달에 비해서 두 배가 증가했고 호텔, 렌터카 거의 풀가동 된다 하지만 정작 가이드들은 일을 못나가요. 패키지에 한해서 5인 집합 금지니까. 가이드들 가이드로 하시는 분이 거의 2년째 손 놓고 있는 상황이죠. (사례 19)

우리는 한 3월 달까지 길어보야 두 달 석 달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기화 되어 버렸잖아요. 다 일 못 갔어요. 저도 단한건도 못 뛰었어요. ... 관광손님들을. 작년 10월 11월달 반짝 들어왔거든요. 그때 외에는 전 그때도 일 딱 한번 갔다 왔는데 거의 1년 동안 놀았어요. 그래서 한 두 달이면 잡히겠지 해가지고 두 달까지는 그냥 일당직으로 청소 용역업체 해가지고 통해서 그런데도 가보고 고사리 채취도 해보고. 식당 같은데 알바도 해보고 그러면서 손님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근데 손님이 거의 안들어왔잖아요. 아예 다 1년 동안 놀고요. (사례 16)

□ 보험료 및 저금은 해약, 늘어나는 대출

- 많은 관광 분야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수입이 거의 제로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경제적인 어려움은 커지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생활비,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은 계속 일정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 및 적금을 해약하는 경우가 있었음(사례 16, 18, 19). 남편이 있는 경우라도 맞벌이다가 외벌이가 되면서 발생한 경제적인 손실로 적금을 계속적으로 해약해서 그 돈으로 당장의 생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음(사례 20).
- 기존의 보험료 및 저금을 해약하는데에서 더 나아가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거나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도 있었음(사례 16, 18, 19). 사례 19는 은행 대출이 되

지 않아 카드론까지 사용하고 있었음. 사례 17은 대출이란 대출은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이후 몇 년 동안은 대출금을 갚느라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그전에 적금 들어났던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걸로 조금씩 까먹다가 해봤자 8개월 정도 버텼을까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지금은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땡겨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진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가지고 나중에 코로나가 잠식이 되고 저희가 가이드 일을 한다고 해도 전부 전체적인 경제관념이 마이너스를 채워 올리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사례 17)

보험료를 해약을. 기존에 있던 적금을 다 깨고 있어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지금은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있던 적금들 보험료 다 파기해가면서 지금 겨우겨우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 적금은 지금 다 깨졌어요. (사례 18)

코로나 상황이어서 옆친데 댁친격으로. 수입이 있든 없든 적금이든 보험이든 다 해약하고 다 대출받았고 카드까지 카드론까지 써가지고 최악이에요. (사례 19)

애는 커가지고 저도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도 벌어들인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고 애들한테 나가야 될 돈. 그 다음에 보험료 나가야 될 돈. 이거는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일정하잖아요. 근데 수익이 제가 벌었을 때 같이 벌었을 때하고 틀리니까. 제가 스톱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사례 18)

□ 가이드 업계를 떠나 이직하는 이들이 늘어남

-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을 지나면서 장기화되고 그 동안 안내사 수입이 거의 제로이다 보니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안내사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충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아예 가이드 업계를 떠나 보험이나 식당 일,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으로 이직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음(사례 13, 16, 17, 19, 21).

코로나 끝나면 가이드들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다른 쪽으로 많이 직업을 전향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나이들도 있다 보니까. (사례 19)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도 저희 친구나 또래나 다 보니까 요양보호자격증 따고 애

들 돌보미라든가 그런 쪽으로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다 가버리죠. (사례 19)

지금 흘러가는 상황도 그렇고 여행사들도 그렇고 많이들 폐업도 하고 그래서 불안하죠 이제부터는. 직업을 바꿔야하나. 바꾸신 분들도 있고. (사례 13)

가이드들도 그 사이에 직업들 전환 많이 했어요. 보험 쪽으로도 가고 영업, 세일즈 화장품 판매 이런 데로도 가고 식당으로도 많이 가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거 밖에 없잖아요. (사례 16)

- 이처럼 코로나19로 타 업계로 이직하는 안내사들이 많아지면서 가이드 업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었음. 사례 14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가이드 업계가 계속 존재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음.

코로나 이후에 여행업이 계속 존재할까? 이런 두려움도 상당히 존재하고. 그래서 지금 모두들 그래서 영어가이들 중에 투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돼요. 특히 과외를 많이 하거든요. (사례 14)

□ 프리랜서 코로나19 지원금

-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광 분야의 많은 참여자들도 프리랜서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았음. 50만원씩 4번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참여자들이 대부분이었음. 이들은 프리랜서라고 지금껏 사회적 지원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프리랜서에게 직접 코로나19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주목할 만하다며 만족해하였음.
- 해당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이들이 많이 있었음(사례 16, 17, 19, 20, 21). 하지만 1년 반을 쉬었는데 200만원(또는 150만원)이 솔직히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참여자들도 있었음(사례 13, 14, 15).

숨이 좀 그래도 쉬어진다는 느낌. 물론 그돈 없어도 숨이야 쉬겠죠. 근데 국가가 도와주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사례 20)

그냥 급한 불을 다 끌 순 없고요. 급한 불을 조금 줄이는 정도. 그 정도였지 숨통 트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안주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가지고. (사례 17)

한번에 50만원씩 4번 받았거든요. 1년 반 쉬었는데 2백만원은 큰 도움은 안되죠 솔직히. 아예 없는 것 보다 낫다고 하지만. (사례 13)

- 반면에 사례 18은 프리랜서로 전년도에 활동을 하지 않아서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음.

저는 못 받았어요. ... 제가 그때 활동을 안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언제 때부터 활동한 것에 대해서 내줘라. 근데 그때 활동을 안했거든요. (사례 18)

6) 불완전한 사회보장제도

- 프리랜서에게 사회보장제도는 불완전해 보였음. 근로자와는 달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오롯이 프리랜서인 자신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아예 프리랜서들은 가입조차 할 수가 없으니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음.

사대보험이 만약에 회사로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 월급에서도 얼마 내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게 좀 크잖아요. 개인적으로 내다보니깐 좀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사례 15)

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남편 이름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냥 혼자 싱글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자기가 다 해야 하니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엔 자기가 온전히 다 부어야 하는 시스템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또 힘들어요. (사례 14)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대보험 (지원) 자체가 없으니까 산재가 없어서 무슨 사고 났을 때에는 거의 개인이 해결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사례 15)

- 일부 참여자들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본인 명의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었음(사례 13, 16, 20, 21),
- 건강보험은 남편 직장의 피부양자로 가입한 경우도 있었음(사례 14, 17, 18, 19). 그리고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사례 14, 17, 18, 19). 나중에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사례 14, 17). 또한 사례 14는 비수기의 경우에는 수입이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례 18은 연금을 낼 돈이 부족하여 지역가입을 하지 않게 됐음. 오히려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필요한 상해보험은 사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음.

건강보험은 제 이름으로 지역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연금도 지역으로 해서 소득수준에 따라인데 지금 전혀 수입이 발생되지 않으니깐 연금도 밀려있는 상태고. (사례 16)

국민연금을 못 믿는거죠. 왜냐면은 지금 인구절벽이잖아요. 우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리고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이 굉장히 존재를 했어요. (사례 14)

프리랜서 전향하고 나니까 연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안하게 되면서 보험은 보험료도 내야 되고 하다보니까 연금까지 같이 하기에는 별로 또 필요성을 못 느꼈었어요. 연금에 대해서 그닥 너무 젊어서 그랬나. (사례 18)

- 프리랜서로서 일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음.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자신을 보호해준다고는 전혀 느끼고 있지 못했음. 다만 프리랜서 코로나19 지원금을 통해 거의 처음으로 사회에서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것을 경험해 봤음.

저희가 어떤 보장을 받았던가 제도를 보호해줬다는 건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아직까진 없어요. 그때 말한 (프리랜서 코로나19 지원금) 50만원 네 번. 그거 말고는 딱히 아직까지는 와 닿는 게 없기 때문에. (사례 17)

제가 (버스에서) 앞으로 넘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보호받지는 못하죠. ...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거의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례 15)

-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관광 분야 참여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았음(사례 14, 15, 20).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안전을 보장해 주는 산재보험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이와 더불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지원을 받고 싶다는 경우도 있었음(사례 14, 15).

우리 통역가이드들도 보면 버스에서 사고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안내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아버려가지고 차안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꼭 자동차보험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산재로 처리가 되면 좋겠다. (사례 20)

가이드들이 제일 불안한 게 산재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씨 좋은 아니면 뭐한 회사를 만나서 다 커버를 해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온전히 가이드가 다 손님 것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할 때마다 그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사례 14)

프리랜서를 위한 의료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서포트를 좀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코로나 이후에 들었어요. (사례 14)

7) 프리랜서로 일하면서의 긍정적인 점

□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 안내가 가능

- 사례 16과 17은 한 여행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안내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 가이드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음. 여행사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여행 프로그램들이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 상품 안내만을 해야 하는데 프리랜서일 때는 다양한 여행사를 상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 안내가 가능했음. 그리고 프리랜서 가이드의 안내 및 옵션이나 식당 등의 선택 폭이 좀 더 넓은 경향이 있어서 좋다고 하였음.

여행사에서는 소속이 되어 있으면 회사에 룰에 따라가지고 지시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데 프리랜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례 16)

□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 많은 관광 분야 참여자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다양한 국적 또는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한다고 하였음(사례 13, 14, 19, 20).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기운도 일하는데 있어서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였음.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사례 13)

해외에서 여러 나라 여러 국적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더 배운 게 많아요. 힐링도 되고 자체적으로. 문화를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업에서 오는 힐링이 있었어요. (사례 20)

□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일정 계획 가능

- 관광 분야 참여자들 중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가이드 일감 중에서 일정이 맞지 않거나 뭔가 불합리해 보이는 일은 거절하거나 좀 더 나은 조건의 일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음(사례 13, 15, 20). 만약 여행사에서 일했다면 일을 선택할 수 없고 배당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하였음.
- 또한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고, 시간 조절을 사전에 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점으로 꼽았음(사례 13, 15, 20).

제일 좋은 점은 일을 하기 전에 대부분 어떠 어떠한 내용의 일을 하게 된다는 정보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간혹 이거는 하고 싶지, 단순히 일을 하기 싫다가 아니라 불합리하고 뭔가 이상한 내용이다 하면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사례 13)

일단 일을 받기 전에 그때 개인적으로 저도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소속되면 그런 시간 조절이 안되는데 제가 필요한 이때는 안된다 이라서 시간 조절, 계획을 사전에 저한테 맞춰서 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저한테 상당히 좋은 거죠. (사례 13)

긍정적인 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찾아야 되니까 만약에 바쁠 때가 있는데 일이 되게 많아요. 일이 되게 많으면 가끔 가다가 정말 괜찮은 일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수당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 ... 제 스케줄을 제가 직접 짤 수 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좀 아니다 싶은 거는. (사례 15)

□ 일과 가사돌봄 병행의 수월

- 참여자들 중에는 프리랜서 가이드 일을 하면서 가사 또는 돌봄을 병행하는 것이 수월했다고 하였음(사례 14, 17, 19, 21). 일을 선택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프리랜서의 특성 상 제사나 경조사, 아이의 학교 행사 등이 있을 때는 일을 쉬고 해당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음.
- 다만 사례 19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사 및 돌봄을 병행하는 것이 전반적으로는

좋았지만 반면에 관광 분야에서 프리랜서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 돌볼 때 어려움이 큰 부분도 있었다고 하였음. 하지만 여행사에 소속되어 일했다면 프리랜서로 일했을 때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라 하였음.

가정에도 소홀 안하고 부딪히는 일도 없고. 집안의 경조사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건 아무래도 자유롭죠. 아무래도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집안 일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경조사가 있으면 스케줄을 뺄 수 있잖아요. (사례 21)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거는 그거 있죠. 학원이라든가 픽업이라든가 데려다주고 애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것. 내가 회사 다닐 때는요. 운동회라든가 아이소풍이라든가 졸업이라든가 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걸 단 한번도 못 빠진다는 언니들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 그런 것들을 모두 내가 케어를 해줄 수 있었던거는 장점이죠. (사례 21)

내가 내 일 하면서 집안일이나 애들 키우면서 이 일을 또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지금도 좋고. (사례 19)

아침 6시반부터 저녁 집에오면 10시 11시 되다보니까 그건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을 저도 아들만 돌인데 어릴 땐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새벽부터 애들을 안봐준다 해가지고 일면서 일도 못 갔던 기억도 있고. 손님들이 저녁 석식까지 있고 어떤분들은 예전 같은 경우는 나이트클럽 입구까지 모셔다주고 퇴근해라 해버리면 어린이집에서는 8시만 되면 선생님이 늦게까지 봐준다해도 우리애들 돌만 있는거예요. ... 그래도 애들을 키우면서 시간 내 스스로 제사 때나 애들 아팠을 때 아니면 무슨 일 있을 때 다음에 이번에 행사를 내가 못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가이드로 대체해주십시오. 근데 회사에 소속되어 버리면 그건 안되는데 이걸 긍정적인 면인데요. (사례 19)

8) 프리랜서로 일하면서의 애로점

□ 항시 일감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

- 한 여행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일감을 찾을 필요가 없을텐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가이드 일감을 항상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컸음(사례 15, 17, 18, 21). 일감을 찾기 위하여 여행사 또는 지인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이들에겐 또 하나의 큰 업무가 되고 있었음. 또한 내일 당장 일하고 싶다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황도 큰 단점으로 와닿았음.

혼자 일거리를 찾아야 했던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 18)

우리는 우리가 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죠. 사람을 늘 만나야 되고 그런 불안감은 있죠. (사례 21)

여러 회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장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기 본인들 회사의 고정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일을 주고 그게 오버가 되는 일을 프리랜서로 땡겨 와서 일을 주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오늘 쉬고 내일부터 일하고 싶어도 내일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프리랜서의 최대 단점인거고. (사례 17)

□ 비수기 때는 일감이 전무

- 프리랜서 가이드인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는 거의 반년 가까운 비수기였음. 비수기에는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관광객이나 여행 상품이 없어서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시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때이기도 했음(사례 14, 15, 19, 20). 일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감을 아무리 찾아도 일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시기며, 이런 시기는 프리랜서의 특징인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인 상황을 더욱 강화시켰음.

비수기 때는 전혀 수입이 없다는 거죠. ... 이때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죠. (사례 19)

우리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일의 어떤 불규칙한 거. 불안정한 거. (사례 14)

성수기, 비수기 그 차이가...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크죠. (사례 15)

□ 다양한 보장제도에서의 배제

- 관광 분야 참여자들은 근로자들에게는 너무 기본적인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지원 등 다양한 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었음(사례 13, 19, 20). 일을 하지 않는 실직 상태나 은퇴 이후에도 소득 보장 제도는 전혀 없으며, 산재의 위험이 크지만 보험 가입조차 안돼서 안전 보장도 안되고 있었음.

다른 직장 같은 경우 30년 정년퇴임하면 퇴직금도 있고 그런 보장성이 많잖아요. 전혀 우리 그런 사대보험도 없지. ... 차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해버리면 우리가 굴러서 다치고 하는 경우도. 교통사고 났을 때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안전보장 이런 것도 안되고요. (사례 19)

지금 같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실직이라고 하면 실직일까요. 회사가 있었으면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제도적인 국가든 회사든 도움이 있을텐데. 저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례 13)

정규직이 아니니까 보험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사대보험 같은 게 없으니까. (사례 20)

□ 긴 근무시간으로 가사 및 돌봄의 어려움

- 프리랜서라 자유롭게 일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사돌봄에 수월한 경험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긴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가사돌봄이 어려웠다는 참여자들도 있었음(사례 14, 17, 18, 19).

전혀 안괜찮아요. 저희는 둘 다 여행업이거든요. 신랑은 버스기사고 저는 가이드로 추후에 만났는데 둘 다 바쁠 땐 하숙집이에요. 아침에 눈뜨면 씻고 나가고 집에 들어오면 씻고 자고 이러기 때문에 어지러워질 시간은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하긴 한데 거의 집안일을 할 수가 없죠. ... 저희가 일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세가 생기면 한명은 일을 못하는 상황인거거든요. (사례 17)

언니나 어머니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 그런 게 힘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일이 딱 나인투스스가 아니라 어쩔 때는 저녁도 먹어야하고 순간순간 바뀌요 일이. (사례 14)

너무 힘들고. 일을 저희가 성수기 때는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요. 집에 들어와서는 잠만 자는 거지. 애들하고 얘기아빠 밥 먹을 것 정도만. 근데 그것도 못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어른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사례 18)

□ 소득 증명이 어려워 대출 지원에서 배제

- 남편도 프리랜서인 사례 17은 신혼부부 주거 대출 지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소득 증명이 어려워 대출 지원을 받지 못했음. 또한 소득 증명의 어려움으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고 카드론과 같이 이율이 높은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도 안잡히기 때문에 대출도 안되고 지금 현재 해봤자 비싼 돈으로 카드론이나 이런 걸로 받을 수 있지 국가 은행대출이나 이런 걸 전혀 받을 수 없어요. ... 기

업은행에서도 원래는 예를 들어서 장기고객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돈도 소득증명서가 안되니까 그거 서류 한 장 때문에 제가 대출을 못 받았거든요 집을 살 때. ... 저희가 신혼부부라서 집을 살 때 디딤돌이라고 해서 주택 담보, 주택 대출 같은 거 할 수가 없었어요. 기준 조건이 다 맞았는데도 소득 증명이 어려워. (사례 17)

9) 앞으로의 계획

- 절반 정도의 관광 분야 참여자들은 앞으로 계속 가이드 프리랜서를 지속하고 싶어 했음(사례 14, 15, 19, 21). 이후 코로나19 이전처럼 수입이 보장된다면 지금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고, 자유로워서 프리랜서 가이드를 계속하고 싶어 하였음.

지금까지 프리랜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프리랜서를 이것도 메리트가 있어요. ... 코로나 이전 정도 수입이 손님이 들어오신다면 그냥 제가 취업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본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창업 그런 것도 더 신경 쓰일 게 많을 것 같아요. (사례 19)

여건이 되면은 프리랜서 쪽으로. ... 아무래도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심리적인 여유라든지 자유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례 15)

- 반면에 다른 관광 분야 참여자들은 앞으로 취·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였음. 사례 16은 고정 수입이 있고 4대 보험도 지원되는 일자리로 취업하고 싶어 했으며, 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원하고 있었음. 또한 사례 17은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가이드로는 아이 돌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비교적 출퇴근 시간이 규칙적인 곳으로 취업하고 싶어 했음.
- 사례 18 및 20은 앞으로 창업을 원하고 있었으며, 창업 자금 대출 지원 또는 창업 관련 교육 지원을 희망하였음.

취업하고 싶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버리면. 취업하면 4대 보험 되는 데로 고정 수입 있고요. ... (받고 싶은 지원은) 정보제공. 고용센터에서도 우리 지금 프리랜서들한테 어떤 정보 같은 거 일자리 같은 것 그런 것도 소개를 해주고. (사례 16)

(출산 등을 고려하고 있어서) 저는 취업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사무실 정도. (사례 17)

저는 창업 쪽으로 취업이 아닌 창업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 창업 지원으로는 신용자금 대출 이런 쪽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례 18)

창업을 생각해 가는 거죠. 차츰 차츰 이쪽으로 옮겨가는 일이 작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끊을 수 없잖아요. 그게 프리랜서니까 가능한거고. ... 창업 관련 교육 지원 받고 싶어요. (사례 20)

10) 지원받고자 하는 정책 욕구

□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지원

- 일부 관광 분야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가이드들에게 일감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해내거나 기간제 근로와 같은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사례 13, 16, 18, 19). 사례 19는 현재 제주도에 관광지 순환버스에 근무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가이드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가이드들을 위한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제주의 축제 같은 것 연계해가지고 관광 상품을 도 차원에서 개발해가지고. 우리 국내여행안내사협회 사단법인이 있으니 국내여행안내사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상품 개발에 신경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사례 16)

도에서라든가 그렇게 단체 축제라든가 행사를 많이 하면 가이드를 단체 차에 관광버스에 제주도를 알리고 좋은 점을 심어주고 안내사협회 있으니 임원들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그쪽으로 꼭 여행오시는 분만 관광으로 와서 가이드를 요청했을 때만 태우는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도 도에서도 이런 행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관광버스 투입 될 땐 가이드들도 안내사협회로 해서 문의를 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투입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좀 많이 해주셨음 좋겠어요. (사례 19)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기간제라든가 이런 혜택이라도 좀 더 있으면. 기간제 알바 같은 거 있잖아요 관공서에서. (사례 13)

□ 렌터카 등을 이용한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 허가

- 가이드가 운전하면서 소그룹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는 렌터카 등을 이용한 드라이빙 가이드를 허가해 주길 원하는 경우가 있었음(사례 14, 16, 19). 현재는 드

라이빙 가이드 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못하고,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임.

- 과거에는 관광객들이 단체나 패키지로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관광객들이 개인이나 소그룹으로 여행하는 것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음. 이처럼 소그룹으로 여행하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가이드들도 소그룹을 상대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드라이브 스루처럼 가이드들이 운전하면서 손님들 세 분이든 네 분이든 이렇게 원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운전하면서 렌터카 기사님 식으로 해가지고. 렌터카 운전하면서 가이드하면 (좋겠어요). (사례 19)

1인 여행업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그게 지금 전체 가이드들 전국 가이드협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드라이빙 자기가 운전하면서. ... 드라이빙 하면서 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불법이에요. 그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행패턴이 변하고 있는데... (사례 14)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필요

- 많은 관광 분야 참여자들은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였음(사례 13, 15, 19, 20, 21). 이들은 다른 직업군의 프리랜서보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한 보장을 받고자 하는 정책 지원 욕구가 매우 강했음.
- 또한 코로나19 상황이나 비성수기 때는 가이드 일감이 전무하기 때문에 실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였음(13, 19, 20, 21).

산재보험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고요. (사례 19)

4대보험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한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재라는 것은. ... 산재 이런 건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모든 분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사례 13)

□ 가이드 양성을 위한 진입교육 및 체험 학습 필요

- 사례 17은 가이드를 하고자 하는 젊은 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여행업의 긴 미래를 보고 가이드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가이드 양성을 위해서

는 가이드 자격증을 딴 이후에 실습 교육을 시켜주는 등 진입 교육이 필요하며,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에 대한 직업 체험 학습을 시켜주어 가이드에 대한 직업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그런 만남의 자리도 저희한테는 인생 공부기 때문에 교육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저희는 미흡했었고. 그리고 처음 진입하는 분들의 실습. (사례 17)

대학생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신입생들도 꿈이 바뀔 수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본다든가. 꿈이 아니어도. 체험으로. 그래서 이런 직업이 있다. 그리고 이 직업도 20대부터 해서 쪽쪽 미래가 있다라는 그런 향후 좀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례 17)

제주도가 여행업을 계속 바라본다고 한다면 조금 체험학습이라도 직업 그런 체험 학습이라도 이게 있었으면. ... 이런 직업에 있다. 입문 예를 들어서 컨벤션 같은데 가도 이런 이런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가이드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타서 같이 느껴보고 저런 직업도 애로사항은 있지만 장점이 되게 크게 부각되구나. (사례 17)

□ 관광 분야 종사자 대상 취창업 지원

- 사례 13은 프리랜서 가이드들이 코로나19로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창업 시 대출 지원, 정보 제공, 코칭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오랫동안 가이드 업무만 해왔던 이들을 위하여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취업에 대한 것. 창업을 한다면 창업 도움.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거의 청년창업 이쪽이 많더라고요. 기존에 관광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 상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13)

상담 플러스 만약에 전업을 하게 되면 창업할 때 비용 경제적인 면도 좀 저렴한 이율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더 가게 오픈을 창업을 하는 분한테 실질적인 세무적인 것, 법적으로도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런 것도 현실적인 그런 코칭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례 13)

□ 코로나19 이전에 받던 교육이 지속되길 희망

- 관광 분야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에 받았던 협회 또는 도 지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되길 바라고 있었음.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관련 교육들은 중단된 상태라 더욱 그러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음(사례 13, 16).
- 이 외에도 제주의 모든 것에 대해 다양하게 교육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참여자도 있었으며(사례 18), 관광통역안내사인 사례 13과 15는 제주도나 한국 전체에 대한 역사, 문화나 음식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기도 하였음.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육지에 체험 같은것도 많이 갔었거든요.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육지도 많이 체험하고 또 가서 경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특별나게 이제는 저희들이 바라는 건 그거 같아요. (사례 16)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스타일이 계속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비해서 문화관광부나 이런데서 하는 예산이 줄다보니까 타지방으로 가는 교육이 많이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주에 대한 애기만을 할 순 없어요. 한국역사, 문화 어떻게 보면 제주도 가이드들이 특히 영어 쪽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저희가 그쪽이 많이 약해요. (사례 13)

다.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과 정책 수요

1) 프리랜서로의 진입 경로 및 계기

□ 하고 싶은 강의는 구조적으로 프리랜서가 많음

-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서비스, 폭력예방교육, 웃음치료, 진로교육 등 관련 분야 강사로 일하려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방과후강사는 모두가 프리랜서라 구조적으로 프리랜서로 유입되게 되었음.
- 일부 참여자들 중에는 특정 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강의를 너무 하고 싶어서 프리랜서 강사가 된 경우가 있었음(사례 22, 25, 26). 강사로 활동할 때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그렇다보니 하고 싶은 분야의 강의를 하는 강사로 일하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프

리랜서가 되게 되었음.

- 방과후강사인 사례 27과 28은 음악을 전공하였는데 도 교향악단으로 소속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방과후강사는 아직까지 프리랜서 지위를 갖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프리랜서가 되었음.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강의가 너무 하고 싶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정말 프리로 혼자 강의를 하게 됐어요. (사례 22)

관광학과 대학에서 서비스 교육을 굉장히 많이 접했어요. 그때 저 일이 해보고 싶다. ... 제가 서비스 강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 서울에서는 어디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일하다가 제주에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프리랜서로 전향이 된 것 같아요. (사례 25)

저희 일 특성상 오케스트라 들어가면 시립 같은데 들어가면 공무원이 되잖아요. 저는 거기를 못 갔죠. 거기를 못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프리랜서를 하죠. (사례 28)

□ 결혼 및 출산 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로 강사 진입

- 일부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로서 프리랜서 강사를 선택하게 되었음(사례 24, 26, 30). 특히 프리랜서 강사로 진입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아서 더욱 접근이 수월했던 것으로 보임.
- 일부 참여자들은 일을 하면서 아이 돌봄 혹은 가족 돌봄이 가능한 프리랜서로의 선택을 통해 경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하였음. 특히 아이가 어리거나 가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었던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함으로써 경력 유지와 동시에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일자리를 선호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프리랜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례 24는 매일 고정적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나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이 단절되었고, 이후에 보험업과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편찮으신 가족 돌봄으로 이마저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자 웃음치료사라는 프리랜서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음.

프리랜서로 진입하게 된 경로는 결혼하면서 이후예요. 결혼하면서 애들도 병행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깐 정상적인 출퇴근 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기 키워놓고 바로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어요. (사례 24)

프리랜서 제일 처음 진입할 때 아이들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저 역시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프리랜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르신을 모시고 계속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에 부양가족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프리랜서였습니다. (사례 26)

애기 낳기 전에 요가 받다가 그 후에 애기 낳고 요가 계속 운동 다니다가 지도자 과정 있어서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애기도 있고 하니까 제가 다시 병원에 가긴 그래서 한 타임씩 일하는 게 계속 이렇게 됐어요. (사례 30)

□ 지인을 통한 소개와 정보를 통한 프리랜서로의 진입

- 일부 교육 분야 참여자는 지인을 통한 소개를 통해 프리랜서 강사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교육 프리랜서로 진입하게 되었음. 특히 지인들의 소개로 강사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그 이후 무급으로 강사 경험을 한 후에 프리랜서 강사로서 활동하는 경로가 나타났음(사례 23, 28).

당시에는 웃음치료사 육성과정에 우연히 제가 참여를 하게 되어서 그 때 자격증을 받고 그때부터 같이 동료랑 강의할 때 같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다니다보니까 한 기관에 재능기부를 하게 됐어요. 재능기부를 하게 되면서 그 계기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된거죠. (사례 23)

방과후강사는 그게 몇년도였지. 2천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2003년? 2천년대 초반에 방과후라는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게 생겼다.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해보래요. (사례 28)

2) 교육·훈련 경험

□ 프리랜서 진입에 큰 힘이 된 정부 지원 교육훈련 사업

- 교육 프리랜서 참여자들 중에는 프리랜서 강사 진입 전에 필요한 교육을 고용노동

부 취업 지원 사업으로 받았던 경험이 있었음(사례 22, 25, 29). 이들은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서 본인이 진입하려는 교육 분야 세부과정을 수강함으로써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획득하였음.

- 사례 25는 서비스 강사로서 필요한 교육들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신청하였고, 이후에는 다양한 자격증 취득함으로써 프리랜서 강사로서 시작할 수 있었음. 사례 29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하여 카드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통하여 전공 분야인 컴퓨터 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컴퓨터 분야 방과후강사로 진입할 수 있었음.

스피치 무슨 상담도 그렇고. 처음에 강의는 취업 관련 강의였거든요. 취업 관련 교육은 자격 이수나 이런 것들은 육지에 가서 다른 지역 가서 받아와야 됐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가서 그런 고용노동부 사업 관련 교육 받아오고. 그렇게 좀 어쨌든 세분화 시켜서 교육을 받긴 했죠. (사례 22)

일단 프리랜서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처음 강의를 시작해야겠다고 했을 때 진짜 막연하잖아요. 아는데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이 있어요. 서비스 강사 양성과정을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 학원에서 서비스 강사 과정을 다 밟고 수료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폭력예방교육을 하면서 폭력예방교육도 성희롱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간기업에서 자격증 수료해서 그래서 그 과정 수료하고 자격증 받아서 하다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위촉을 받아서 했죠. (사례 25)

□ 프리랜서 강사로 진입하기 위해 사설 교육훈련을 받음

- 프리랜서 강사로 진입하기 위하여 스스로 교육훈련을 찾아 나선 경험들도 있었음. 참여자들 중에는 주변의 동료나 지인의 소개로 교육을 받기도 하였음. 특히 관심 있는 교육 분야에서 강사가 되기 위해 모인 동료 및 지인이 새로운 강의에 대한 정보를 주었으며, 이런 강의들을 듣고 교육받으면서 역량을 키워 본인도 프리랜서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음(사례 22, 23, 24).
- 또한 본인이 관심 있는 교육 분야의 프리랜서 강사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사설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공부하여 강사 프리랜서으로써 전문성을 키워 강사로 진입한 경우도 있었음(사례 27, 30).
- 프리랜서 강사로 진입하는 과정 또는 강사 초기에는 교육훈련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 다니면서 알게 된 분이 웃음교육 받으러 갔다가 처음에 웃음교육 무슨 센터 같은데 알아보다가 거기서 받고. 같이 받게 된 분이 또 다른 교육 받으러 가신다고 하셔서 같이 같이 계속 다니다보니까 이 교육 받고, 그 교육 가서 만나면 이분이 다른 교육 하고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 취업 관련이나 이미지메이킹, 스피치 그런 것들 컬러링 이런 것. (사례 22)

3~4개월 정도는 같이 일하시는 강사님들 현장에 따라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학습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 기회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디 종합복지관에서 재능기부 좀 해달라고 해서 기회를 잡았던 것 같아요. (사례 23)

(대학전공 외) 민간 자격증 있잖아요. 음악심리치료 1급 이런 거. 아니면 스토리텔링 이런 자격증을 그냥 혼자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랬던 적은 있어요. (사례 27)

요가원에서 열리는 지도자과정을 수료했어요. 한 달에서 두 달. (사례 30)

□ 전문성 강화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참여

- 교육 프리랜서 강사들은 더 많은 일감을 획득하거나 프리랜서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스스로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했음. 이를 위하여 참여자들은 프리랜서 강사가 된 이후에도 필요한 교육을 직접 찾아서 수강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왔음(사례 22, 24, 25, 26, 30).
- 노인 대상 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 사례 23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좀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하기도 하였으며, 가족상담 학과로 편입을 해서 현재까지 공부를 지속하고 있었음. 또한 폭력예방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사례 25와 26은 지속적으로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의를 수강하면서 교육받고 있었음.
- 프리랜서 강사 진입 전에는 진입을 위한 국가지원 교육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정작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한 뒤에는 대부분이 사설 교육기관에서 자비로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교육훈련을 하고 있었음. 이처럼 프리랜서가 된 이후에는 주로 자비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제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어느 강사가 온다 그러면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제가 찾아가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가지 못하고 오픈되는데 있잖아요.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제주 인력개발설문대여성센터라든지 그런데서 특강으로 온다 그러면 만나 제쳐놓고 달려가서 이제 그 강사님하고 교류를 해요. (사례 24)

이분들(노인)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복지사를 생각을 했어요. ... 그래서 교육원을 통해서 평생교육학습센터를 통해서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가족상담 쪽으로 편입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사례 23)

저는 *****연대에서 여성주의 상담이란든가 혹은 성매매 관련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피해여성과 관련된 교육들이 많이 진행됐거든요. 그런 교육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례 26)

이후에 그냥 프리랜서로는 다니면서 자비죠. (사례 22)

3) 교육 분야 프리랜서의 업무 내용 및 일하는 방식

□ 주된 업무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

- 교육 분야 참여자들의 주된 업무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방과후강사 외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강의 주제는 웃음코칭과 부모 교육, 진로 교육, 폭력예방교육, 요가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음. 일반 기관이나 회사에서 당일 몇 시간 동안의 강의를 요청받기도 하고, 공공기관에서 의무교육 등으로 강의에 초청받기도 하였음. 또한 이들은 강의를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 강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방과후강사의 경우에는 음악과 컴퓨터 분야 강의를 하고 있었음. 참여자들 외에도 방과후강사의 교육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고 하였음.

웃음코칭이 전부가 되서는 강의를 할 수 없어요. 웃음코칭은 거기다가 옵션이예요 옵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세분화 되는게 뭐냐면 어르신들한테 가면 치매 교육 쪽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이나 국토부 같은데 가면 성인 쪽으로 가면 소통 쪽으로 강의하고요. 애들한테나 부모 교육 같은 때는 인성 쪽으로 강의해요. (사례 24)

저는 폭력예방교육을 주로 하고요. 지금 2015년부터 활동을 했거든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활동을 하는데. (사례 26)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그거에 따른 이론적인 것. (사례 27)

그냥 컴퓨터로 아이들 기초 부분이랑 활용할 수 있는 OA 부분이랑 자격증 과정부분 이런 부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사례 29)

□ 요청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강의 시간과 기간

- 강의 시간과 기간은 강의 요청기관에 따라 달라졌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음.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강의 시간이 당일 1~2시간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았음. 다만 기업 혹은 기관 강의의 경우, 기간을 7~8일을 정하고 매일 7시간씩 강의하는 캠프 방식도 있었음. 이 경우의 강의들은 지속적인 것이 아닌 일회성으로 근무기간이 매우 짧았음.
- 한편 방과후강사는 학교에서 시간표에 따라 하루에 1~6교시를 맡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루에 2시간이나 4시간을 맡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근로기간은 대체로 1년 정도였으나 이보다 더 짧은 경우도 있었음.

근로시간은 보통 한 강의를 하게 되면 어르신강의는 거의 2시간을 해요. 2시간 정도를 하고 그리고 진로강의 같은 경우에는 4시간 강의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캠프가 구성이 되면 7~8일정도 하루에 7시간씩 8일정도 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1시간 짧게 강의를 하는 경우 각각 다 달라요.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강의시간은 근로시간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례 23)

근로시간 강의시간은 거의 1~2시간 정도. 특히 폭력예방교육은 길어봐야 4시간이 고요. 근데 4시간을 다 하지도 거의 못해요. (사례 25)

40분이 한 타임이고 그건 학교마다 달라요. 제가 나가는 학교는 한 번에 가서 여섯 타임. 그 다음에 한 학교 하나는 한 번에 가서 다섯 타임. 아침에 가니까 좌라락 하고 와요. (사례 28)

- 강의 근로시간은 1~2시간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실제로 강의 내용을 준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일부 참여자들은 1시간 정도의 강의 준비를 위해 밤을 새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하였음(사례 22, 26).

업무내용은 뭔가 제가 강의와 관련된 것들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근로시간은 이게 정작 일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그 시간은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내용도 다양하고 근무시간이라고 해서 딱 단정지어서 한시부터 다섯시까지 아니라 이 관련된 일을 오늘 밤새하거나 준비해서 이렇게 구분이 없는게 프리랜서의 특징이기도 하죠. (사례 22)

보통은 다 자고 밤에 일을 많이 하죠. 프리랜서들은 다 그러실 것 같긴 한데 밤에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잠이 되게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례 26)

□ 대기실이 없거나 준비 공간 부족한 경우 많음

-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여러 곳의 강의를 나가다 보니 강의하는 장소들도 다양했고, 이에 따라 근무환경도 다양하게 나타났음. 그리고 대기실이 없는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참여자들이 강의 대기 시에 차에서 대기하거나 10분 전에 도착하여 강의 장소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사례 4에 의하면 강의장이 없는 경우도 많아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하였음. 프리랜서다 보니 강의 준비할 공간이 마땅히 따로 정해진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분야 특성상 교육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집 외에 따로 준비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였음.
- 다만 방과후강사 사례 27과 28은 대기실이 있다며 좋아했으며, 요가강사인 사례 30은 근무환경이 쾌적하다며 만족해 하였음.

근무환경도 이게 강의를 나가는 곳마다 다르니까 이게 진짜 유동성이 있고요. ...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그것도 사실은 되게 부족해요. (사례 22)

보통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기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사전 준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대기실이 있는게 아니라 저희가 10분전에 들어가거든요. 차에, 차가 대기실인거예요. 차에 있다가 수업 10분전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하고 그 다음에 따로 대기실은 학교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례 23)

근무환경도 기업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강의장이 갖춰진 곳도 있고요. 요즘 강의장이 갖춰지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아요. (사례 25)

(강의 준비하는데) 불편한 점은 학교에서 할 땐 괜찮은데 공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리랜서가 뭔가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학교(학생)에 몸을 담고 있어서 학교에 가는 건데 프리랜서가 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있다면 그런 공간에 가서 했을 것 같아요. (사례 26)

□ 강의 수강자들의 불만이나 비하 발언 등을 감수

-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강의 수강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 사람들과 대면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렇다 보니 강의 수강자들의 불만이라든지 불편사항, 비하 발언 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즉 이들은 심한 감정노동을 하고 있었음(사례 22, 24, 26). 특히 사례 22는 소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혼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자들이 더욱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음.
- 사례 24는 수업 중에 역정을 내는 분들이 있다고 하였으며, 사례 25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과정 중에 비하발언이나 반감을 가진 언어를 듣기도 하였음. 사례 22는 감정노동이 심하여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였음. 또한 방과후강사인 사례 27은 학부모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아서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

그냥 어디 소속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혼자 온 거죠. 그냥 그분들 생각에는 뜨내기 강사인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거. 그런 인식들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힘들게 막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 저는 이게 프리랜서 강의도 그렇고 감정노동이 되게 심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제대로 못 푸니까. (사례 22)

가끔가다가 수업할 때 역정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점심시간 됐는데 시간을 오버시킨다거나 그랬을 때는 역정 내시는 분들 때문에도 배가 고프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몰랐습니다. 하면서 바로 끊어가지고 그 상황을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니깐. (사례 24)

폭력예방교육은 반감이 좀 심한 교육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비하발언을 한다든지 반감을 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죠. (사례 25)

누구 엄마가 이래가지고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이걸 끝나고 나서. 불러 간 거예요 제가 학교에 교수실에. 근데 저는 되게 그랬던게 무슨 부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냥 선생님 다 모아놓고 저는 혼자. (사례 27)

□ 단체행동 경험 거의 없으며 어려움

- 방과후강사를 제외한 프리랜서 강사 참여자들은 노동조합이나 협회 등을 통한 단체행동의 경험이 없었으며, 시도한 경우도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강사를 원

하는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설 교육원이 있지만 이는 회사이지 교육 분야 프리랜서들의 노동 보호를 위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니라 하였음.

- 또한 교육 분야는 관광 분야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협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들이 원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통로도 막혀 있는 상태였음. 이에 사례 23 등은 교육 분야 프리랜서들을 위한 협회라도 있으면 보호나 지원 등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였음.
- 다만 방과후강사 중 사례 29는 제주지역 방과후강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방과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음.

우리 강사들은 일대일인거잖아요. ... 강사들이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경험해본 적은 없지만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게 되면 어디 가서 호소할게 없는 거예요. ... 물론 노조를 떠나서 도 자체 내에 협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본인이 조금 더 든든한 마음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사례 23)

자기네들이 소속하는 무슨무슨 연구소. 무슨 발전소. 무슨교육원 해가지고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처럼 교육원 해가지고 사관학교라든지 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놓는 소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해가지고 같이 뭉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사례 24)

제가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너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너무 방과후강사를 너무 무시하는 정책을 계속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조가 있는걸 알고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례 29)

□ 다양한 루트를 통한 일감 수주

- 방과후강사를 제외한 프리랜서 강사들은 인맥이라고 불리는 강사들끼리의 비공식적 교류를 통해 일감을 서로 소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는 여러 개의 교육원과 프리랜서인 파트너 강사라는 형태로 관계를 맺거나 교육의 주최기관과 위촉강사라는 형식의 관계를 맺은 뒤 강사 일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폭력예방교육을 하는 사례 25와 26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강사 인력풀이 구축되어 있어서 이를 보고 연락이 와서 일감을 얻는 경우가 많았음.

- 방과후강사 참여자들은 공식적으로 도 교육청 사이트를 통해서 강사 채용 정보를 확인하여 일감을 구하고 있었음. 도 교육청 사이트에는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 학교의 방과후강사 공고도 게시되었음.

제주도 강사님이 다른 육지지역 강사님 알고 계시면 그 사업할 때 같이 하게 되는 거라고. 제가 육지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저는 취업 관련된 일을 했어서 취업 관련된 그분들이 제주도에 오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때는 같이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 그냥 어쨌든 소개인거 같아요. 인맥이나 소개. (사례 22)

본인이 그 교육원을 통해서 일이 들어오잖아요. 일이 들어오면 강사님들한테 가라고 나눠주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원에 파트너 강사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일을 주면 가고. (사례 23)

강사풀에 있는 정보를 보고 교육을 의뢰하시면 가서 교육을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하는 등. (사례 26)

저희 도 교육청 사이트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하죠. 도 교육청 사이트 들어가서 그거보고 하죠. 그래서 여러 학교에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요. (사례 28)

□ 프리랜서 강사는 계약 거의 안하며, 강의료 받지 못하거나 지연 경험 있음

- 방과후강사를 제외한 프리랜서 강사들은 당일 1~2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강의료지급확인서 정도만 작성하고, 계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방과후강사는 학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서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고 있었음.
- 일부 프리랜서 강사 참여자들은 강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지급 지연을 경험한 적이 있었음(사례 22, 25). 공공기관에서는 대체적으로 강의료가 잘 지급된 반면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음. 사례 25는 회사 소속이 아니라 혼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음.
- 반면에 방과후강사들은 도 교육청과 계약을 하다보니 강의료를 못 받거나 지연된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방과후강사인 사례 29는 강의 수당이 제 날짜가 아닌 한 달이 미뤄져서 지급된 경험이 있었음.

강의료를 못 받은 적은 있죠. 안줘요. 그냥 뭐 강의료가 보통은 기업에서는요. 강의료가 좀 늦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두세 달정도 늦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다 한 달 내로 입금을 바로 해주시거든요. 근데 개인업체에서 못 받은 일들이 좀 있어요. ... 혼자 일하니까 뒤에 누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강의료 받기가 참 그래요. (사례 25)

지연은 거의 없기 한데 교육청에서 주는 데가 월급을 제가 늦게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설 연휴가 그때 끼었을 텐데 원래 그 전달에 나왔어야 하는 급여인데 그 다음 달에 두 번이 나왔거든요. (사례 29)

□ 급여는 건당 또는 월급으로 지급, 경력은 산정되지 않음

- 방과후강사를 제외한 프리랜서 강사들의 급여 지급방식은 모두 건당으로 이루어졌음. 반면에 방과후강사는 1년 계약을 통해 월급 형식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음.
- 그리고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급여는 경력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억울해 하였음. 공공기관에선 강사 수당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경력보다는 학력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음. 또한 프리랜서 강사 급여는 강의 요청기관이 정하는 강의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수당이나 급여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일한 경력보다 강의료 지급 기준이 있는데 뭔가 학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오래 일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 조금 스펙이나 학력을 더 쌓아서 그 강의료 지급 기준에 도달하는 게 저희한테는 더 인건비를 많이 받는 거지. 내가 이 일에 십년 일했어. 근데 강사 기준에는 학력도 그렇고 뭔가 없어. 그러면 그냥 알음알음 그냥 기관에서는 십만원 주고 이십만원 주고 이런데 그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사례 22)

급여가 높아진다는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개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가 많아지면 급여가 올라가는 거고 일자리가 없으면 내가 근무시간이 많더라도 기간이 많더라도 일이 없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사례 23)

□ 급여 외 받고 있는 지원 거의 없음

-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급여 외 복리후생 등의 지원이 거의 없었음. 식사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전무했으며,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많지 않았음. 방과후강사의 경

우 시외권인 경우 시외버스 금액 정도가 지원되었으나 다른 프리랜서 강사들은 제주에서 서귀포시로 이동하더라도 교통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전무했음.

- 또한 강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강의 준비를 위한 공간 지원도 미약했음.

복리후생에서는 전혀 없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을 쫓 하고 있긴 하지만 건강검진과 관련된 것들은 혜택이 없고 뿐만 아니라 세금들을 내긴 하거든요 프리랜서도.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하는 어떤 복리후생 같은 처우들. 복지와 관련된 개선들은 전혀 대상이 되지 않죠. (사례 26)

(차량지원비) 그게 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버스비 정도. 시외버스비 정도. 차량 지원이 되는 것도 시내 학교인 경우는 아예 지원이 안되고, 시외 학교인 경우는 이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시외버스 금액 정도로. (사례 27)

(식비) 안되죠 지원이.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차안에서 계속 먹는 거예요. (사례 27)

4) 소득 및 일의 안정성 정도

□ 낮은 강의료로 인한 소득 불만족

- 많은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현재 강의료가 낮아서 소득에 불만족하였음. 1~2시간 정도의 강의를 진행하더라도 준비 시간은 최소 5시간에서 며칠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강의료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단지 1~2시간 이루어지는 강의 자체에 대한 노동만 강의료에 반영되고 있었음. 이에 대해 참여자들은 매우 잘못됐고 준비 시간이 반영된 강의료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과거에 비해 전혀 상승하지 않은 강의료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였음.
- 사례 24는 일주일에 2~3군데 강의를 하더라도 한 시간에 4만원 정도 되는 강의료로는 월 6~7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적은 소득으로 많은 강사들이 다른 분야로 이탈하기도 한다고 하였음.

그 다음 시간 대비 뭔가 한번 갔을 땐 10만원, 다른데 갔을 땐 5만원 이렇게 시간 텀이나 강의료 지급에 그거에 맞춰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 강의를 가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거나 시간 쓰는 게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그 소득부분은 조금 약간 항상 조금 더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사례 22)

소득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니까 물론 기관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을 받는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사례 23)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처음 강사라는 직업을 강사 쪽으로 해가지고 잡으신 분들은 엄청 작은 편이죠. 왜냐하면 기본이 한 시간에 4만원,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2~3군데 가다보면 일주일에 12만원이면 4주하면 세금 떼잖아요 또. 세금을 떼버리고 그러면 6~70만원밖에 안돼요 한달 수입이. 그러다보니깐 강사라는 메리트는 있는데 강사는 말고 다른 쪽으로 유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돈 갖고는 생활하기 힘들니까. (사례 24)

사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년 전에 받았던 강의료보다 지금이 적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죠.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이 좀 그래요. 제가 처음 강사라는 걸 시작할 때만 해도 강사가 많이 없었어요. ... 지금은 강의료가 강사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강의료가 점점 내려가요. 강의료도 많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한 시간 강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시간 강의면 한 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 시간 강의를 위해서 3일 준비할 때도 있고요. 최소 5시간은 준비해요. 그런데 제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소득이 매우 적죠. (사례 25)

어떤 내가 이쪽 일을 해야 돼 라는 소명이 있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강의료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래서 이 강의료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가는 걸 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할 회의가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 페이가 되게 적었어요. (사례 26)

- 방과후강사 중에는 1시간 강의료가 적다는 참여자들이 있었음(사례 27, 29). 몇 군데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방과 후 강의를 해야 하는 이들로서는 적게는 2시간 강의를 위하여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이동하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음. 사례 29는 과거에는 방과 후 강의를 듣는 학생들 수로 강의료를 계산해서 1명당 2만원씩해서 수입을 얻었는데 이제는 강의료 산정 방식이 달라져서 한 시수 당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어 소득 자체가 삭감됐다며 억울해 하였음.

보통 4~50분인 거죠. 말이 한시간인거지. 1시수니까. 저희 그렇게 받아왔다가 저는 그게 이동거리 시간이라 다 포함하면 3시간을 거기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러다가 3만 4천원으로 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타산이 안 맞기도 하고요. (사례 27)

일단 저희가 강의료 부분도 되게 많이 줄었어요. 수강료가 저희가 원래 2만원이었던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달 수강료가 2만원이었는데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물가 계속 올라도 항상 2만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작년에 수강료를 깎아버린 거예요. 다 물가 오르는데 수강료를 깎아버린 거예요. 학원수강료도 다 올랐잖아요. 사교육비 수강료도 다 오를 때 교육부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수강료를 깎아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강료를 깎아버리고 이제 10명 미만도 폐강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저희가 그전에는 한두명 가지고도 수업을 했었어요. 그니까 8명인 친구가 신청을 해도 애네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희 월급이 진짜 40에서 60프로 이상 삭감됐거든요. (사례 29)

- 다만 강사 강의료가 적절하거나 시급이 괜찮다고 하는 참여자들도 있었음(사례 28, 30). 방과후강사인 사례 28은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한 시수 당 3만 몇 천원 정도가 적은 편은 아니라며 만족해 하였음. 또한 요가 강사인 사례 30도 한 시간 당 강의료가 3만 몇 천원 정도 하는데 시급으로는 꽤 높은 금액이라고 하였음. 물론 이들도 프리랜서 강사는 일감이 불규칙적이라서 시급이 높다고 하여도 소득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에는 공감하였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일이 시간당 페이가 높아요. 그래서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런건 솔직히 괜찮다 생각해요. ... 시내가 3만2천원이예요. 3만2천원이고 3만원도 있어요. 그리고 시외는 3만6천원이예요. 6천원인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동결된 금액이잖아요. 예전에는 두당으로 갔어요. 한 명당 얼마. (사례 28)

40분에 그 금액이예요. 그니까 솔직히 적은 건 아니죠. 저는 솔직히 적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최저시급에 비하면 높은 거죠. 저는 낮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종일 밀감만 따도 7만원인데 낮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사례 28)

50분에서 60분 수업을 하거든요. 저희가 3만원에서 3만5천원을 받는데 저희가 하루에 하고 싶은 시간에 골라서 하는 거니까 제가 원해서 그것만 딱 한거고 그 정도만 벌어도 저는 생활이 가능하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사례 30)

□ 1~2시간의 건당 강의 등 불규칙한 일감으로 심한 고용불안

- 교육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일감이 매달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요청이 있을 때 시간 당 강의를 받는 형태로 수입을 얻고 있음. 또한 방과후강사 같은 경우에는 학기 혹은 전년도에 강사신청을 통해 신청을 하고, 학교가 서류검토와 면접을 통해 강사를 채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프리랜서 강사들은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1~2시간의 건당 강의 일감으로 인하여 고용불안이 매우 심했으며, 경제적인 불안정도 크게 느꼈음(사례 22, 23, 26, 27, 28, 29, 30).
- 특히 방과후강사의 경우 학기 초마다 일년 간의 강의를 얻기 위하여 매번 신청을 다시 하고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음. 또한 방학 기간에는 수업이 아예 없어서 이 기간에는 방과후강사들은 소득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었음. 이처럼 짧은 강의 채용 기간과 방학 동안의 소득 없음은 방과후강사 참여자들을 매우 힘들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불안정성을 많이 느끼게 하였음.

소득이 항상 평균적으로 쪽 있는게 아니어서 일단 그게 조금 불안정하고. (사례 22)

일이 많아서 갈 때는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갈 때도 있어요. 주말 빼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갈까 말까 한 적도 있어요. 기존에 했던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강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서를 내더라도 기존에 해온 강사들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은 없고 강사들은 많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례 23)

우리도 해마다 똑같이 그렇게 조력하고 지원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수도 있죠.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텃이 한번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일감이 안 생긴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수입에 대한 불안정성은 굉장히 높고 그것 때문에 많이 이탈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고는 싶으나 이런 스타일을 원하시는 선호하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탈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는 아마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한 걱정. (사례 26)

저희 같은 경우는 1년마다 계속 불안해요. 갱신행 같은 느낌이에요 보험 갱신 같은 느낌. 근데 보험은 갱신이라도 되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력서를 넣어서 안 될 확률도 있는 거거든요. 그전학기에 수업을 잘 못했다든가. 이걸 저희가 잘못된 건데 지각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미안했다든가. 아니면 어머니들이 저희가 이것도 있어요. 한학기마다 어머니들 선호만족도조사. (사례 27)

저희가 방과후 강사가 1년 계약직이에요. 1년인데 1년을 다 계약하진 않아요. 중간에 방학때나 학교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한두달 정도 막 쉬게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라고 계약서를 써도 실제로 수업하는 달은 10달. 그정도. 9달 10달 정도밖에 안되는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까 9달을 가지고 번수입으로 12달을 살아야 되는 상황인거죠. 그런게 조금. 나머지 3개월은 학교에서 나몰라라 하는거니까. 수업 안했으니까 돈 받아가지 말아야 되지. 그건 맞잖아요. 저희가 수업을 안했으니까 안받는게 맞긴한데 근데 계약서는 그렇게 썼으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도 어떻게 보장을 해달라는건데 학교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못하는거였잖아요. (사례 29)

저희가 1년 계약직이다보니까 내년에 채용이 될지말지 상황을 모르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학교도 원서내고 저기학교도 원서내고 진짜 너무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매해마다. 고용불안인거예요 항상. (사례 29)

5)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 비필수산업이라 아예 제외된 강의들, 급격한 일감 감소

- 거의 모든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한 일감 감소를 경험하였음. 특히 작년 상반기에는 강의가 전면 취소되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났음. 교육 분야의 경우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고,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필수 산업이 아니다 보니 강의 교육을 진행하지 않게 되어 코로나19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산업으로 나타났음.
- 방과후강사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작년에 학교가 일제히 폐쇄하면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을 겪게 되었음. 다만 현재는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음.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제 다시 학교가 폐쇄할지 모를 불안감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음.

저희는 보통 취업이나 인성이나 이런 상담은 학교 쪽으로 되게 많이 갔거든요. 학교 사업이나 수업을 따오는게 코로나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다 취소, 연기 계속 그러면서 코로나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았죠. (사례 22)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수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부터 일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3월 달에는 거의 아예 일을 3, 4, 5월까지는 거의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례 23)

코로나가 딱 들어오면서 수입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깐 다른 건 먹는 거는 코비드가 와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지만 강사는 섭외를 안해도 되거든요. 없어도 될 직군처럼 빠져버린거죠 저희들이 하는 일이. (사례 24)

코로나 덕분에 학교가 운영을 안해버린거예요. 그래서 3월 전까지 무직이 되어버린거예요. 갑자기 백수가 된거죠. 근데 코로나다보니까 접촉을 하면 안되는 상황인거 같아요. 개인레슨이 있고 그룹레슨이 있었어도 갑자기 줄줄이 다 취소가 된거예요. 선생님 당분간 쉬게요. 코로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서요 죄송합니다. 이려다보니까 저는 줄지에 백수가 된 거예요. (사례 27)

과목 폐강된 거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방과후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난리났던데 지금 막. 현수막 걸고. (사례 28)

학교에서도 일단 어머니들이 왜 운영을 안하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런 진 모르겠는데 방과 후도 정상운영을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수입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죠. (사례 27)

지금은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한군데 빼고는 다해요 학교는. 다 해서 괜찮아요. ...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그렇게 되는거죠. (사례 28)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

- 코로나19로 인한 일감 감소는 이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렵게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었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적금을 모두 깎 참여자도 있었으며(사례 27), 프리랜서들의 경우 은행 대출이 어려워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참여자도 있었음(사례 23, 24). 사례 24는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다 이마저도 어려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집 담보로 대출을 받기까지 하였음.
- 대출을 받은 참여자들도 있었지만 대출을 받는 것마저도 어려웠던 참여자들도 있었음. 사례 30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워져 은행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프리랜서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음. 또한 사례 29는 기존에 빚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대출이 어려웠음.
- 특히 사례 29는 네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을 해보았으나 과거 있던 수입이 전산에 남아 있어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하지만 해당 수입은 개인 빚을 갚느라고 모두 사용하고 생활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사정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음.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라도 다니려고 했던 방과후강사 사례 28은 언제 학교에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음.

나가야 되는 지출 그런 부분 자체가 경제적인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 신랑이 수입이 조금 있어서 수입으로 좀 버텼던 것 같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자기가 안벌었으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왔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 23)

저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나가는 지출비용들이 일단 없으니까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았어야 됐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대출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프리랜서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득도 소득지출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저 같은 경우도 보험가입되어 있는 약관 대출 거의 받아서 썼던 것 같아요. (사례 23)

생활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 수입으로 대체를 하다가 딱 없으니까 모아놓은 돈이라는게 없잖아요. ... 제일 먼저 손해본데가 보험약관 대출. 약관대출 해가지고 천만원 넘게 있을거예요 아마. 그렇게해서 대출을 받았죠. 그게 부족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죠. 마이너스통장 만들고 그 다음에 집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또 받고. ...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된게 한 3~4천 된거 같아요. (사례 24)

고정지출 금액이라는게 있는데 수입이 없다보니까. ... 제가 1월부터 3월까지에는 아예 수입이 없었어요. 그때는 되게 힘들었죠. 기존에 있던 돈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적금을 다 깨고 이렇게 하니깐 겨우 한거였지 다른 분들은 어땠을지 상상이 안가요. (사례 27)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6개월 정도. 1월부터 수입을 아예 못한 상태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애를 좀 넷을 키우다 보니까 빚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수입이 없다보니까 빚을 계속 지게 되는거죠. 근데

더 이상의 대출한도가 안된거예요. 카드도 다 막혀버리고 한도도 안되고. 은행에 가서 대출 알아보려고 해도 대출이 안된다는거예요. (사례 29)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하러 갔었는데 이게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집이 사글세 살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1년 된 중고 마티즈 하나 있거든요. 애들 어리다보니 아프면 병원 왔다갔다 해야 되고 해서요. 4년 전에 저희가 사무실 갖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팔았었거든요. 거기 팔아가지고 1억 5천이 전산 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원을 하나도 못받았어요. ... 너무 창피한데 진짜 쌀이 없어가지고 쌀 꾸러 다녔거든요... (사례 29)

□ 프리랜서 코로나19 지원금

- 사례 22를 제외하고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모두 프리랜서 코로나19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았음. 생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는 참여자들이 많았음(사례 24, 26, 27, 29, 30). 하지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라 코로나19 지원금이 다소 도움이 되었지 가게 경제에 큰 도움이 된 건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었음(사례 23, 25, 28).
- 사례 22는 강의를 하는 기관들과 대부분 계약을 하지 않아서 경력 증명의 어려움으로 프리랜서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음.

코로나지원금이 나와서 그나마 조금은 괜찮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없는 것보단 나오니까 감사하게 받긴 했죠. (사례 25)

소득이 저는 경로당, 학교, 그 다음에 탐라교육원 상담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가 계약서를 쓰고 서류 중에 뭔가 제출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격이 안돼서. ... 저희가 보육교사들은 시청에서 보육교사 경력증명서를 발급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뭔가 몇 년도에 이 사업했고 몇 년도에 이 사업했고 본인이 기억해서 기입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 몇 년 했어 이러면 그게 경력이 되는 거지 이게 쪽 관리해주는 그것도 없고. (사례 22)

6) 불완전한 사회보장제도

- 현재 교육 강사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며,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경

우에만 자영업자로서 가입이 가능함.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님.

- 이에 본 연구 참여자들은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건강보험의 경우 가구주의 피보험자 자격이나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음. 반면, 교육 분야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거의 없어서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참여자들은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 강의료가 높지 않고 소득이 불안정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며, 본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음. 그럼에도 일부 참여자들은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노후에 대해 보장 받으려고 하고 있었음.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좋죠.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 왔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사항이 없고 건강보험이야 저희 남편 이름으로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도 가입을 하면 좋은데 수입이 일정치 않잖아요. (사례 23)

어쨌든 소속이 있거나 고정급이 있어야 세금 떼고 이려잖아요. 근데 진짜 한 달에 못 벌 때 십만원 이십만원 버는데 거기서 4대 보험 떼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아예 소득이 없는 때도 있어서 소득과 소속과 관련된 거여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례 22)

가입을 국민연금을 꼭 가입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을 가입한 이유는 저의 노후와 관련되어서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가입했던 거고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아까 고용보험, 산재 같은 경우는 가입하는 길이 있는지 혹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여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보가 없어요. 정보에 취약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에 대한 사업이나 혹은 어떤 정책들도 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례 26)

- 공공부조제도를 이용해본 참여자들은 한 명도 없었음. 사례 27은 집이나 차량이 소득으로 잡혀서 공공부조제도의 이용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음. 또한 사례 29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공공부조 신청을 해보려고 했으나 부모님 소득 등을 조회해본다는 얘기를 듣고 부담스러워서 신청 자체를 하지 않기도 하였음. 공공부조제도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음.

이것도 되게 애매모호한 게 소득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산출하는 금액이 재산세, 집, 차, 차량가액을 다 포함한 점수를 합산하는 거다보니까 저는 수입이 별로 크지 않음에도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사례 27)

- 대부분의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자신들을 잘 보호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음. 왜냐하면 프리랜서들에게는 4대 보험 혜택 자체가 없으며, 고용 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었음. 참여자들은 프리랜서들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하였음. 또한 공공부조제도도 이용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실제로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임.

산재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건강보험이야 내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연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잘 보호되어지고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 개인적으로 둘 수 있다고 하면 비용부담이 일단은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리랜서들한테 다양하게 포용적으로 제도가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사례 23)

사회보장제도가 막 있어도 어쨌든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없다보니까. (사례 29)

7) 프리랜서로 일하면서의 긍정적인 점

□ 자유롭게 여유로운 시간 활용

-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큰 장점으로 꼽았음. 프리랜서를 하면서 전일제 일자리와 달리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하는 시간적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임. 특히 자율적인 시간 활용을 통해 자기발전이라든지 부수적인 일을 병행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하였음(사례 22, 23, 24, 25, 27).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고. 시간적인 것도 조금 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금 사람을 만나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제 시간에 쓸 수 있는. (사례 22)

내 나름대로 시간 조절을 하고. 그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례 23)

시간활용도 좋죠. 예를 들어서 딱 메인 거면 아침출근 저녁퇴근이지만 저희들 같

은 경우는 길어야 두시간이거든요 강의가. 그러면 두시간 갔다오면 그 외적인 것은 집안일이라든지 나를 발전시키는 공부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좋았고, 정상적인 직장 다니시는 분은 휴가라는 큰 시간 밖에 없잖아요 여유 있는 터울이.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없을 때는 여행도 그 시간에 맞춰서 다녀올 수 있고. (사례 24)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는 거죠. 일하는 시간이 짧다보니까 주부라든가 아니면 따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 외에는 자기 시간이 많다는 거잖아요. (사례 27)

□ 일과 가사돌봄 병행의 수월

- 교육 프리랜서 참여자들은 전일제 근무가 아닌 하루 2~4시간 정도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외의 남은 시간은 아이 돌봄과 집안일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음(사례 23, 24, 25, 26, 27, 29, 30). 즉 교육 분야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을 하는데 수월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방과후강사를 하는 사례 29는 근무 일정이 현재 자녀 학교 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이 돌봄과 집안일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하였음.

만약에 저녁에 강의가 있다 그러면 중간에 집에 가서 가사일을 하고 나서 다시 나오고. (사례 23)

프리랜서가 아니었다면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있는 시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좀 할 수 있어서 저도 마음이 편했지만 아이들도 되게 안정적으로 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프리랜서로서 시간 활용하는데 굉장히 용이했던 것 같아요. (사례 26)

아이가 끝나는 시간에 엄마가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엔 저도 같이 일하고 끝나는 시간엔 저도 같이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례 29)

제가 중간에 집에 가니까 그때 애기랑 있고 제가 굳이 어린이집 안 맡겨도 되니까. 아기 병원 갈 때도 아프거나 애기 것 뭐 사야 되거나 할 때는 중간시간에 가니까 일 안할 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례 30)

□ 프리랜서 강사를 하며 만족감과 자부심 증대

- 참여자들은 프리랜서를 시작하기 전에 경력단절 또는 실직을 경험한 경우가 다수였는데 이후 프리랜서 강사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이 증대되었고, 일을 통하여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였음. 풀타임근무에 가정일까지 해야 할 때는 보다 예민하고 짜증도 많이 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에 간혀 있는 것 같아 답답함을 많이 느꼈지만 프리랜서 강사를 하게 되면서는 가정 및 생활에서의 만족감도 더 증가하였음(사례 23, 24, 26).

프리랜서 일을 하기 전에는 일도 했지만 일은 일대로 하고 집에 오면 짜증나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또한 애들 육아문제가 같이 겹쳐져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때 프리랜서로 하기 전에는 굉장히 집에 오면 식구들한테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프리랜서 일하면서 나 스스로의 자신감을 느끼고 나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서... (사례 23)

아이를 낳은 이후에 가정이 커진 이후에는 완전히 고민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책임도 더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엄마랑 진짜 며느리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장손이어서 친척 일들도 다 봐야하는 상황이어서 정말 너무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힘든 곳에서 내가 나를 찾을 수 있겠나 라는 그런 회의감도 잠깐 느꼈었는데 프리랜서로 나오면서 제 자존감도 많이 회복된 것 같고 제 생활도 찾은 것 같아요. (사례 26)

- 또한 참여자들은 교육 강사를 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인정과 일에 대한 가치를 경험하였음(사례 23, 24, 26, 29). 사례 23은 교육 강사 활동을 통해 얻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일에 대한 가치와 노력에 대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 하였음. 또한 사례 24는 상대방에게 웃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었음.

보통 일을 할 때 돈도 돈이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그 가치에 대한 나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자신감도 있지만 자기 만족, 생활의 만족인 것 같아요. (사례 23)

내가 웃어야 상대방한테 웃음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깐 너무 좋은 이미지를 스스로가 셀프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긍정적인. 사고가 너무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그 다음에 좋은 건 어르신들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해주니깐

그게 또 너무 행복했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조금은 행복함이라든지 건강함을 전달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나에 대한 자부심으로 긍정적인 면이고. (사례 24)

일단 제가 이쪽 일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고 소명의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보람 느낄 때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특히 저는 청소년 관련된 일을 좀 오래했거든요. 청소년 관련된 사례에서가 보람 있고 뿌듯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례 26)

8) 프리랜서로 일하면서의 애로점

□ 은행 대출 받는 것의 어려움

- 교육 분야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우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번 단발성으로 강의를 하는 참여자들이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아니라 소득 증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소득 자체가 적은 경우가 많아서 대출이 승인되는 것도 어려웠음(사례 23, 30).

대출이 안되니까 대출을 못 받았죠. (사례 30)

저금리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을까.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소득증명이 필요하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소득 증명. 이런 게 필요한데 솔직히 은행에서 요구하는 소득 증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입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또 힘든 거예요. (사례 23)

9) 앞으로의 계획

- 교육 분야 참여자들 중에는 프리랜서 강사를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음(사례 22, 28, 29). 교육 프리랜서가 가지는 고용 및 소득 불안감보다 프리랜서로서 시간의 자유로움을 통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 큰 강점으로 보아 교육 프리랜서 강사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사례 22는 프리랜서로서 소속감 없이 활동함으로써 힘든 점들이 많아 공간 쉼어가 가능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방식의 소속감 있는 교육 프리랜서 강사 활동을 지속하고 싶어 했음.

저는 프리랜서가 좋아요. 자유로우니까. 저는 나쁘진 않고 창업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취업도 프리랜서를 오래해서 그런지 변화를 주고 싶지 않아요. (사례 28)

프리랜서 계속 하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왔고 애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단 이 일을 오래 했었으니까 그나마 업무 효율도 높을 거고 지금 나이도 있다 보니까 다른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창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성공할거라는 확신도 없고 거기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들도 많이 들어갈거고. (사례 29)

뭔가 취창업의 의미보다 소속감이 있는. 소속을 만들어 주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하는 형태는 어차피 프리이겠지만. (사례 22)

- 반면에 앞으로는 프리랜서에서 취·창업을 하는 것을 계획하는 참여자들도 있었음. 코로나19로 인해 제주 지역 내 강사 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들은 교육 프리랜서 강사가 아닌 소득과 고용이 보장되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음(사례 24, 26). 특히 사례 26은 자유로운 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가지는 프리랜서를 계속하고 싶지만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음.
- 일부 참여자들은 교육 분야의 경험을 살려, 교육기관 설립이나 교육센터 창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사례 23, 25, 27). 이들은 현재 시간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안정감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창업을 희망하였음.

계속 하고는 싶죠. 코비드 영향이 있어버리니까 다른 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창업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례 24)

만약에 좀 안정적인 상황이 좀 보장이 된다면 프리랜서를 계속 하고 싶지만 그리고 그게 어찌면 제 생활패턴이랑 맞기도 한 것 같고요 프리랜서가. 그래서 지속하고 싶긴 하지만 그게 저한테 계속 불안감을 주기도 하는 상황이라서 그 이유 때문에 취업은 해야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례 26)

창업? 교육업을 만들고 싶긴 했는데요. 그것도 쉽지 않아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교육업을 만들면 교육사무실을 만들면 강사 몇명을 더 채용을 할 거고 직원도 채용을 할 거고... (사례 25)

올해부터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애아동이나 아니면 조금 발달이 늦는 아이들, 아니면 좀 영유아 쪽으로 역량을 펼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음악치

로나 음악수업으로. 그래서 나중에 센터를 차려서 그쪽으로 좀 뺏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사례 27)

10) 지원받고자 하는 정책 욕구

□ 준비 시간, 경력 등이 반영된 강의로 개선

-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강의료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낮게 책정되어 강의료에 교통비를 포함하여 제공되기를 요구하였음. 또한 참여자들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도 역시 노동시간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해 강의료가 적절한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그리고 일부 참여자들은 강사도 고숙련임에도 숙련이 반영되지 않는 강의료 기준이 많아 강사 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강의료 측정이 이루어지길 요청하였음.

광역센터라고 해가지고 제주도 전체 경로당을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도에 산비를 갖다가 경로당에 프로그램 강사들을 보내요. 위촉을 시켜가지고 보내는데 들어와서 1년 된 시작한지 1년도 안된 강사도 4만원, 저처럼 저는 광역센터 생기기 전부터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16년 된 강사도 4만원. (사례 24)

강사비도 먼 거리는 조금 높게 책정해주셨으면 좋겠고. 가까운 거리 서귀포 사시는 분이면 엄청 좋은 거잖아요. 저희 같이 먼거리를 왔다갔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례 27)

□ 인력풀 구축과 구인 정보, 네트워크 제공 플랫폼 필요

- 참여자들은 제주 내 교육 프리랜서 강사들은 지역 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공유 플랫폼이 전무하여 외부 지역에서 강사들을 섭외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였음. 특히 제주도에서는 교육 분야 프리랜서 강사들이 구인을 하는 통합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여러 기관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찾아서 일감을 구하고 있었음.
- 이에 지역 내 수요와 공급이 매칭될 수 있도록 프리랜서 플랫폼이 운영되기를 희망하였음. 사례 22는 프리랜서 구인과 구직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주 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하였음.

- 또한 참여자들 중에는 플랫폼을 통하여 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정보도 공유하고 학습법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사례 22, 26). 교육 분야의 경우 계속적으로 본인이 교육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특성이 강하다보니 강의법이나 PPT 작성법 등 교육 정보 공유 등을 중요하게 여겼음.

플랫폼이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홈페이지 안에 다 해달라는 게 프리랜서를 구인하는 그리고 구직 희망하는 프리랜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프리랜서들이 프리랜서가 일할 때 뭔가 그런 도움이나 뭔가 그런 것들을 요청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례 22)

(플랫폼) 사람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 구축한 상태에서 정보를 얻게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례 23)

온라인 플랫폼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훈련이 진행되는 것도 정보를 나눌 수도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에서도 제공되는 것들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프리랜서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좋겠네요. 온라인 공간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그렇게 정보 포털처럼 설계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공간에서도 고민이 되면 좋겠고. 공간 고민도 좀 해결 됐으면 좋겠어요. (사례 26)

인적 네트워킹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그냥 혼자 우물안 개구리처럼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받아도 뭔가 이게 나한테 맞는 교육인가? 불안하니까 계속 교육으로 뭔가를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약간 걸핍기식의 그런 것들이어서 조금 뭔가 그런 인력이나 인적네트워킹이나 동료 있으면. (사례 22)

나이 들면서는 강사활동이 되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이 들어서 교육 자료 만드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교육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게 어찌면 교육훈련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긴 했어요.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잘 마련되고 이게 아까 같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 공유되고 홍보된다면 그런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례 26)

□ 프리랜서를 위한 공간 제공

- 교육 분야 프리랜서들은 프리랜서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고 함께 네트워킹할 수 있으며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길 원하였음(사례 22, 25, 26). 특히 교육 분야 프리랜서들은 관광 분야 프리랜서들처럼 협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따로

네트워킹하거나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별로 없어서 더욱 프리랜서 공간에 대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지원센터가 생기면 프리랜서들이 언제든지 와서 거기서 일도 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거기에 와서 일도 하고 그리고 같은 분야에 분들이 모이면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25)

공간에 대한. 요즘 청년과 관련된 공간은 많이 생기거든요. ... 조금 더 안정적인 편안한 공간이 제공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례 26)

□ 경력 관리 시스템을 통한 경력 증명

- 일부 참여자는 교육 분야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경력증명이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하였음. 특히 교육 분야 프리랜서인 강사들의 경우에는 당일 강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매 건마다의 강의 경력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그래서 프리랜서 강사들은 경력 증명에 대한 정책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이들은 경력을 지속해서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프리랜서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력 증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였음. 대외적으로 경력을 증명해야 할 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매우 좋을 것 같다고 하였음. 특히 사례 22는 자원봉사 내역을 전산 시스템에 기록해 두는 자원봉사시스템처럼 프리랜서 경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음.

(프리랜서 경력관리 시스템) 그 강사가 그거를 챙겨서 이걸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 내가 필요했는데 가서 요청하면 그냥 발급받을 수 있는데... 내가 모아뒀다가 필요에 의해서 찾아서 보고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본인의 수고가 대단히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리체계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구축할 수 없지만 뭔가 강사들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원봉사시스템처럼 뭔가 시간이나 똑같거든요 시스템은. 그래서 그것처럼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사례 22)

경력증명서도요. 없어요. 발휘 수가 없어요. (사례 25)

경력을 드러낼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26)

□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도입

- 교육 분야 프리랜서 강사 참여자들은 강의를 할 때 강의 장소를 직접 대여하거나 강의 관련 장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에 프리랜서 강사로서 강의를 진행을 위한 장소나 장비 대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한편 일부 참여자들은 프리랜서로서 시간의 자유성을 가지고 있지만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 또는 휴가, 병가 등과 같은 제도도 도입되길 희망하였음.

보통 강의를 할 때 단타로 강의를 할 때 강의장소 대여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커피숍을 빌리거나 강의장 임대해서 쓰는데 그것도 되게 어려운거예요. 강의로 십만원 받는데 강의장 임대료 3시간에 5만원 이러면 자기 기획하고 노력하고 강의안 만드는 것 대비 너무 작은 인건비를 받잖아요. 근데 강의장 임대료가 따로 책정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것 저런 것 어쨌든 너무 힘든 상황이죠. (사례 22)

그런 게 지원이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빔프로젝트라든지 스크린, 스크린을 사실 벽에 싹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빔프로젝트라든지 강의실 필요한 장비가 몇 개 있어요. 그런 게 갖춰져 있지 않은 교육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례 25)

저희가 돌봄을 길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전에 30분, 아니면 하교시간에 30분 아니면 1시간. 이렇게 단타로 알바를 하거나 돌봄에 대한 요청을 받고 싶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면 여기 다른 홈페이지나 시간 텀이 너무 짧으니까 부탁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잘 못 구하고요. (사례 22)

급한 일 있을 때 그거 뭐라고 해야 되죠. (휴가 같은 거를 프리랜서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자유롭게는 않지만 일정 쓸 수 있게.) 네. 그런 거요. (사례 28)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필요

-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교육을 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이고, 이곳저곳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즉 교육 분야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정책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사례 22와 26은 프리랜서 강사는 이동이 잦은데 이동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 현재

까지는 개인의 과실로서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부여되고 있어 이런 경우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이뿐만 아니라 사례 23과 24는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도 필요하다며 실직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길 희망하였음.

일하면서 다치는 경우 뭔가 운전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사고가 나는 경우도 그렇고 일하면서 다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정말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럴 경우. 근데 아까 관리 관련과 관련되어서 뭔가 그렇게 강사들이 관리하거나 아니면 구축을 해서 내가 한 달에 오천원이든 만원이든 산재보험처럼 뭔가 내고 관리 받고 이러면 그 안에서 내가 산재보험을 받은 사고가 났을 때 큰 덩어리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혼자 다니다가 혼자 사고나면 혼자 처리하고 이렇게 진짜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견뎌야 되는 것들이어서 그 부분과 조금 맞물려 보장이 되거나 그런 제도들이 있으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사례 22)

저희도 일을 하러 다니잖아요. 자가 운전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이동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도 뭔가 고용이 되어 있다면 근로관계 안에서는 산재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산재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것들이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 이야기 했던 거지만 산재와 관련해가지고 프리랜서들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금 보장이 됐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 (사례 26)

산재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 그런 것도 프리랜서들한테 다양하게 포용적으로 제도가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례 23)

□ 방과후강사 계약기간 연장

- 모든 방과후강사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고용불안을 들었음. 계약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해마다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다음 해에 방과후강사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통합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다음 해에 다시 그 학교에 취업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 불안정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방과후강사들은 근무 계약기간이 연장되길 희망하고 있었음.

제일 뭐한 게 계약이죠. 계약을 너무 1년씩 하니깐. 그리고 내가 다음에 언제 짤릴 지 모른다는 불안감. 일단 계약기간 늘리고. (사례 28)

고용안정이 제일. 매해마다 정말 취업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서류 학교마다 들어가야 하는 서류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거 학교마다 맞춰서 작업하는 걸 올리거든요. (사례 29)

□ 다양한 교육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 일부 교육 분야 참여자들은 제주 내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수준의 교육이 지원되길 희망하였음. 특히 사례 24는 교육 분야 강의 숙련 형성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단계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원되기를 원했음. 또한 사례 26은 강의 스킬과 같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이 마련되길 바랬음.

신입강사로 입문하신 분에 대한 기초 강사과정. 그 다음에 10년, 아니면 중급과정, 고급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3단계 과정으로 나눠가지고 강사들을 스킬업과정을 좀 운영해주시면 어떨까. 경제적인 지원보다도 그런 질적 지원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사례 24)

교육 지원금을 지원해줘도 제주에 교육이 이미 없으니까 그런 교육이 없으니까 어차피 서울로 비행기타고 가서 교육을 들어야 되는거예요. (사례 25)

프리랜서를 위한 어떤 교육 스킬 관련. 스킬과 관련된 교육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이 조금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분야로. (사례 26)

3.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

- 여성 프리랜서들은 경력단절을 예방하거나 딛고 일과 육아가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프리랜서를 선택하거나 시간 사용이 자유롭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그리고 프리랜서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되었음. 이러한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여성들이 프리랜서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의 일하는 방식과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근로 시간이 불규칙하고, 근무환경도 사무실이나 작업실이 주어진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 분야에서는 공연 기획이나 예술 활동을 하는 이들은 행사나 공연을 진행하는데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으며, 관광 분야는 버스나 자연환경이 주된 근무환경이라 재해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재해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었지만 산재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문제시 되었음. 해당 프리랜서는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역량 강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크게 나타났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음. 또한 복리후생이나 공간 및 장비 지원 등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불공정거래나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사업주로부터 갑질을 당하거나 관광객들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성 프리랜서를 보호해 주는 기관은 없었음. 이처럼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 공간 및 장비 지원, 불공정거래 등 노동상담,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과 이들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들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일하는 것에 비하여 급여기준이 낮게 책정된 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인들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예술활동을 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 분야는 2~3일, 교육 분야는 1~2시간이 근무기간인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한 개의 일감의 지속 기간이 매우 짧아 일감을 매번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문화, 관광, 교육 분야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19로부터 큰 타격을 입었음.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하여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들이 일감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등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적절한 소득 기준을 위한 정책적 개입도 필요할 것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프리랜서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나 각 분야마다 행사, 관광, 강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보다는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임.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 관련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조사 목적은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프리랜서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들의 현황 및 정책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데 있음.
- 이를 통하여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의 지위 및 처우, 이들이 속해 있는 산업 동향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환경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고 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여성 프리랜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 조사 방법 및 자료 수집

- 연구방법은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였음. 본 FGI에서는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 관련 전문가를 각각 대상으로 하여 서로 간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등을 상호 교환하여 심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음.
- 초점집단면접조사는 2021년 5월 28일과 5월 31일 이틀 동안 문화, 관광, 교육 분야 별로 각각 1회 2시간씩 이루어졌음. 면접 장소는 본원 연구원 회의실이었음.
- 초점집단면접조사 실시 전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주제 및 목적, 연구진행 상황 등과 함께 면접조사 질문사항 등을 구두로 전달했음. 또한 FGI 실시 바로 전에 집단면접조사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하였으며, 녹음에 대한 동의도 사전에 얻었음.
- 해당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의 주된 질문 내용은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 관련 현황(지위, 처우, 이들이 속한 산업동향) 및 정책 지원방안에 대한 것이었음.

다. 연구참여자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노동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기에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참여자를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 관련 전문가로 각 분야별로 4명씩 총 12명으로 선정하였음.

- 연구참여자는 연구 목적의 극대화를 위하여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음. 즉 문화 분야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련 분야 연구를 다년간 해 온 연구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관광 분야는 관광학과 교수 및 관련 기관 종사자, 관광 분야 프리랜서로 대표되는 국내여행안내사와 관광통역안내사 협회장을 각각 선정하였음. 또한 교육 분야는 프리랜서 강사 파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및 프리랜서 강사로 다년간 활동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수, 전국방과후강사 노동조합 제주지회 대표를 선정하였음.
-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4-1>과 같음.
 -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 관련 전문가들의 성별은 여성이 9명, 남성이 3명임.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는 5명, 현장 전문가는 7명임.

<표 4-1> 문화, 관광, 교육 분야 프리랜서 관련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소속	분야
사례 1	여성	00연구원	문화
사례 2	여성	00연구소	문화
사례 3	여성	제주민예총	문화
사례 4	여성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
사례 5	여성	제주관광대학교	관광
사례 6	남성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관광
사례 7	여성	제주특별자치도국내여행안내사협회	관광
사례 8	여성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	관광
사례 9	여성	제주대학교	교육
사례 10	여성	00경영원	교육
사례 11	남성	제주대학교, (사)제주융복합관광연구소	교육
사례 12	남성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제주지회	교육

2. 조사 결과

가.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 전문가 의견

1)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 노동시장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현황 및 상황

□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일감

-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극장 문을 열 수 없고, 일거리가 제공될 수 없는 구조적, 사회적 상황에 어려움이 발생했음.
-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공연 예술은 기획이 되었어도,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더불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역 내 축제가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서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음.

2)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 노동시장 특성

□ 예술인 지원정책 급증했으나 신청 어려움 큼

-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 전문가들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생계지원 제도 등 다양한 지원들이 생겨나 현장에서 많은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음.
- 그럼에도 제공 대상 기준이나 증명 기준 등이 모호한 측면이 많고, 신청 이후 제도의 수혜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음. 특히 예술활동에 대해서 명확한 근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 하였음.
- 그리고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해야 하나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즉 프리랜서로의 활동이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활동했던 팜플렛이나 포스터 등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져 있었음.

□ 높은 여성 활동가 비율에 비해 낮은 여성 관리직 비율

- 문화예술계의 여성 프리랜서들이 많은데 그 관리자들은 남성들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부족하며, 그 남성 중심 문화 속에서 여성

문화 프리랜서가 20~30년 정도 경력을 쌓기가 어려운 구조임.

- 예비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 역시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나, 문화예술 기획자나 상급자는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불균형이 존재함.

□ 문화예술 산업이 공공재원에만 의존

- 제주도 내 문화예술 산업 시장이 지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정부 지원 문화예술 사업에 많은 프리랜서들이 집중된 상황임.
- 기업 측면에서의 지원 등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텐데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는 정보 접근성이 낮아 그러기도 어려운 면이 있음.

□ 적은 극장 수, 상설공연 불가능한 환경

- 제주지역은 공연예술 장소가 많지 않고, 서울과 비교해도 소극장 등과 같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임. 이에 고정적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 두고 반복해서 여는 상설공연을 많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짧은 시간에 진행하는 기획공연으로는 제주지역 예술 분야 프리랜서에게 충분한 수입이 될 수 없는 상황임.

3)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 정책 지원방안

□ 문화 분야 프리랜서의 지원 요건 및 입증 완화

- 코로나 19 이후 문화 분야는 절대적으로 일감이 감소한 상황 속에서 예술인 등록을 하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의 실적이 있어야지만 예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구조임. 이 구조 속에 문화 분야 프리랜서는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예술인 등록 기준에 대한 완화 혹은 입증 방식의 유연화 등이 요구됨.
-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그 활동 범주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포트폴리오를 반영하여 증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행정 능력 강화 교육 필요

- 문화 분야에서는 기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존재함. 그러나 현재 제주지역 여성 프리랜서들은 정보적 접근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획서 작성하는 방법, 행정능력이 다소 부족한 편임. 이에 문화 분야의 여성 프리랜서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일감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예술인 역량 강화 지원

-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을 위한 일반적 지원보다는 역량 강화가 필요함. 즉 이들을 위한 훈련기금 조성을 통해 역량을 고려한 세대 간 맞춤형 교육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특히 성별, 연령별 상황 및 역량을 고려하여 문화 분야 프리랜서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지원되어야 함.

□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협업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 분야 안에서도 기획자와 창작자 등 다양한 직무에 따른 역할이 존재하고 협업이 매우 필요함에도 문화예술 여성 프리랜서들은 모든 활동을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통합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서로 간에 보완이 될 필요가 있음.

□ 예술인복지센터 운영 필요

- 현재 문화예술재단에서 예술인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술인복지센터를 운영하여 해당 예술인 복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 공간 지원

- 전문가들은 문화 분야 여성 프리랜서를 위한 창작 공간이 매우 부족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였음. 최근 청년 창작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기획하고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카페를 활용하는 상황임. 창작 레지던스 공간이 제공됨으로써 그 안에서 네트워크 형성도 활발하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여성 기업 혹은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 있지만, 그 공간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임. 그리고 예비 창업자나 프리랜서가 입주하기에는 조건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표준 계약서 작성 의무화

- 문화예술 분야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이나 노동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이 중앙정부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음. 그러나 여성 프리랜서의 경우 표준계약서 작성 이후 일을 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임. 이에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도록 도 차원에서의 개선이나 권고가 필요함.
- 특히 제주도에서는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문화예술 행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제주도 내 정부 예산으로 투입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있어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분야에 맞는 표준사례비 기준 마련

- 문화예술 분야에서 여성 프리랜서들은 표준사례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사례비를 받고 있음. 그러나 그 강사수당은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비 기준임.
- 이에 제주형 문화예술 여성 프리랜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예술 관련 조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 관련 조직에서 관리자 남성 비율이 높고, 여전히 남성 중심 조직문화가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음. 이에 성비 구성 매칭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강력한 권고가 필요하며, 제주도 내 문화 분야 관련 출자출연 기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교육 등이 요구됨.

나.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 전문가 의견

1)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 노동시장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현황 및 상황

□ 코로나19 이전부터 하향인 관광 프리랜서 시장

- 코로나19 이전부터 관광산업이 가이드와 함께 하는 단체관광방식이 아닌 개인 혹은 가족 단위의 자유여행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시장 내 가이드 수요나 통역 안내사 수요가 줄어든 상황임.
- 2010년대에 집중되었던 중국 혹은 일본 단체관광 역시도 개인 혹은 가족단위로 자유여행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해외 관광객 가이드 산업도 축소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전무한 일감

-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비행기가 운행이 어려워져 해외관광객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국내 단체 및 패키지 여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로 인해 많은 관광분야 프리랜서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여성 프리랜서의 경우 가정 내 소득원이 있는 가구주의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가거나 혹은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관광 프리랜서들의 이직 증가

- 관광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코로나19 이후 회사 워크숍이나 연수도 전무한 상태에서 관광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은 산업을 벗어나 이직을 하고 있는 상황임. 코로나19 이후 여성 프리랜서로서는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 일감 감소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

- 관광 분야의 트렌드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일감 급감으로 여성 프리랜서들은 일자리가 전무한 상황에 놓여지자 일을 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심리적 우울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기도 하고, 고용불안과 생계불안 속에 심리적 우울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2)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 노동시장 특성

□ 알기정 양립의 어려움

-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은 자유롭게 가이드 일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업무의 특성상 2박 3일 동안 관광객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 관광분야 전문가들은 가이드의 경우 프리랜서라 가정과 일이 양립된다고 생각하지만, 일이 80% 그리고 가정이 20%로 알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토로함.

□ 부당한 수익구조

- 관광 분야에서 국내여행안내사의 임금은 손님 수별 팁이나 관광상품에 포함된 쇼핑 센터에서의 관광객이 물건을 구입하였을 때 수수료 등이 수입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렇듯 불분명한 수익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여성 프리랜서들은 일을 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3)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 정책 지원방안

□ 투명한 수익구조로의 변화

- 국내여행안내사에게 제공되던 수익구조 방식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투명한 수익구조를 형성하여 여성 프리랜서의 불안정한 소득구조가 안정적인 수익 방식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즉 관광 옵션 상품이나 쇼핑 등으로 발생하는 커미션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비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익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 방향 설계

- 현재 단기적 생계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고, 코로나 19가 종식된 후에도 산업 회복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 시각에서 지원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 또한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은 경력이 오래되었고, 숙련도가 높은 편임. 그러나 관광 산업의 변화와 함께 일감 감소로 이직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전문 인력의 유출을 줄이고 추후 제주지역 가이드 관광이 활성화되어 필요할 때를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이에 공공영역에서의 경력 유지가 가능한 일자리 사업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여성 프리랜서들이 사회안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선제적 관점에서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는 예방 정책 필요

-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예방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성 프리랜서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임. 더불어 조례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생계비 지원

-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의 경우 일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관광 분야 가이드를 위한 공공 일자리 제공

- 현재 관광 분야 가이드들은 일감이 거의 없어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상황임. 코로나19 이후에 가이드가 필요할 때 다시 가이드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동안에 돈이 적더라도 사대보험이 되는 공공 일자리를 일정 부분 제공 및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하였음.
- 제주시 내 도심 관광안내소나 국립 혹은 도립 관광지와 연계한 일자리 발굴도 함께 병행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 관광 분야와 연계된 여성 일자리 이직 프로그램 운영

- 관광 분야 여성 프리랜서는 일감 부족으로 인하여 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관광 분야 근무경력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관광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 도입

- 관광산업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들을 위한 새로운 산업이 요구됨. 특히 렌터카를 활용한 개별 관광객들을 위한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가 코로나 19 상황이나 그 이후에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다양한 법적 한계나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 전문가 의견

1)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 노동시장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현황 및 상황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분야 프리랜서 시장 침체

-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에는 방과후강사의 경우 수업이 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면 사설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그 침체 영향의 강도가 차이가 있었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교육시장 침체가 발생함에 따라서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방식의 변화

- 코로나 19 이후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프리랜서 강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업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인맥을 통해서 혹은 소개로 진행되었던 오프라인 강의가 사라지고, 거리나 공간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다 보니 제주도 내 강사들 간의 수요경쟁에서 전국 단위 수요경쟁으로 변화되고 있음.
- 이러한 교육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강사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음.

2)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 노동시장 특성

□ 일방적으로 정해진 수강료

- 교육 분야 강사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존재함. 그 대상에 따라서도 콘텐츠와 발휘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수준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 즉 다양한 교육 내용에 따라 강사의 수준이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지정된 시간 당 강의료만이 일방적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안정적 수입을 창출하기에 어려운 구조임.
- 교육 분야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강의료를 시간당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강의 수강자가 강의료를 측정할 때 고려되지 않음. 또한 방과후강사의 경우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폐강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기도 함.

□ 방과후강사의 1년 단위 계약방식으로 인한 어려움

- 교육 분야 내에서도 계약 방식이 다르지만, 방과후강사의 경우 1년 단위의 계약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매년 1년마다 채용 서류를 제출하고 새롭게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용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더불어 방과 후 강의가 없는 방학 등의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상황임. 그리고 그 기간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기간에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자리로 진입을 통해 소득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일가정 양립 수월

- 방과후강사들은 육아나 자기개발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음. 즉 일가정 양립에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음.

3)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 정책 지원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취소보다는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분야 강사 수요처가 매우 급감한 상황임. 현재 긴급으로 지

원되고 있는 지원금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상황에서는 온라인 강의나 비대면 강의를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들이 마련되고 지원되어야 함.

□ 지역 내 강사 우선 활용 권고

- 제주도 내 교육 분야 수요를 도외 지역의 강사 콘텐츠를 활용하기 보다는 제주도에 강의 콘텐츠를 활용,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제주도 내 여성 프리랜서의 안정적 일감 확보가 가능할 것임. 이를 위해 제주도에 지역 내 강사 활용을 위한 캠페인이나 권고, 가이드가 제시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여성 프리랜서 강사 역량 강화 교육시스템 구축

- 제주도 내 여성 프리랜서들은 자기역량 개발과 콘텐츠 발굴을 위해 인적자원에 사적인 비용을 많이 투입하고 있음. 제주도 내 여성 프리랜서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사 양성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만이 아닌, 노동시장 진입 이후 역량강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프리랜서 강사를 위한 협회 및 지원기관 필요

- 방과후강사를 제외한 프리랜서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되어 있는 협회가 없음. 이에 전문가들은 교육 프리랜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낼 조직이 현 상황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교육 분야 프리랜서들의 권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이러한 교육 분야 프리랜서의 조직화 및 지원 기관을 통해 교육 분야 프리랜서로서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강의료나 처우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음.

□ 제주도형 생활임금제 적용

- 현재 교육 분야 프리랜서 강사들은 경력이나 강의 질을 고려한 강의료 측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강사의 경력을 충분히 고려하는 강의료 기준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그를 위해 제주도형 생활 임금을 적용한 수준의 강의료 측정이 필요함.

3.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

- 문화 분야에서는 예술인 대상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 지원 요건 및 입증 방식 완화가 필요함. 또한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은 홀로 일하기 때문에 기획, 행정, 회계 등을 전담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 행정 관련 교육 지원이나 창작자와 기획자 등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또한 문화 분야에서 성차별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에 성인지적 교육 및 문화 확산과 같은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임.
- 관광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가이드 산업이 하향하고 있는 추세여서 개인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춘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 도입 및 가이드 양성이 필요할 것임. 또한 국내여행안내사의 경우에는 수익 구조가 불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시간외근무까지 고려된 적정 금액의 일비로 급여가 제공되도록 지원이 필요함.
- 교육 분야에서는 강의 방식이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프리랜서 강사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방식 및 교육 콘텐츠 발굴 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할 것임. 또한 강의 수강료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아 강의 수강료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임. 방과후강사의 경우에는 1년 보다 더 긴 기간의 고용 계약이 이루어져 고용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전문가들은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이 코로나19 이후 공연 및 축제, 단체 및 패키지 관광, 강의 등의 취소연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음.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유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요구됨.

종합적 논의 및 정책 제언

1. 종합적 논의
2. 정책 제언

1. 종합적 논의

- 본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 프리랜서의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문화, 관광, 교육 분야의 여성 프리랜서 총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 총 12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음.
- 두 연구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여성 프리랜서들은 일과 육아가사를 병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업무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자발적으로 프리랜서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음. 이와 더불어 해당 분야 일을 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경우도 있었음. 여성 프리랜서들 중에는 앞으로도 프리랜서를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음. 이러한 이유를 종합해봤을 때 여성 프리랜서들의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 등이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임.
- 둘째, 여성 프리랜서들의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고 1~2시간 또는 몇 개월, 몇 년 동안 다양한 계약기간으로 주로 건당으로 일하고 있었음. 근로시간은 불규칙하고 유연하게 나타났으며, 근무환경은 문화 분야는 집이나 카페인 경우가 많았으나 공연장에서는 재해의 위험성도 보였음. 관광 분야는 자연환경과 버스인 경우가 많았는데 재해 위험이 높게 나타났음. 교육 분야는 대기실이 많지 않고, 강의 준비 공간이 마땅하지 않게 나타났음. 이처럼 이들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음. 이들은 매번 일감을 직접 구해야 했으며 일감을 구하기 위하여 인맥이나 개별 홈페이지 등 인터넷, 여행사 등을 이용하고 있었음. 경력도 산정되지 않는 매해 같은 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급여 외에 받고 있는 지원들은 거의 없었음. 즉 여성 프리랜서들은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이 대체적으로 불규칙하고 불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근로자들이 받는 교육훈련 지원, 공간이나 장비, 복리후생,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4대보험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들로부터 여성 프리랜서들은 배제되어 있었음. 여성 프리랜서들도 근로자처럼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임. 프리랜서들은 홀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하고, 정보 및 공간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여성 프리랜서들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셋째,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은 일감 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관광 및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은 한 건의 근무기간이 2~3일 또는 1~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감을 수시로 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크게 나타났음. 또한 급여 기준이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였음. 따라서 이들이 손쉽게 일감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급여 기준이 적절하도록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
- 넷째,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분야들은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더욱 큰 타격을 받았음.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각 분야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특히 관광 분야의 가이드들은 단체 및 패키지 관광의 전면 중단으로 인하여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코로나19 이후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이드 보존을 위한 정책 지원도 필요할 것임.
- 다섯째,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의 정책 수요로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과 같은 사회적 보호장치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또한 공간 및 장비 지원, 네트워킹 지원, 교육훈련 지원, 정보 제공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음. 이 외에도 문화 분야는 예술인 공간 지원과 회계세무행정 등 교육 지원, 문화예술 분야에 맞는 표준사례비 기준 마련에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관광 분야는 렌터카 등을 이용한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와 공공 일자리 제공 등과 같은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났음. 교육 분야는 코로나19로 강의를 전면 취소하기 보다는 온라인 등으로라도 진행해 주길 희망하고 있었으며, 강의료의 적절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2. 정책 제언

○ 앞선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제시된 제주지역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은 23개로 구체적인 정책 제언들은 아래 <표 5-1>과 같음.

<표 5-1> 제주지역 여성 프리랜서의 정책 지원방안

구분	정책 과제	추진주체	추진기간		
			단기	지속	
공통 지원 방안	1.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제주형 프리랜서 노동자 상해보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2.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계획 수립	• 프리랜서 실태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프리랜서 지원 종합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3. 프리랜서 지원 플랫폼 구축	• 프리랜서 대상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프리랜서 대상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4. 교육·훈련 지원	•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세무회계행정 등 교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5. 코로나19 대응 경제적 지원	• 코로나19 대응 프리랜서 경제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6. 프리랜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	• 프리랜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직적 교육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분야 별 지원 방안	7. 문화 분야 프리랜서 지원방안	• 공간 및 장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문화 분야 표준사례비 기준 등 마련 및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예술 행사 참여 기회 보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8. 관광 분야 프리랜서 지원방안	• 가이드의 디지털 및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가이드 대상 맞춤형 취창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 도입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가이드의 양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9. 교육 분야 프리랜서 지원방안	• 코로나19 시대, 관광 관련 공공 일자리 마련 및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경력 등이 반영된 강의료 상향 조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강의 장소 및 장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의 진행을 위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가. 공통 지원방안

1)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

-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 프리랜서들은 4대 보험 및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음.
- 구체적으로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하지만 문화, 관광, 교육 분야에서의 여성 프리랜서들 중에는 이동이 잦아 운전을 하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문화 행사 등을 준비하면서도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서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음. 그리고 프리랜서의 특성으로 나타난 불규칙한 일감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잦은 실업을 겪고 있었음. 이들은 근로자보다 고용에 있어서 더 불안정하고 실업 상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음에도 근로자처럼 실업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원하고 있었음.
- 또한 여성 프리랜서들은 출산급여를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 지급받고 있지만 출산 및 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은 아예 받고 있지 못함. 그렇지만 여성 프리랜서들은 근로자에 비하여 고용불안이 더 심하며,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에 대한 피해도 더 심할 것으로 보여짐. 이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도 출산 및 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음.

1-1)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

- 중앙정부에서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정부에서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의 시행으로 제시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예술인과 제시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도록 정책 지원을 하고 있음. 이처럼 과거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던 노동자에 대해서도 해당 보험들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정책 취지와 발맞춰 프리랜서를

대상으로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추후에는 비전형 노동자의 다양화에 따라 유형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이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이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러한 사회보험 지원 정책 방향을 통하여 다양한 비전형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임.

1-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공

- 일정 요건을 갖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임. 프리랜서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필요한 실정임.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경력으로 인정해 주어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예방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임.

※ 추진부서 :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1-3) 제주형 프리랜서 노동자 상해보험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프리랜서를 업무상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임. 중앙정부에서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해당 보호가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도에서 상해보험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추진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2)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계획 수립

- 여성 프리랜서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불안 및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주요한 노동 특성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이나 공간 또는 장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들에 대한 정책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 이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프리랜서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종합계획 수립이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비전형 노동자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한 성격의 비전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나 대응이 필요할 것임.

2-1) 프리랜서 실태조사 실시

- 제주도에서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일자리 현황 및 일하면서의 애로점,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실태조사를 통하여 프리랜서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기초 자료를 토대로 프리랜서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들을 개발해낼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인 프리랜서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으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근로 실태 (프리랜서가 된 동기, 일감 관련, 업무 시간 및 장소, 수입 및 지출, 계약 관련), 일하면서의 애로점 및 긍정적인 점, 정책 수요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는 프리랜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전형 노동자가 있다면 함께 조사 대상으로 묶어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2-2) 프리랜서 지원 종합계획 수립

- 제주도에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프리랜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지금까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책 지원은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사업 정도로 관련 정책 지원들이 매우 적은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지원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통합적이면서 체계적

인 틀을 가지고 프리랜서 정책 지원들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프리랜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프리랜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전형 노동자가 있다면 함께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추진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3) 프리랜서 지원 플랫폼 구축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프리랜서들은 일감을 직접 계속적으로 찾아야 하나 일감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여 매번 이 기관 저 기관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며 일감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프리랜서들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비를 들여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혼자 일하는 노동 특성으로 인하여 네트워킹이라든지 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프리랜서를 위한 정보 공유에 대한 장도 많지 않은 실정이었음.
- 작업이나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었으며, 관련 협회가 따로 있지 않는 한 프리랜서들이 함께 모이거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공간도 전무했음. 예술인들은 공연을 위한 연습실이 많지 않아 많은 애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프리랜서 강사들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공유 공간들에 대한 정책 욕구가 있었음. 뿐만 아니라 경력이나 소득 증명의 어려움이 컸으며, 관련 협회가 없어서 프리랜서들의 지원이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 프리랜서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정책 지원에 대한 플랫폼, 즉 프리랜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음. 그러나 다양한 애로를 지원해줄 수 있는 중간기관이나 지원 플랫폼이 전무한 상황임.
- 이에 프리랜서를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앞서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계획 수립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플랫폼도 비전형 노동자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한 성격의 비전형 노동자들을 함께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이면서 포괄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프리랜서 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마련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프리랜서 지원센터 또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함으로써 근거 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리고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시행하게 될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해당 조례 제9조에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 즉 프리랜서를 위한 전문 교육훈련 또는 행정·회계 등 교육, 네트워크 등 지원 사업을 해당 조례에 추가해야 할 것임.

3-1) 프리랜서 대상 온라인 플랫폼 구축

-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온라인 플랫폼에는 다양한 분야로 구분하여 누구나 프리랜서 구인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아 프리랜서들이 일감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는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프리랜서들 간에 네트워킹을 하거나 협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유의 장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리고 프리랜서들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세무·회계·행정 등에 대한 강의들을 온라인화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개방하여 많은 프리랜서들이 손쉽게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 프리랜서들은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상으로 노동 상담해주고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임.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들은 경력이나 소득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에 구축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때는 프리랜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전형 노동자가 있다면 해당 온라인 플랫폼을 함께 이용할 대상으로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3-2) 프리랜서 대상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프리랜서 대상으로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오프라인 플랫폼에는 프리랜서의 작업 공간이나 회의실 등을 마련하여 프리랜서들의 공간에 대한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음. 또한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장비 등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것임. 오프라인 플랫폼을 프리랜서 간의 모임 등을 개최하여 서로 간에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해주는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이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 등 노동 관련 상담이나 지원을 해 주는 창구로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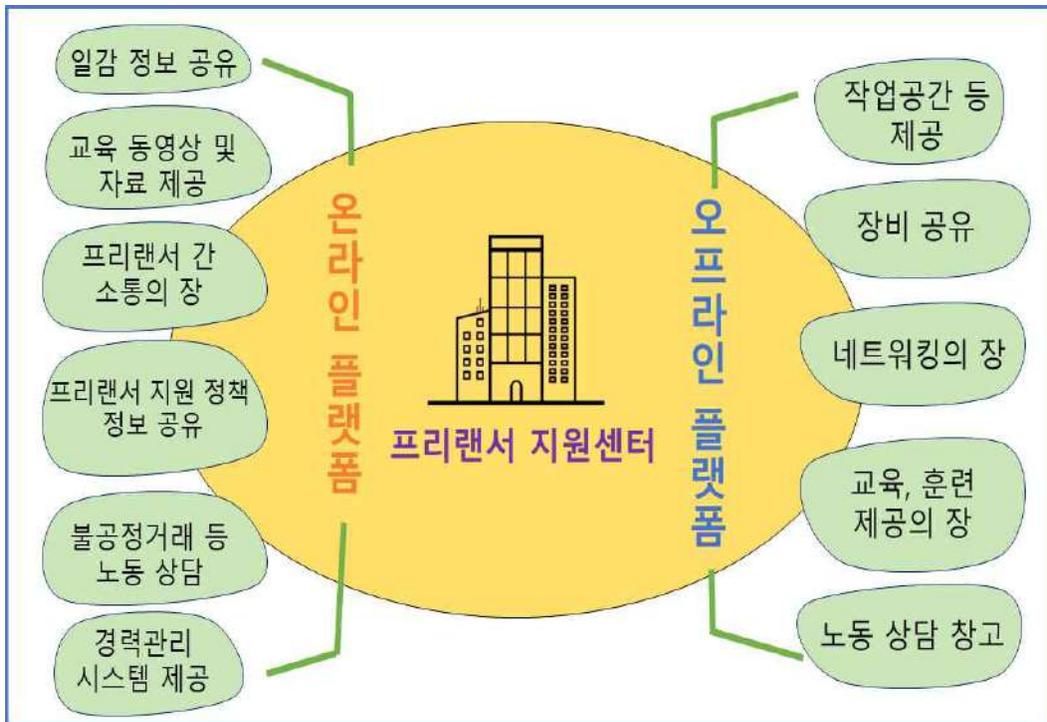
- 오프라인 지원공간에서 다양한 활동과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프리랜서들의 다양한 필요를 종합적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때는 프리랜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전형 노동자가 있다면 해당 오프라인 플랫폼을 함께 이용할 대상으로 포함하여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3-3)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프리랜서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 프리랜서 지원센터 마련이 필요함. 프리랜서 지원센터에서는 프리랜서 대상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정책 지원 사업을 실행하는 등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프리랜서 지원센터를 오프라인 플랫폼 공간 일부에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프리랜서 지원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외에도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프리랜서 중에도 분야별로는 관련 협회가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협회에 대한 필요를 많이 공감하고 있었기에 협회 설립을 지원해주고, 협회를 지원해 주는 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프리랜서들이 경력이나 소득 증명이 어려워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프리랜서 대출 지원 등의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임.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하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홍보하는 사업도 필요할 것임.
- 프리랜서 지원센터도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전형 노동자를 함께 대상으로 하여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추진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그림 5-1> 제주지역 프리랜서 지원 플랫폼(안)



4) 교육·훈련 지원

- 여성 프리랜서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은 대부분 사비를 들여서 받고 있어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은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에는 전문 교육·훈련 자체가 많지 않아서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음.
- 여성 프리랜서들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스킬뿐만 아니라 혼자서 회계·세무·행정 등을 도맡아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였음.
- 따라서 프리랜서를 위한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 지원 및 회계·세무·행정 등 다양한 교육들을 마련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였음.

4-1)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 지원

- 프리랜서들의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먼저 제주도에서도 분야별 전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 과정이 개설되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임. 또한 프리랜서의 전문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일정 부분 이루어진다면 프리랜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을 보여짐.

4-2) 세무회계행정 등 교육 지원

- 프리랜서들의 세무회계행정 등의 교육 지원이 필요함.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세무, 회계, 행정, 저작권 등에 대한 교육 강좌들을 많이 오픈하고 제공해줄 필요가 있을 것임. 행정과 관련해서는 계약서 작성방법이나 계약 관련 사안, 기획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임. 앞서도 언급했듯이 해당 교육들은 프리랜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임.

※ 추진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5) 코로나19 대응 경제적 지원

- 연구결과,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예술인, 관광 분야 가이드, 프리랜서 교육 강사들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었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집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프리랜서에게 50만원씩 2회가 지급되었음. 또한 중앙정부 예산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프리랜서에게 50만원씩 총 4회 지급되었음.
-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프리랜서 지원금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나타났음. 다만 코로나19 타격이 심하여 경제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이러한 프리랜서의 상황과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면을 고려하여 코로나

19 대응 프리랜서 경제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코로나19 대응 프리랜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는 프리랜서들의 소득 증명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소득 증명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추진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6) 프리랜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

- 연구결과에 의하면 문화, 관광, 교육 분야 여성 프리랜서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업주나 이용자로부터 남성에 비하여 차별을 받거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화 분야에서는 여성들이 일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이나 주요 지위는 남성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문화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관광 분야에서는 가이드들이 관광객들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프리랜서 노동시장에서 여성 프리랜서에 대한 성차별 및 성적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프리랜서 노동시장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프리랜서와 프리랜서 관련 사업자, 이용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교육이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추진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나. 분야별 지원방안

1) 문화 분야 프리랜서 지원방안

-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은 앞서 제시된 정책 지원 외에도 작업 공간이나 장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특히 예술인들은 연습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연습실을 대여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사례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현재는 문화예술이라는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기준에 의해서 급여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술인들은 예술 공연이 전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연을 전면 취소하는 것보다는 공연 방식 변경 등으로 공연 기회를 보장해 주길 원하고 있었음.

1-1) 공간 및 장비 지원

-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에게 작업 공간 및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임. 문화 분야의 경우 컴퓨터도 고사양이어야 하거나 디자인이나 영상 작업을 위하여 특수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작업 공간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고사양 컴퓨터, 고사양 컬러 프린터기 등 기본 장비들이 갖추어진 작업 공간으로까지 지원이 필요할 것임. 또한 다양한 장비를 빌려줄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함.
- 해당 문화 분야 프리랜서들의 공간 및 장비 지원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예술인은 연습 공간 제공 및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술인들을 위한 연습 공간 확보 및 제공, 연습실 무료 대여 등 공간 지원이 필요할 것임.

1-2) 문화 분야 표준사례비 기준 등 마련 및 공유

-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사례비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사례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각각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각 다른 문화예술 분야마다의 적정 표준 사례비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현재 표준산업디자인 단가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시중에서는 많이 공유가 되지 않아서 해당 단가로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적절하게 책정된 문화예술 급여 단가 기준이 있다면 해당 단가를 따르도록 홍보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3)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예술 행사 참여 기회 보장

-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예술 행사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할 것임. 예술인들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본업인 예술 공연이 전면 취소되는 등 예술 활동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행사를 전면 취소하는 방식보다는 다른 대안 마련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즉 예술인들이 공연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이나 자동차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 등 다양한 방식의 공연이 기획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공연 방식의 변화에 따른 부담을 예술인들이 오롯이 홀로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추진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2) 관광 분야 프리랜서 지원방안

- 관광 분야 프리랜서들은 앞서 제시된 정책 지원 외에도 코로나19 동안 가이드 업무가 거의 대부분 정지한 상황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이드들의 이직 및 투잡을 하는 경우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가이드들의 당장의 생계 지원을 위한 대책 및 코로나19 이후 가이드들이 필요할 때 가이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 보존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가이드들은 코로나19 동안 관광과 연계된 공공 일자리 마련이나 가이드 대상으로 맞춤형 취·창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음.

- 또한 관광 트렌드 변화로 인하여 단체 및 패키지 여행 형태에서 개인 형태의 여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렌터카 등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소그룹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이드할 수 있는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음. 그리고 가이드의 보존을 위하여 새로운 가이드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 양성도 필요하다고 하였음.

2-1) 가이드의 디지털 및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 사회 변화에 따라 관광 트렌드도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술 관련 분야(관광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와 세부 분야 관광(지역/특화 관광실버 여행),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 및 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관광 분야 일자리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한희정, 2020).
- 이처럼 변화하는 관광 분야의 미래에 발맞추어 가이드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가이드들에게 디지털 및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관광 빅데이터 활용 및 지역 특화된 관광 지식을 통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추후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가 허용되게 되면 관광 디지털 및 지역 특화 교육을 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소그룹 관광 가이드를 개발해낼 수 있고, 더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2) 가이드 대상 맞춤형 취창업 지원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이드들의 이직 및 투잡이 많은 가운데 이들에게 맞춤형 취·창업 지원이 필요할 것임. 특히 가이드들은 몇십 년 동안 관광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해왔으며, 제주도에 대한 많은 지식과 사람들을 잘 상대할 수 있는 스킬 등을 갖추고 있음. 이러한 관광 분야 전문가들에게 맞는 취업 연계 및 관련 분야 창업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가이드 업무만을 맡아서 해왔던 이들을 위해 새로운 직업을 얻으려고 할 때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재교육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리고 창업 시에는 대출 지원이나 정보 제공, 코칭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었기에

종합적인 창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프리랜서인 가이드들은 경력이나 소득 증명이 어려워서 은행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창업 시 대출 지원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임.

2-3)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 도입 검토

- 관광 트렌트 변화에 맞춰 개인이나 소그룹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임. 드라이빙 가이드는 렌터카 등을 사용하여 개인이나 소그룹으로 관광을 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가이드가 운전을 하면서 설명 등 가이드를 해 주는 것임. 제주도 가이드 관련 협회에서와 프리랜서 가이드 당사자들은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현재는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는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드라이빙 가이드 제도가 도입된다면 도입된 이후에는 해당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 관광객들의 관광 욕구를 잘 파악하고, 가이드들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개인 관광객들과 가이드들이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 등 다양한 해당 제도 활성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4) 가이드의 양성 지원

- 현재는 가이드들의 연령이 50대가 70%에 가까운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음.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이드는 꼭 필요한 직업이며,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는 제주도에서 가이드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제주를 알리는 등 필요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따라서 가이드라는 직업이 소멸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가이드 양성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음.
- 현재도 가이드 자격증을 획득하는 이들이 있지만 가이드 자격증만 가지고 있을 뿐 현장으로 나와서 실제로 가이드 활동을 하는 새로운 인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현장 실습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관광 관련 학과를 다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이드에 대한 설명회 및 가이드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가이드에 대한 직업 소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임.

2-5) 코로나19 시대, 관광 관련 공공 일자리 마련 및 제공

- 관광 분야 프리랜서인 가이드들을 위한 관광 관련 공공 일자리 마련 및 제공이 필요할 것임.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광 분야 가이드들은 심각하게 생계에 타격을 입었으며, 가이드업계의 생존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코로나19 동안 가이드들이 일할 수 있는 관광 분야와 관련된 공공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는 가이드들의 생계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코로나19 동안 가이드들이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는 것을 일부 방지하여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 가이드들이 필요할 때 가이드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게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임.
- 관광 관련 공공 일자리로는 제주시 내 도심 관광안내소나 국립 혹은 도립 관광지에서 안내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임.

※ 추진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3) 교육 분야 프리랜서 지원방안

- 교육 분야 프리랜서들은 앞서 제시된 정책 지원 외에도 저평가되어 있는 낮은 강의료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컸음. 현재는 준비 시간이라든지 경력 등은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강의 시간 자체에 대해서만 강의료가 정해져 있어서 급여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강의 장소 및 장비 등을 개인이 모두 감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었음.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강의들이 전면 취소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마냥 전면 취소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교육 강의들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3-1) 경력 등이 반영된 강의료 상향 조정

- 교육 분야 프리랜서들의 낮은 강의료 개선이 필요함. 즉 준비 시간 및 경력 등이 적절하게 반영된 강의료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임. 현재는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

는 인재개발원의 강의로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준비 시간이나 경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기준 개선을 하고,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해당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방과후강사들은 강의를 시간당으로 받고 있는데 과거 인원 수당 강의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강의로 산정방식을 일부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는 방과후강사 강료가 낮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강료 인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2) 강의 장소 및 장비 지원

- 프리랜서 강사들은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 강의 장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컴퓨터 등 교육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음. 이에 프리랜서 강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강의를 위한 공유 공간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할 것임. 또한 강의를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및 장비 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임.
- 해당 교육 분야 프리랜서들의 공간 및 장비 지원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3)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의 진행을 위한 지원

- 교육 분야 프리랜서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육 강의 및 방과 후 수업 취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코로나19 상황이라도 교육 분야 프리랜서들의 생존을 위하여 강의 진행을 위한 지원 마련이 절실함. 즉 교육 강의 전면 취소 대신에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강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특히 교육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강의 방식이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변경된 온라인 강의 방식에 대해 프리랜서 강사들이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방식 및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관련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또한 온라인 교육 강의를 위한 장비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추진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참고문헌

- 김강호·이하은·강진영·남미자·송주희(2019).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노동실태 인터뷰 사례집」. 경기청년유니온.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서울시(2018).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 신승배·이해웅(2019). 「2019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승렬·김삼수·황준욱·박명준·신현구(2013).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 프리랜서 사회안 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윤·박경진·김규혜(2019). “한국 청년프리랜서의 일의 방식과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비판사회정책」. 64. 181-239.
- 장지연·김근주·박은정·이승윤·이철승·정슬기(2017).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 최운산·정형욱·안태윤·임지영(2011). 「전문직 여성 프리랜서 경력개발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한희정·김덕기·박가열(2020). 「관광산업의 미래 일자리 전망과 대응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황준욱·권현자·김영미·박제성·남재량(2009). 「프리랜서 고용관계 연구 - 영화산업과 IT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2020). 「지역별 고용조사」. 2020년 하반기 A형.
-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2021.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social/sub07_1.do
-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http://www.jfac.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sup/main.do>
- 경기도 보도자료, “‘전국 최초’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전체 40.6%는 연소득 2천만원 미만, 87.4%는 부당행위 경험”, 2021. 3. 11. 일자.

연구보고서 2021-03

제주지역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과 정책
지원방안 - 문화, 관광,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1년 8월 31일

발행인 민무숙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89

T. 064-720-4922, F. 064-711-2349

www.jewfri.kr

인쇄소 디자인늘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9-11-87026-67-9

제주지역 여성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과 정책 지원방안

- 문화, 관광,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63145 제주시 연오로 89(연동) 3층

✉ jewfri@jewfri.kr 🏠 www.jewfri.kr

